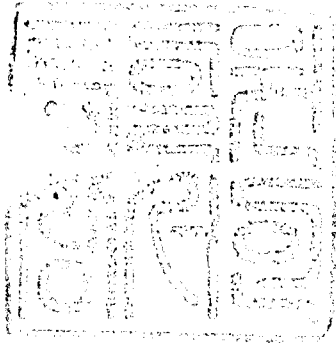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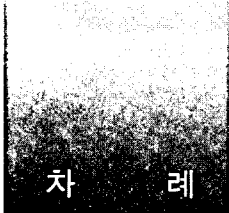


時事資料·第37號

統一教育



統一研究院



北韓動向

■ 對內動向

- 黨·政기구 및 人物변동현황.....7
- 「지방인민회의」대의원선거종합.....12
- 勞動黨창건 44周年 관련동향.....17
- 朝總聯 제15차 전체대회개최.....21
- 中·小型 수력발전소 건설에 注力.....26
- 畜産部門 생산강화 독려.....30
- 咸南 「광포 오리工場」에 「技能工學校」 설치운영.....34
- 東醫부문 과학토론회 개최.....35

■ 對南動向

- 최근 對南煽動攻勢양상과 특징.....43
- 「고려연방국」案 제의 9周年 기념동향.....50
- 「민족통일협상회의」제의 배경과 저의.....55
- 종교인교류전망과 北韓의 대화전략.....61
- 한반도 非核化를 위한 「3者會談」 제의.....67

■ 對外動向

- 金日成의 비밀訪中배경과 속셈.....75
- 金日成 中國非公式 방문관련 외신보도내용
- 최근 對中·蘇 관계동향.....83
- 對東歐圈 외교전개방향과 전망.....89
- 경제협력 내세운 對阿접근강화.....95
- 「國家 科學技術委」대표단 中國방문.....100

■ 主要動向日誌

共産圈 및 周邊動向

- 중국과 소련의 최근동향..... 107
- 南北韓 유엔동시가입에 대한 소련반응..... 111
- 西獨 콜總理 「3段階10個項」統獨案 提示.....114

資 料

- 北韓 개방저해요인과 향후전망.....121
- '89년도 北韓 경제추진현황과 평가..... 127
- 北韓 군사력 증강내용 분석평가.....133
- 노동당 44년의 足跡..... 136
- 최근 귀순자 주요진술내용.....142
- 소련기자 訪韓記147
- 韓·蘇관계의 현황과 전망..... 148
- 韓國·폴란드 修交관련 반응종합..... 153

北 韓 動 向

對內動向

- 黨·政기구 및 人物 변동현황
- 「지방인민회의」 대의원 선거종합
 - 勞動黨창건 44周年 관련동향
 - 朝總聯 제15차 전체대회 개최
- 中·小型 수력발전소 건설에 注力
 - 畜産部門생산강화 독려
- 咸南 「광포 오리工場」 에 「技能工學校」 설치운영
 - 東醫부문 과학토론회 개최

對內動向

黨·政기구 및 人物변동현황

올해 北韓의 勞動黨 및 政務院 등 핵심정권기관에서는 기본적인 권력구조 또는 골격에 어떤 변화를 의미할만한 인물변동상황은 없었다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로 되고 있다.

올들어 10월말 현재까지 北韓의 권력중추조직인 勞動黨쪽에서는 對서방외교강화 필요성에 대처한 듯, 연초에 서방전문가인 金勇舜을 黨국제사업부장에 기용한 것을 제외하고는 기구나 인물에 별다른 변화없이 현재에 이르고 있다.

1월중순경에 「확인」된 金勇舜의 黨국제사업부장 기용은 전임 玄峻極이 노동신문책임주필로 전보(88.12.11)된데 따른 후속인사로, 金이 대외관계 특히 중립국가나 자본주의국가에 대해 정통한 인물이란 점에서 北韓이 서방과의 교류 및 협력확대가 불가피하다는 점을 인식하고 黨的 차원에서 이에 대처하려는 포석으로 평가되었다. 金勇舜은 권력세습자 金正日의 외척중 유일한 고급당료로서 金正日체제출범과 함께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76. 黨국제사업부부장), 84년에 이미 黨국제사업담당 비서겸 부장직에 오르기까지 하였으나 1년만에 黨대외연락부부장으로 격하되는 수모를 겪기도 했는데, 이번의 재기용 역시 金正日의 입김이 크게 작용했을 것으로 보여진다.

8 統一教育

한편 행정부격인 政務院에서는 금년들어 경제분야에서 3개 부서가 독립 승격함에 따라 새로운 인물들이 부서책임자로 각각 기용됐으며 이밖에 부총리급에서 약간의 변동이 있었으나 기본적인 골격구조나 골격에 영향을 미칠만한 인사변동은 못된다는 것이 일반적인 관측이다.

北韓은 지난해 말에 신설된 전자 및 자동화공업위원장에 白세운을 연초에 임명(1.5)한데 이어 신설된 도시경영부부장에 李哲奉을 임명(6.1)했고 역시 신설부서인 지방공업부부장에 金성구를 기용(8.21)하는 등 기구증편에 따른 책임자 신규기용인사를 각각 실시했다.

北韓의 이같은 政務院 경제분야 기구증편작업은 지난해 11월에 열린 黨6기 14차전원회의에서 공작기계 및 전자자동화 공업발전 문제를 논의한데 이어 12월에 열린 15차전원회의에서 李根樞총리가 전격해임되고 그 자리에 국제감각과 전문성을 겸비한 것으로 알려진 延亨默이 기용되면서부터 구체적으로 추진되었다. 비슷한 시기에 신설된 합영공업부부장에 蔡熙正이 기용되고 이어 새로 생겨난 전자 및 자동화공업위원장은 오래동안 이 분야에 종사해 온 경제테크노크라트로서 최근 부상하고 있는 白세운을 기용함으로써 黨6기 14차전원회의가 결정한 공작기계 및 전자·자동화 공업분야의 활성화정책 추진에 박차를 가했다.

앞으로 닥쳐올 개방화추세에 대비해 도시정비미화사업등 종합적인 도시개발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연초 인민봉사위원회산하 도시경영총국을 독립부서로 승격시킨 도시경영부 책임자에는 혁명2세대로서 교통·체신분야를 두루 거친 李哲奉을 임명

(6.1) 했다. 李의 도시경영부장기용은 도시개발사업의 효과적인 추진과 함께 특히 李가 金正日추종세력의 본산이라고 할 수 있는 만경대학원출신으로 사회안전부장까지 역임한 비중있는 신진인물이란 점에서 金正日체제 견고화를 위한 인물포석의 하나로 평가되기도 했다.

또한 경공업위원회 지방총국에서 분리돼 독립승격(7.27)된 지방공업부부장에 화학공업부장을 지낸 경공업분야 전문가 金성구를 기용(8.21)했는데 주민생활필수품 생산의 약 절반가량을 차지하고 있는 지방공업을 육성·발전시키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 이 부서를 독립승격하고 이 부문 전문관료인 金을 책임자로 기용한 定石인사조치로 풀이됐다.

이로서 北韓의 政務院은 지난해 연말부터 경제부처의 잇달은 증편으로 14개위원회, 23部, 1院, 1은행, 2局등 모두 42개부처로 늘어났다(별표참조).

한편 北韓은 6월 28일자로 政務院 교육위원회위원장 변영립을 해임하고 후임에 고등교육부장직무대리로 있던 崔기룡을 승진 기용했는데 신임 崔위원장은 김책공대부학장등을 역임한 교육자출신인물로서 교육부문종사자들의 사기양양이란 측면이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北韓은 지난 10월 25일자로 농업위원장 金昌柱를 해임하고 그 자리에 함남도당책임비서를 2차례(68~70, 75~88.2)에 걸쳐 17년여동안 재직한 바 있는 白範守를 기용했는데 이번 인물교체는 부총리를 겸했던 전임자 金이 82년부터 8년 가까이 장기재직한 데 따른 교체이며 金의 부총리직은 그대로 유지되는 것으로 보여

지고 있다.

한편 政務院 인물변동 가운데 그런대로 주목되는 것은 4월 21일자로 단행된 평양시당책임비서 姜希源의 부총리기용과 10월 18일에 있었던 부총리 趙世雄의 부총리직 해임조치이다. 姜은 黨정 치국후보위원으로 지난 '86년 11월부터 평양시당책임비서겸 인민위원장직에 있던 지방행정전문가로서 이미 '78년에 한차례 부총리직을 역임한 바 있는데 金日成의 신임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약간 권력서열에서 뒤로 밀리고 있다가 이번에 부총리로 재기용됐다. 趙世雄의 부총리직 해임조치에 대해 北韓은 趙의 「他職전보」(중앙인민위정령)라고만 언급하고 있어 앞서 姜希源의 부총리기용과 어떤 함수관계를 가지고 있는지 꼬집어 지적할 수는 없지만 부총리의 수가 연초 8명에서 9명으로 늘었다가 趙의 해임으로 다시 8명으로 환원됐다는 점이 눈에 띄인다.

北韓의 政務院 부총리 수에 대한 정원규정은 없으나 8기내각구성(86년 12월) 이후 통상 7~9명선에서 운영되고 있다.

최근 政務院 기구 및 인물현황 (89. 10 말 현재)

※ (신)은 신설부서, (부)는 부총리 겸임
총리(延亨默), 부총리(金永南, 金福信, 鄭浚基, 金昌柱, 金允赫, 金渙, 洪城南, 姜希源), 외교부장(金永南, 부), 대외경제委(金達鉉), 농업위(白範守), 건설부(趙哲俊), 건재공업부(李英勳), 국가계획위(洪成南, 부), 금속공업부(崔圭賢), 기계공업부(桂亨淳), 채취공업위(趙昌德), 교통위(李吉松), 전력공업

위(李志燦), 화학공업부(金煥, 부), 경공업위(金福信, 부),
수산위(崔福延), 인민봉사위(孔鎭泰), 국가건설위(金應相),
과학기술위(李資方), 사회안전부(白鶴林), 자원개발부(金世榮),
원자력공업부(崔學根), 선박공업부(李錫), 체신부(金昌虎),
철도부(朴勇石), 무역부(金達鉉), 대외경제사업부(鄭松男),
임업부(金在律), 노동행정부(李載允), 교육위(崔기룡), 문화
예술부(張澈), 재정부(尹基貞), 과학원(金景鳳), 보건부(李
鍾律), 상업부(韓將根), 체육지도위(金裕淳), 함영공업부(蔡
熙正, 신), 전자자동화공업위(白世允), 도시경영부(李哲奉),
지방공업부(金성구)

(내외통신 664 호, '89.11.3)

「지방인민회의」대의원선거 종합

北韓은 11월 19일 道·市·郡인민회의 대의원선거를 실시, 2만 9천 5백 35명의 새로운 지방인민회의 대의원을 선출했다.

北韓 선전기관들은 이번 선거에서 전체 유권자의 99.73%가 선거에 참가해, 유권자의 1백%가 찬성투표했다고 밝혔다. 이러한 선거결과를 놓고北韓은 『당과 수령의 두리에 굳게 뭉친 인민의 불패의 통일 단결된 위력과 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을 시위한 것』이라고 선전했다.

따라서北韓은 이번 지방인민회의대의원선거를 통해 金日成父子를 首位로 하는 「혁명정권」에 대한 전체北韓住民들의 신임과 충성을 재확인한 것으로 평가하고 金父子체제를 더욱 강화발전시키 나갈 것임을 다짐했다. 이러한北韓의 체제결속 다짐은 지금까지의 선거관행으로 볼때 당연한 귀결이다. 그러나 최근 소련을 위시한東歐사회주의국가 전역에서 개혁·개방波高를 타고 대폭적인 체제전환을 시도하고 있는 국제적 時流에 비추어 볼때 시대역행성과 전근대적인 속성을 표출시켜준 것이란 점에서 외면할 수 없는 시각을 갖게 한다. 최근 폴란드·헝가리·동독에 이어 최근 체코와 불가리아 등지에서 脫이데올로기시대를 구가하며 앞다투어 민주적 정치체제를 도입하는 등의 체제전환을 꾀하고 있다. 더욱이 이러한 체제개혁물결은東歐전역에서 피할 수 없는 시대적 지상명령으로 되고 있다.

이처럼 급변하는 국제정세속에서 한반도의 한 모퉁이에 자리잡고 있는 北韓만이 유독 이제 낡은 曲調로 전락되어버린 프롤레타리아 독재정권을 고수하기 위한 전근대적 선거놀음을 벌이고 있다는 것은 그 체제모순성과 경직성을 새롭게 인식하는 계기가 되고 있는 것이다. 北韓은 이번 지방인민회의의 대의원선거를 앞두고 2개월전부터 각종 선거선전사업을 벌이며 北韓주민들의 선거참여를 호소했다. 예컨대 지방선거구별로 후보자 추천을 위한 공장·기업소총업원회의·주민회의·농장원회의·조합원회의·군무자 회의등을 연일 소집하여 집단적 결속을 꾀하는가 하면 黨·政간부나 선동원, 5호담당선전원, 교원들을 공장·협동농장·열차·버스·영화관등에 파견해 강연·해설담화등을 통해 선거홍보를 펼쳤다. 또한 선거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이른바 歌唱隊라는 것을 조직, 선거구마다 순회하며 金日成父子에 대한 충성을 주제로 한 예술공연을 벌이며 선거분위기를 고조시켰다. 이같은 다양한 선거선전사업을 통해 그들의 선거제도가 『가장 인민적이며 민주주의적인 선거제도』임을 주지 시키는데 열을 올렸다. 그러나 北韓의 선거가 가장 민주적인 선거제도인가에 대해서는 큰 의문을 갖게 한다. 이번 지방인민회의의대의원선거를 비롯한 北韓의 선거제도를 살펴보면 오히려 가장 비민주적인 선거와 상통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우선 투표방법에서 과거 '61년까지는 黑·白函제를 채택, 찬성은 白函에 반대는 黑函에 투표토록 했다가 '62년 10월부터 소위 단일투표합제로 바꿔 실시해왔다. 단일투표합제는 찬성자는 백지투표지를 그대로 투표함에 집어넣기만 하면 되고, 반대자는 투표지에 [X]를 표시하도록 함으로써 사실상 공개투표나 다름없는 선거방법이다.

14 統一教育

선거자가 투표장에서 선거관리원으로 위장된 감시원들의 눈초리를 피해 반대투표행위를 보인다는 것은 北韓사회풍토에서 가히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다. 만약 반대투표행위를 했다면 그것은 곧 金日成의 「혁명정권」을 정면반대한다는 의사표시로 간주되어 즉결 처형의 대상이 된다는 것이 불문율로 적용되기 때문이다. 또한 北韓의 선거에서 후보자선출방법은 단일후보제이다. 이것은 지방인민회의는 물론 최고인민회의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며, 그나마 선거구민에 의해 추천되는 것이 아니라 노동당조직지도부에서 일방적으로 지명한 후보만이 선거에 나설 수 있다. 물론 형식상으로는 1인 후보자를 추천한다는 명목으로 공장·기업소나 협동농장별로 주민회의를 개최하고는 있으나 극히 의례적인 통과의식일 뿐이다.

선거절차와 시간에 있어서도 北韓의 선거는 세계선거사상 유례없는 최단시간에 끝내는 것을 자랑으로 삼고 있다. 北韓의 선거는 아침 7시부터 저녁 6시까지로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12시 이전에 종료되는 것이 상례로 되어 있으며, 이번 지방인민회의대의원 선거에서는 이례적으로 2시간 늦은 오후 2시에 종료된 것으로 발표했으며 선거결과는 다음날인 11월 20일 「중앙선거지도위원회」 보도를 통해 발표했다.

北韓의 보도는 『전체 유권자의 99.73%가 선거에 참가했으며, 선거에 참가한 유권자의 1백%가 선거구들에 등록된 대의원후보자들에게 찬성투표했다』고 발표했다. 그리고 이번 선거에서 2만 9천 5백 35명의 지방대의원을 선출했다고 밝혔는데 이는 85년 2월 선거에서 2만 8천 7백 93명을 선출했던 것에 비해 7백 42명이 늘어난 것이다. 北韓은 이들 새로 선출된 대의원들이 『黨과 수령에 대한 높은 충성심을 지닌 노동자·농민·병사·군로인테리들』이라

고 밝혔으나 그들의 구체적인 성향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고 있다. 따라서 北韓의 선전대로 본다면 이들 지방인민회의대의원들은 金日成에 대한 충성도면에서 일등공신으로 선택된 핵심분자들임을 알 수 있다. 더욱이 이들 2만 9천 5백 35명의 지방인민회의대의원들은 전체 선거자들의 1백% 찬성을 얻어 선출됨으로써 결과적으로 오늘의 金日成父子체제에 대한 「일심단결」을 시위한 것이나 다름없다는 것이 北韓의 自評이다. 자유민주국가는 물론 이제는 東歐사회주의국가들에서도 찾아보기 어렵게 된 「1백%찬성」이라는 도식화된 선거결과를 놓고 북한은 그들 체제결속을 시위하는 계기로 삼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최근 東·西진영을 불문하고 확산되고 있는 자유민주적 정치체제흐름으로 볼때 구태의연하고 전근대적인 선거놀음을 펼쳤다는 것은 不問可知이다. 北韓도 그같은 판에 박힌 그들의 선거도식이 대외선전에 별다른 실효를 거둘 수 없는 시기가 도래했음을 인식해서인지 이번 선거에서는 종래의 「1백% 참가, 1백% 찬성」이라는 圖式을 깨고 「99.73% 참가, 1백% 찬성」이라는 약간 변형된 선거도식을 발표했다. 北韓이 지난 40여년동안 오늘의 金日成父子체제를 시위하는 가장 확실한 담보로 매년 선거때마다 제시해왔던 「1백%참가, 1백%찬성」이라는 선거文句를 수정한 것은, 北韓도 조금씩이나마 최근의 시대적 변화추세를 인식하고 있다는 신호로도 볼 수 있어 이례적인 관심을 끌게 한 대목이었다. 北韓은 99.73%의 참가율에 대해 『외국에 나가 있거나 먼 바다에 나가 일하는 유권자』들 때문이었다고 그럴듯한 해명은 하고 있으나, 그와 동시에 지금까지 수십년동안 자랑해왔던 1백%투표의 허구성을 스

勞動黨창건 44 周年 관련동향

1. 概 要

- 北韓의 放送宣傳 媒體들에 의하면,北韓은 勞動黨 創建 44 周年 (10.10)을 맞아 “黨 國際部主催 各國 外交官들과의 친선모임” (10.9 오찬)을 공식 기념행사로 진행한데 이어 金日成등 고위간부들은 순천비날론공장 조업식에 참가한 것으로 확인됨.
- 한편, 黨創建 44 周年을 기해 韓民戰 中央委員會의 金日成·金正日에게 보내는 祝賀文(10.10)과 조청련의 간부강연회(10.9)가 있었으나 아직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되지 않고 있음.

主要動向日誌

◀ 행사 ▶

- 당국제부, 외교단들과의 친선모임 진행
 - 10.9 평양
 - 참석자 : 허담(비서), 김용순(국제부장) 등
 - * 축배사 : 허담(내용미상)
- 김일성·오진우등 당간부들, 공장 조업식 참석
 - 순천비날론연합기업소 1 단계 조업식(10.9)

18 統一教育

—천리마제강 연합기업소 5월 18일 대형 단조공장 조업식
(10.9)

◀ 한민전 ▶

- 한민전, 金日成·金正日에 축하문(10.10)
* 내용미상

◀ 조총련 ▶

- 조총련, 간부강연회
— 10.9 도쿄 조선회관
— 참석자 : 이진규(제 1 부의장), 박재로(부의장) 등

◀ 신문, 방송논조 ▶

- 노동신문 논설 10.9:
(제목) “혁명의 전진과 함께 끊임없이 강화되는 당과 인민의 혈연적 연계”
- 평양방송 논설 10.9:
(제목) “모든 문제를 우리식대로 풀어나가는 것은 우리당의 영도의 중요 특징”

2. 分析 및 評價

- 北韓은 이번 勞動黨 創建 44 周年(10.10)과 관련, 공식기념보

고회를 黨 國際部主催, 平壤駐在 各國 “외교단들과의 친선모임”으로 대신한 바,

-이는 北韓이 每5年 단위로 黨 創建 기념보고대회를 대규모로 진행해 온 관례에 따라 취해진 것으로 보임.

* '88년(黨創建 43주년)도 “黨 국제부주최 외교단들과의 친선모임”이 있었음.

●그러나 이번 黨創建 44周年을 기해,

-金日成·吳振宇(인민무력부장)등 최고위간부들은 “순천비날론 연합기업소 제1단계공장 조업식”에 參席, 당면 경제건설의 성과와 의의를 浮刻시키는데에 역점을 두었으며

-신문·放送媒體들의 宣傳論調는 金日成의 업적과 金正日의 리더쉽을 선전하고 「黨의 政治·思想的 統一團結」을 촉구하면서도

·당면 정치상황과 관련, 「내외의 정세는 의연히 착착하고 긴장」하다고 우려하였으며 이와관련, 北韓의 立場은 「모든 문제를 우리식대로 풀어나가는 것」을 「黨의 영도」로 견지한다 라고 설명하므로써

·北韓이 공산권 각국의 개혁·개방화에 따라 느끼는 영향력과 갈등이 매우 심각하다는 것으로 느끼게 한 것은 주목됨.

●결론적으로, 北韓이 이번 黨創建 44周年關聯 공식기념보고행사를 생략한 것은 黨創建 기념행사의 관례에 따른 것으로 보이며, 나아가 90年度의 黨創建 45周年 기념행사를 감안한 것인 듯함
-그리고 北韓이 신문·放送媒體를 통해 내외정세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과 이에 따른 대처방식으로 「우리식대로」라는 소

20 統一教育

극적인 자세를 강조했다는 점에서
—南北韓關係에서도 새로운 발전적인 변화를 예상하기 어려운
것으로 미루어 分析됨.

朝總聯제 15 차전체대회 개최

在日朝總聯 제 15 차전체대회가 9월 20~22일까지 3일간 동경 조선문화회관에서 진행됐다. 이번 제 15 차전체대회는 지난 86년 9월에 개최된바 있는 14 차전체대회 이후 만 3년만에 열린 것이며 이날 대회에는 朝總聯의장 韓德銖를 비롯, 각급산하단체 및 사업체들에서 선출된 대의원들, 그리고 日本의 左傾인사들과 親北인물들이 다수 참석했다. 특히 日本사회당위원장 도이 다카코여사를 비롯, 사회민주당 상임고문 덴 히데오, 總評의장 구로가와 다게시 등이 축하연설을 해 이 대회의 정치적 비중을 높이려는 朝總聯측의 의중을 드러냈다.

北韓측에서는 축하단을 파견하지는 않았으나 金日成이 제 15 차전체대회 앞으로 축하문을 보냈으며 이에앞서 朝總聯에 대한 교육원조비 및 장학금명목의 111 차 조직육성비를 송금하고 黨기관지 노동신문에서는 기념사설을 게재하는 등의 聲援을 보냈다.

20일 개막된 제 15 차전체대회에서는 朝總聯제 1부의장 李珍圭의 개막선언에 이어 대회주석단과 집행부 서기부 및 자격심사위원회 위원들이 미리 짜여진 각본에 따라 선출되었으며 이 자리에서 金日成의 축하문을 전달하는 의식을 가졌다.

대회의정으로는 朝總聯의 ①사업총화보고 ②감사위원회보고 ③재정결산 및 예산안보고 ④의장단선거등 4개안을 채택했다. 첫째

의정인 「사업총화보고」는 朝總聯의장 韓德銖에 의해 행해졌으며 韓의 보고연설후 이에관한 참석자들의 토론이 진행됐다. 사업총화 보고에 대한 토론은 3일간 계속되었는데 대회폐막에 앞서 2일회의에서는 국제기구들과 일본을 비롯한 세계여러나라 정당·사회단체·민주단체들, 개별적 인사들이 보내온 「축전」과 「축하문」들이 소개되었고 3일회의에서는 일본정부에 보내는 「요청문」이 채택된데 이어 朝總聯 分會조직 및 단체·사업체·기층조직 등에 이른바 애국영예기칭호 수여식이 진행됐다.

이같은 회의일정은 3년마다 정기적으로 개최되는 전체대회때마다 의례적으로 진행되는 수순이며 특히 대회마지막날에는 金日成과 金正日에게 보내는 이른바 「충성의 편지」를 채택하는 등으로 北韓에 충실한 재일교포조직임을 재확인시켜 주었다.

金日成앞으로 보낸 충성의 편지속에는 이번 제 15 차대회의 성격과 함께 朝總聯활동방향등이 확연하게 반영되었다. 이 편지 서두에서부터 朝總聯은 『수령님의 축하문 교시를 구현하여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總聯사업을 더욱 개선강화하기 위한 활동방침을 토의결정함으로써 재일조선인운동발전에 새로운 이정표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 편지는 이어 金日成축하문교시를 『심장으로 받들고 철저히 관철할것』을 다짐하면서 소위 「總聯의 주체사상화」에 전력을 기울여 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朝總聯은 이와 함께 朝總聯계 재일동포들의 민족교육사업과 권익보장 및 고려연방제실현을 위한 통일투쟁사업등 이른바 「애국사업」을 적극 강화해 나가는 가운데 朝總聯조직을 「주체형의 애국조직」으로 강화발전시켜 나가겠다는 결의를 표명했다.

朝總聯의 이같은 對北韓증성활동다짐은 최근 국제정세변화와 東歐사회주의국가들의 脫이데올로기정책추진 등에도 불구하고, 폐쇄적인 金日成王朝체제에 대한 맹목적인 증성과 下手人的 역할수행을 계속하겠다는 뜻을 노골화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결국 朝總聯이 이번 15 차전체대회를 통해 표출시킨 메시지들은 朝總聯동포사회에 크게 확산되고 있는 金日成父子王朝체제에 대한 불신과 함께 「주체사상」의 허구성에 대한 비판여론을 외면한 처사를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으로서 향후 기존의 조직기반정비에 매우 난감한 궁지에 몰릴 공산이 크다고 보겠다. 그동안 朝總聯조직 내부에서조차 朝總聯계 동포들은 물론 日本人사회에서 이미 외면당하고 있는 「주체사상」을 조직활동지침으로 삼는다는 것은 비현실적인 조치로서 在日동포들의 조직이탈을 加重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음을 지적하고 조직활동정책 전환을 요구하는 여론이 높았던 것이 周知의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朝總聯이 또다시 主體思想化를 위한 시대역행적 정책방향을 답습할 수 밖에 없었던 것은 이 조직이 北韓의 철저한 배후조종하에 움직이는 下手人조직이라는 구조적 영향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朝總聯의 그같은 對北韓중속관계는 이번 대회에서 가장 큰 관심사로 주목되었던 의장단선거에서도 다시 한번 드러났다. 지난번 제 14 차 전체대회시 우여곡절끝에 朝總聯의장직을 고수했던 韓德銖가 이번에도 퇴진이 불가피한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82세의 고령에도 불구하고, 의장에 재선되는 관록을 보였으며 새 의장후보로 지목되었던 李珍圭는 제 1 부의장에 그대로 유임됐다.

韓德銖는 이 대회에서 전원일치로 의장에 선출되었으며 李珍圭

24 統一教育

를 제 1 부의장으로한 부의장단에는 朴在魯·徐萬述·申相大·허정만·오형진·이말상·배명두·전연식 등이 천거되었다. 부의장단 가운데 교체된 인물로는 李季白이 지난 4월 北韓의 사회민주당위원장에 선출됨으로써 빠졌으며 문동건이 오형진으로 바뀌었고 대부분 제 14 차전체대회시에 선출된 인물들이 유입됐다.

이러한 의장단진용으로 볼때 그동안 조직내 실력자로 알려져왔던 李珍圭세력의 강력한 도전을 무마하고 韓德銖체제를 고수함으로써 새로운 변화보다는 현상유지를 꾀하겠다는 北韓측의 계산이 작용한 흔적을 엿볼수 있다.

朝總聯조직을 지난 34년간 장기독재체제로 이끌어온 韓德銖는 그동안 82세의 고령에 따라 사실상 리더쉽발휘가 어려운 입장에 있었고 특히 朝總聯상공인들의 충성헌금 각출부진과 재정압박에 따른 조직운영난 봉착, 조직이탈자의 급증현상 등으로 말미암아 北韓지도부로부터 크게 不信을 당해온 입장이었다. 이에 따라 朝總聯조직간부들간의 內紛이 심화되고 중앙조직과 지방조직 산하단체들간에 보이지 않는 알력과 갈등이 심화되는 상황을 초래 이에따라 韓德銖체제의 리더쉽이 크게 약화되는 지경에까지 이르렀던 것이 최근의 현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韓德銖를 중심으로한 朝總聯조직내의 舊派세력과의 對北韓충성경쟁에서 비교적 優位를 유지해왔던 李珍圭(제 1 부의장)세력의 부상을 억제하고 기존의 韓德銖체제를 默認한데는 세대교체에 따른 不和와 부담요인을 원치않는 北韓측의 의도가 가미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또한 朝總聯조직내의 세대교체는 곧 北韓권력의 세대교체를 암

시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될지도 모른다는 北韓측의 우려가 작용한 것으로 볼수 있으며 무엇보다 金日成父子에 대한 충성과 맹종을 기본정책으로 삼고 있는 현 韓德銖체제로부터 새로운 변화를 초래케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 北韓측의 계산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최근들어 朝總聯사회내부에 전근대적인 對北韓충성활동에 대해 배타적인 분위기가 팽배해 있고 朝總聯조직과 학교를 이탈하는 전향자들이 속출하고 있는 현실속에서 앞으로 朝總聯조직의 航進은 그리 순탄치만은 않을 것이다.

(내외통신 659 . '89.9.29)

中·小型 수력발전소건설에 注力

최근 北韓은 당면한 전력難해소책의 일환으로 中·小型 수력발전소건설에 주력하고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北韓선전기관들에 의하면 현재 咸南道지역에서 만도 올해 모두 5백개의 발전소건설을 목표로 총돌격전을 전개하고 있으며 지난 6월까지 이중 2백 40개를 완공했다는 것이다.

北韓은 이 지역에서 2백 40개의 中·小型 발전소가 건설됨으로써 1만 2천여kw의 전력생산능력이 새로 조성됐다고 밝히고 오는 연말까지 나머지 2백 60여개의 발전소건설을 완공, 총 2만 7천kw의 전력생산능력을 조성할 목표아래 적극적인 건설투쟁을 전개하고 있다고 북한선전기관들이 전했다.

北韓은 이 咸南道지역에서 오는 '93년까지 향후 4년동안에 걸쳐 中·小型 수력발전소건설로 총 20만kw의 발전능력을 조성한다는 계획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咸南道지역 이외도 北韓은 현재 江原道에서 1백여개대상의 소규모 발전소건설계획아래 건설을 추진중이며 이미 20개 건설대상은 완공돼 지역전력수요에 충족하고 있는 것으로 전했다.

北韓이 이처럼 소규모의 水力발전소건설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는것은 전력수요증가에 대비해 대규모 신규발전소건설 추진과 병행, 기존 발전시설의 생산능력제고에 주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電力難이 심화되고 있어 이를 다소나마 완화해 보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北韓이 현재 추진중인 소규모의 水力발전소건설은 지난'79년 12월 黨중앙위원회 제 5기 19 차전원회의에서 金日成이 中·小규모의 수력발전소건설을 대대적으로 전개할 것을 지시한데서 비롯된다.

이 中·小규모 수력발전소의 건설내용은 그 규모가 1백kw에서 1천kw정도의 소규모 시설로서 발전방식은 통나무수로와 물레방아식 水車로發電하는 원시적인發電형태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특히 北韓은 지난해부터 이 中·小규모의 수력발전소건설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그 건설계획을 보면 황해북도지역 1백 50개, 兩江道지역 30개, 평북도지역 1백개, 황남도지역 50개, 함북도지역 25개로 총 3백 55개를 지난해에 건설을 추진, 이중 1백 80개를 완공·가동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역시 함북도지역 5백개, 강원도 1백 20개를 건설목표로 세우고 이의 건설을 대대적으로 추진중이다.

이처럼 北韓은 電力難을 다소나마 완화하기 위한 조치에서 지방의 소규모 공장이나 가정용 전력수요해결의 中·小型水力발전소건설에 역점을 두고 있지만 그 규모라는 것이 대부분 1백kw 내지 1천kw규모 이하인 점에 비추어 볼때 지역단위의 전력공급에는 다소 기여할지 몰라도 그들의 産業電力難을 완화하는데는 별다른 효과를 거두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北韓은 그들의 가중되는 電力難해소를 위해서 신규발전소건설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이에 드는 막대한 투자재원의 부족, 기술부족 등으로 인해 그 건설진척이 여의치 않은 실정이다.

北韓은 지난 '87년 착수된 제 3차 7개년계획(87~93) 기간중 발전설비능력을 1천 7백만kw규모로, 그리고 발전량은 1천억kw/H로 건설목표를 설정, 이의 달성에 총력을 경주하고 있지만 '89년 9월 현재의 발전설비능력은 6백 90만kw, 발전량은 2백 78억kw/H정도임을 감안할 때 그같은 목표의 실현은 극히 의문스럽다.

北韓은 기간중 火力발전부문에 서 소련의 지원아래 順川화력발전소(20만kw규모)·東平壤화력발전소(60만kw규모)·北倉화력발전소확장(1백 60만kw→2백만kw)과 자체적으로 20만kw규모의 청천강 2호화력발전소·威興화력발전소건설을 추진중이며 水力발전부문에서도 中國과 合作으로 위원발전소(39만kw규모)·태평만발전소(19만kw규모)건설과 또한 자체적으로 태천발전소(80만kw규모)·南江발전소(2만kw규모)·희천·영월·금야강·어량천·금강산발전소건설을 추진, 이 수력부문에서만도 총 4백만kw규모의 발전시설증설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 가운데 현재 착수되거나 완공된 발전소로는 12월화력발전소(남포市소재, 석탄전용으로 10만~20만kw규모 추정)가 건설중이며 順川화력발전소(20만kw)·태평만수력발전소(19만kw)·남강수력발전소(2만kw)는 각각 완공됐다.

또한 부분적으로 건설돼 가동중인 것은 태천발전소의 경우 모두 5개발전소건설 가운데 1호·2호발전소가 부분가동중이며 위원수력발전소 역시 부분적으로 가동중에 있는 것으로 밝혀져 신규발전소건설계획이나 확장사업이 부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올해 들어서도 北韓은 전력부문의 건설을 계속중점사업으로 추진, 영월·희천·개천 5호·금야강수력발전소·淸津火電확장·東平壤火

電건설사업을 전개하고 있지만 이렇다할 건설진척은 밝히지 않으므로써 이들 발전소건설 역시 여의치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같은 부진한 발전소건설과 기존발전설비들이 갈수록 노후화함에 따라 설비가동율이 저하돼 현재 북한의 전력難은 심각한 상태인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이같은 사실은 최근 北韓이 조명용 전기와 공장·기업소 및 가정들에서 필요이상의 전등을 켜지 말것을 경고하면서 앞으로 전력이용과 관리에서의 감독통제사업을 더욱 강화할 방침임을 나타낸 데서 잘 나타나고 있다.

黨기관지 노동신문은 지난 8월 30일 『전력증산과 절약투쟁을 적극 벌이자』제하의 사실에서 『지금 가장 중요한 문제가 전력문제를 푸는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이를 위해 전 군중적 운동으로 전기절약투쟁을 적극 전개해 나갈 것을 촉구했다.

이 신문은 특히 『조명용 전력과 비생산용 전력은 내면적으로 보면 많은 양은 아니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방대한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모든 공장·기업소와 기관·가정들에서 필요이상의 전등을 켜지 말며 전기일용품과 전열기같은 것도 꼭 필요한데만 쓰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해 나섰다.

또한 전력難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지금 있는 발전소들의 발전능력을 최대한 높일 것 ●노후발전설비들의 보수정비 철저 ●발전설비의 효율제고를 위한 기술개조사업 강화 ●동력설비의 경부하·공회전방지 등등을 제시, 이의 실천을 강력히 촉구함으로써 현재 가동중인 발전소들의 노후화로 인한 전력수급이 원활하지 못함을 보여주고 있다.

畜産部門 생산독려 강화

최근 北韓은 크게 뒤지고 있는 住民들의 食生活수준을 다소나마 개선하기 위한 대책의 일환으로 畜産부문의 기반조성등 생산증대를 위한 勞役선동을 강화하고 있다.

北韓은 지난 9월 7일 당기관지 노동신문의 「축산발전에 계속 큰 힘을 넣자」란 제하의 사설에서 「축산업을 발전시키는 것」이 농촌앞에 제시된 중요한 정책적 과업임을 역설하고 黨이 내세운 축산정책을 철저히 관철토록 촉구했다.

이 신문은 黨이 내세운 축산정책은 인민생활을 획기적으로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농촌경리부문을 비롯한 해당부문·해당단위의 모든 간부들은 肉類생산을 위한 축산업 보장사업과 노력조직사업에 만전을 기할 것을 촉구했다.

이와함께 우량종자의 보급확대, 獸醫방역사업강화등 肉類의 質을 높이기 위한 연구사업도 대폭 강화할 것을 촉구했다.

특히 이 신문은 축산부문에선 우선 해결돼야 하는것은 사료문제임을 지적하고 이의 해결을 위한 방도로 모든 협동농장들·공장·기업소·탄광·세대별로 먹이기지를 조성하며 이를 위해 물도량옆·길가·돼지우리 앞뒤·농가주변·산기슭등 이용가능한 유향지를 적극 개발·활용토록 할 것을 제시했다.

사료문제해결과 관련, 黨기관지 노동신문은 9월 23일 『비름·호박·등과를 비롯한 비알곡먹이작물을 많이 심어 축산업을 더욱

발전시키자』제하의 사설을 통해 金日成이 지난 9월 7일 삼석구역 협동농장을 현지지도하면서 축산업의 먹이문제해결방도로 비료·호박·등과등의 사료작물을 대대적으로 재배토록 지시했음을 강조하면서 이들 사료작물의 재배를 전군중적운동으로 전개할 것을 촉구했다.

北韓의 식량사정은 北韓住民들의 열악한 식량배급에서 잘 드러나고 있는데 현재 成人 1일배급량이 알곡대 잡곡비율 2對8인 520g에 머물고 있는 정도이다.

따라서 北韓은 이같은 열악한 주민식량배급여건을 다소나마 완화하고 주민들의 식생활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축산부문의 생산강화를 촉진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그러나 北韓의 축산정책이라는 것이 고작 「집집승기르기를 전군중적운동으로 전개」하는 정도에 불과하다는 점을 감안할 때 肉類생산에서 획기적인 성과를 기대하기란 사실상 어려운 실정이다.

北韓은 지난 '70년초부터 종래 공동축산생산증대를 위한 「모범축산반·모범축산농장창조운동」전개와 함께 개인별로 집집승기르기를 적극 권장해 오고 있지만 주민들의 肉類배급사정은 현재까지도 金日成·金正日생일행사등 국경일에 가구별로 年 돼지고기 1.5kg정도를 특별배급받는 것이 고작이다.

北韓은 지난 6개년계획(71~76)기간중 축산분야의 생산목표를 肉類40만톤, 달걀30억개, 젖6만톤, 양모2천5백톤을 제시하고 이의 달성을 위해 각 생산단위별로 가축사육두수를 할당, 의무적으로 협동농장은 소50마리, 양2백마리를, 작업반에서는 닭

1백~1백50마리, 농가에서는 돼지 1.5마리, 닭 5마리, 오리 20마리, 양 1마리, 염소 1마리, 토끼 30마리를 사육토록 했다.

또한 탈곡장에서는 닭 1백마리, 정미소는 닭 2백~3백마리를, 그리고 양정사업소에서는 1천~2천마리씩의 닭을 사육토록 했으며 지역의 사정에 따라 학교단위는 토끼 2천마리와 소년단위·社勞靑靑員들에게도 50마리씩의 토끼사육을 의무화시켜 축산생산증대를 꾀한 바 있지만 소기의 생산성과는 달성치 못했다.

그리고 '78년부터 실시됐던 제2차 7개년계획('78~'84)에서도 肉類 80만~90만톤 생산을 목표로 설정하고 이의 실현을 위해 국영축산과 공동축산을 기본으로 해 농촌주민들의 개인부업축산을 배합추진하며 국영닭·오리·돼지공장과 메추리생산을 정상화해서 알과 고기생산을 최대한으로 늘이는 한편 협동농장의 중·소규모의 오리공장 또는 돼지공장을 새로 만들고 닭·오리기르기 운동을 적극 전개하는가 하면 社勞靑단위에서는 연 1천만 마리의 토끼기르기를 추진했지만 대체로 실적은 부진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현행 제3차 7개년계획('87~'93)에서도 주민들의 생활수준향상을 도모, '93년도에 가서는 1인당 1일 쌀은 한되, 고기 1백그램, 물고기 4백그램, 식용유 30그램, 과일 3백그램씩 돌아가 北韓주민들이 『이밥에 고기국을 먹고 비단옷을 입고 살 것』이라고 호언하고 있다.

그러나 北韓은 이같은 주민생활의 식생활향상 구호만 발표하고 있을뿐 이에따른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실천계획이 뒤따르지 않고 있어 이역시 주민들의 불만을 무마하기위한 정치선전에 불과한 것

임을 드러내주고 있다.

특히 北韓이 인민생활을 획기적으로 높이기위해 추진하고 있는 축산정책이라는 것이 이른바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혁명정신」을 내세워 자체소비단위에서의 개인사육두수확대, 가축의 위생관리·영양관리철저, 자체사료확보등등 개인 또는 소비단위별로 자체해결토록 중용하는데 그치고 있다.

따라서 北韓이 추진하고 있는 축산정책이란 개인부업성격이 짙고 또한 개인사육 가축들이라고 해서 주민들이 마음대로 소비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강제수납됨으로써 주민들에게는 가축사육이란 과의노동에 불과하므로 가축사육의욕저하는 물론 이에따른 불평불만이 가득한 실정이다.

최근들어 北韓이 주력하고 있는 축산부문의 생산강화책 역시 주민들의 勞役배가에만 의존하고 있어 별다른 성과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내외통신 660 호, '89.10. 6)

咸南「광포오리工場」에 「技能工學校」 설치운영

報 道 要 旨

- 『광포 오리工場』技能工學校에서는 지금까지 2회 卒業式이 있었으며 이곳에서 80여명의 技能工들이 새로 자라났음.
- 이곳 技能工學校에서는 1년동안 家禽 기르기 技術, 수의, 방역, 家禽 解剖生理, 家禽機械등 오리 飼育管理를 전문으로 배워주고 있으며 올해에도 40여명의 학생들을 새로 받아 오리 飼育管理에 필요한 전문지식을 배워주고 있음.

(中放. '89.10.23)

評 價

- 광포 오리공장은 함경남도 정평군 정평읍에 위치한 광포호수를 이용한 오리 방사장으로서 朝總聯과의 合作으로 年間 10여만마리분량의 오리고기와 오리알, 오리털을 생산·공급하고 있음.
- 이번에 發表된 『광포 오리공장 技能工學校』는 오리를 비롯한 닭, 거위등 家禽類의 飼育, 방역, 家禽機械管理등 생산증대를 위한 飼育管理 분야의 專門機能工을 양성하기 위한 것으로 전문학교 수준의 교육시설로 평가됨.

東醫부문 과학토론회 개최

北韓은 지난 10월 8일~9일 양일간 平壤에서 金日成이 「東醫學발전지침」을 발표한지 10주년이 된다하여 이날을 기념하는 전국東醫부문 과학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토론회에서는 주민들의 의료난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東醫부문의 활성화문제를 다룬 종합토론, 질병치료에 관한 연구논문발표순으로 진행됐다.

이 자리에는 北韓각지의 東醫부문연구원들, 의학과학 및 교육기관·치료예방기관 종사자들, 그리고 체류중인 소련의학과학토론회대표단·의학전문가 전학단이 참석했다.

첫 출연자인 보건副부장 김영익은 『주체적 민족의학발전에 휘황된 앞길을 밝혀준 강령적 지침』이란 제목의 강연을 통해 金日成의 「東醫學을 발전시킬데 대하여」가 『우리나라 전통의학발전에서 새로운 장을 열어놓은 역사적 사변이었다』고 추켜세우면서 이 지침서에는 東藥의 특성, 우월성을 토대로 한 현대의학과의 배합을 통해 주민들의 질병치료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향과 방도들이 담겨있다고 주장했다.

금은 이같은 金日成의 東醫부문지침을 토대로 지난 10년동안 北韓은 東醫부문육성에 주력해 옴으로써 현재 北韓의 東醫의료망 체계는 중앙으로부터 도·시·군·리에 이르기까지 구축돼 있으며 주민들의 질병예방 및 의료서비스에서 그 역할을 다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토론회에서는 이어 질병치료와 관련한 연구논문들이 다수 발표됐는데 「신혈부위와 내장과의 척수분열성연계특징에 대한 연구」
 • 「백출삼미탕에 의한 만성저무산성염의 치료에 대한 임상적 연구」
 • 「경신불로차에 의한 단순성 비만증치료연구」
 • 「향모의혈단무기 부인식물신경질조성에 미치는 영양연구」
 • 「신경지배구역과 별호대승전전류량에 대한 연구」
 • 「침치료법에 의한 저긴장성담량운동실조증치료에 대한 임상초음파적 연구」등등이 소개됐다.

北韓은 이들 연구논문들이 새로운 질병치료방법과 치료기구들의 개발을 내용으로 하고 있을뿐 아니라 東醫學을 법제 및 제재방법을 개선하는데서 이론·실천적 의의를 지니고 있다고 평가하면서 이의 일반화를 통해 주민질병치료에 널리 활용할 것임을 밝혔다.

北韓은 다른 모든 부문에서와 같이 보건의료분야에서도 주체사상의 이념과 이론에 바탕을 둔 이른바 「주체의학」이란 관점에서 의료정책을 수행하고 있다.

「주체의학」이란 전통한의학을 과학화해 현대의학과 동등한 비중을 두고 발전시키면서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北韓은 전통의학과 현대의학을 조화시키기 위해선 ●兩의학의료사업의 유기적 결합 ●의료활동에서의 동지적 협조 ●의학문제연구에서의 협조를 지침삼아 東醫學의 확산을 도모하고 있다.

이처럼 北韓이 東醫學부문의 집중적인 연구와 실용화에 주된 역점을 두고 있는 배경은 현대의약품의 절대수요량부족과 의학수준의 낙후성을 보완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다시말해 北韓은 그들의 기술수준으로는 현대의학개발이나 발전이 어렵다는 사실을 감안, 현대의학과 東醫學을 병행발전시킨다는 보건정책아래 漢方을 토대로 치료연구와 제약에 역점을 둬으로써 의

료난을 다소나마 완화해 보려는 것이다.

따라서 北韓은 東醫學육성을 위해 갖가지 대책을 마련해 왔는데 이 부문의 연구활성화를 위해 지난 '58년 의과학원산하에 「동의학연구소」를 설치, 중추적 연구기관으로 활용해 왔으며 '70년대 들어서는 각 도·시·군단위에 이르기까지 동의학관리국을 설치, 전국적인 행정지도망을 통한 동의학의 실용화에 주력하고 있다.

지난해는 조총련의 상공인들로부터 자금을 거두어 동의학연구소를 동의과학원으로 확대·개편하기도 했다. 이 동의과학원은 임상실험실·외과연구실·부인과연구실·민간요법연구실·약연구실·동의학연구실을 갖추고 동의학의 과학화와 이론체계화에 주력함으로써 동의학의 주민질병치료실용화와 함께 동의학의 질적인 향상을 도모해오고 있다.

특히 이 동의과학원은 東藥의 성분과 약리작용을 과학적으로 분류, 치료효과제고에 박차를 가해오고 있으며 지난 '64년부터는 민간요법연구실을 중심으로 전래민간요법의 수집과 정리사업을 대대적으로 전개, 총 4만 5천여건의 민간요법을 체계화했으며 이를 「민간요법」·「동의학의 민간요법연구자료」책자로 각각 발간해 활용해오고 있다.

또한 이 기관은 東藥개발에서도 현재 페니실린대용약·광명(소아폐렴특효약)·대용혈액·골 관절결핵치료약·뇌혈청제조(뇌염치료약)·모혈주사(홍역예방)·계혈주사(피부병) 등 약 5백여종의 東藥을 개발·실용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北韓의 東醫의료체계는 중앙과 도·시단위에 東醫병원 설치, 시·군단위에 있는 인민병원·산업병원內 東醫課 설치, 그리고 卍인민병원·진료소단위에도 東醫課를 설치토록 해 주민질병치료에 대한 주된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또한 군·리단위에 이르기까지 東藥局·東藥方을 설치토록 해 주민들의 東藥활용을 높이고 있다. 그리고 北韓은 東藥의 실용화에 따른 약초생산·東藥品개발에 주력해오고 있는데 특히 약초생산은 전국적인 범위에서 재배운동이 전개되고 있다.

北韓은 약초재배운동을 ●각급 의료기관을 비롯, 일반행정기관과 각급 단체와 학교, 그리고 공장·기업소·협동농장 등을 망라하여 이들을 약초재배기관으로 선정하고 ●산지개간·유휴지개간·도로변 공장기업소內 공한지·주택주변 등지를 재배지역으로 설정하는 등 참가대상별로 일정기준 이상의 약초발조성책임량을 할당하여 의무적으로 재배토록 하고있다.

그러나 이와같은 北韓의 東醫學부문에 대한 적극적인 육성과 권장에도 불구하고, 그 수준은 임시적이고 손쉬운 치료정도에 머물고 있어 東醫學자체의 질적인 향상과는 거리가 먼 실정이다.

현재 北韓선전기관들은 각종 질병치료에 대한 동의학 이용률이 50%이상으로 주민치료에 광범위하게 활용되고 있음을 선전하고 있지만 그 치료라는 것이 대부분 전래민간요법의 개발·활용수준에서 못벗어나고 있다.

일례로 최근 北韓중앙방송은 강원도 통천군에 있는 侍中湖가 감탕(물에 풀어져 아주 끈죽같이 된 흙)치료의 요양지로 각광을 받

고 있으며, 病을 고치는데 알맞은 약성분들인 유화물·칼슘·마그네슘 등이 섞여있는 이 감탕으로 만성간염, 만성담낭담도염 등의 질병을 치료하고 있다고 전함으로써 北韓의학수준의 낙후성을 엿보게 하고 있다.

결국 北韓에서의 東醫學은 그들 주장대로 현대의학과 병행하는 전문적이고 체계화된 의료기술의 향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北韓주민들에 대한 최소한의 의료혜택은 고사하고 그 수요도 충족치 못하는 의료난에서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질병치료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대중치료법보급에 지나지 않는다.

(내외통신 663 호. '89.10.21)

對南動向

- 최근 대남선동공세 양상과 특징
- 「고려연방국」案 제의 9주년 기념동향
- 「민족통일협상회의」 제의 배경과 저의
 - 종교인교류전망과 北韓의 대화전략
- 한반도 非核化를 위한 「3者會談」 제의

對南動向

최근 對南煽動攻勢 양상과 특징

北韓이 평양축전이후 최근에 집중해온 對南선동공세의 양상은 임수경학생 처벌에 대한 비난과 친북한 해외단체들을 동원하여 임수경학생을 처벌한 當局이 부당한 처사가 세계의 여론인듯이 조작하여 한국의 청년학생과 반체제세력들을 고무선동하는데 초점이 모아지고 있다. 이와함께 미국이 한국을 핵기지화하고 핵전쟁도발을 기도하고 있다는 反美적개심 고취선동, 그리고 그들의 고려인방안에 상응하는 한국의 현실에 대한 모략과 그 선동에 집중하는 경향을 드러내고 있다. 또한 표면적으로는 남북대화를 앞세워 이상의 사항들이 대화에 장애요인이며 그 원인은 한국의 當局에 있는듯이 오도하여 그들의 대남선동을 대화의 전술적 일환으로 병행시키고 있다.

北韓은 지난 8월에 남북적십자회담 실무접촉과 고위당국자 예비회담, 그리고 체육회담과 국회회담을 위한 준비접촉을 9월중에 갖자고 한꺼번에 제의한 바 있다.

물론 우리의 수정제외에 따라 남북적십자회담 실무접촉이 지난 9월 22일에, 또 10월 12일에는 고위당국자회담 예비회담이 열렸으며, 10월 20일에는 체육회담, 그리고 10월 25일에는 국회회담을 위한 제 8차 준비접촉이 있을 예정으로 있다.

北韓의 일방적인 책동으로 인해 중단되었던 일련의 대화들을 北韓 스스로가 재개하자고 한 것과, 심지어는 날짜까지 정해서 우리 측지역에서 개최하자는 제의, 그리고 일련의 대화들을 9월중에 한

거번에 재개하자는 소나기식제의들은 대화의 효율적 진행이나 성과의 측면에서 볼 때, 이는 긍정적인 행위로 보기 어려우며 따라서 그것은 바로 北韓의 대남대화책략임을 드러내주는 것이다.

지난 9월 27일 남북적십자회담 실무접촉에서 北韓의 대표단장이 기조발언을 통해 드러낸 그들의 주장은 그와같은 사실을 대변해주고 있다.

北韓측은 제 11차 본회담전에 고향방문단의 방문지역을 서울과 평양으로 제한하고 예술공연단의 인원을 고향방문단 인원과 같은 숫자로 하며, 그리고 기자의 숫자를 최소화하자는 내용들이 그러한 증거들이다.

말하자면 고향방문단의 교환방문에 중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술공연단에 비중을 둬으로써, 본질적인 현지선동의 저의를 드러낸 것이다.

지난 9월 9일 北韓정권창립 41돌 기념 보고대회에서 한 부주석 이종옥의 보고에서 남북문제에 관한 언급은 그들의 대회저의가 어떠한 것이고 그 목적이 어디에 있는가를 잘 드러내주고 있다.

北韓의 부주석 이종옥은 보고를 통해 『나라의 분열을 끝장내고 평화통일을 이룩하는 것은 오늘 공화국정권과 인민들 앞에 나서고 있는 가장 절박한 민족적 과업』이라는 전제아래 이같은 통일과업의 여건이 『지금 남한의 청년학생·노동자·농민·지식인·종교인 등 각계각층의 광범한 인민들 속에는 美帝의 식민지 지배와 예속을 반대하고 사회의 민주화와 자주화를 실현하며 접촉과 대화를 통해 나라의 통일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려는 대중적 투쟁이 그 어느때보다도 격렬히 벌어지고 있다』는데 두고 있다.

그러면서 『문익환목사와 임수경학생 문규현신부를 비롯해서 부당하게 체포구금된 애국적 민주인사들과 청년학생들을 무조건 석방해야 한다. 창구일원화의 구실아래 인민들의 통일논의를 봉쇄하고 대화를 독점하며 남북사이의 다방면적이며 폭넓은 대화를 한사코 막으려 할 것이 아니라 대화의 문을 활짝 열어놓아야 하며, 반대화적이고 반통일적인 국가보안법을 철폐하고 북과 남의 인민들 사이의 접촉과 내왕의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北韓은 평화통일을 해서 분단을 종식시키는 것이 아닌 분열을 끝장내고 평화통일을 이룩해야 한다는 것이다.

北韓이 내세우는 평화통일은 방법이 아니라 결과인 것이며, 그렇기 때문에 분열을 끝장내는 것이 절박한 민족적 과업으로 나서고 있는만큼 그것은 바로 남한에서 벌어지고 있는 대중적 투쟁을 목표로 하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다.

北韓이 애국적 민주인사와 청년학생들의 석방이나 국가보안법의 철폐, 그리고 자유로운 접촉과 왕래의 보장을 주장하고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으며, 이는 곧 그들이 내세우고 있는 고려연방안의 내용의 일부임을 부정할 수가 없다.

다시말해 北韓은 비록 형식적으로는 기존의 대화재개에서 기선을 잡고 대화에 응하는척 하지만, 그들의 대화상대는 어디까지나 「애국적 민주인사와 청년학생을 중심으로 한 각계각층의 광범한 인민」들이며, 그 노리는 상황은 이들의 「통일을 위한 격렬한 대중적 투쟁」임을 드러내고 있다.

北韓이 문익환·임수경·문규현등에 대한 우리당국의 처벌에 관해

대남선전공세에 집중하고 있는 저의가 이러한데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와같은 사실들은 北韓이 9월중에 그들이 일방적으로 중단했던 일련의 대화들을 한꺼번에 재개하자고 소나기식으로 제시한 저의가 무엇이고, 대화에 대한 北韓의 입장이 어떠한 것이며 나아가 그들이 제시한 또는 앞으로 제시할 어떠한 주장도 이같은 범주를 벗어나지 못할 것임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지 않을 수가 없다.

그리하여 北韓은 남북대화라는 실제적 접촉을 통해 그같은 사항들을 주장함으로써 대화의 진행에 걸림돌을 만들고, 한편으로는 그와같은 주장이 한국측의 반체제세력들의 선동요인으로서 자연스럽게 작용케 하려는 것임을 말해주고 있다.

北韓이 9.9절기념 부주석 이종욱의 보고를 통해 『南韓當局者들은 청년학생들과 인민들의 투쟁에 대한 폭압만행을 그 무슨 좌우대결로 합리화하려 하고 있으나, 오늘 남한에서의 사회정치적 대립은 좌우대결이 아니라 민주세력과 파쇼세력, 통일세력과 분열세력 사이의 대결이며 나아가 애국세력과 매국세력 사이의 대결』이라는 주장에서도 드러나고 있다.

北韓의 주장대로라면 파쇼세력, 분열세력, 매국세력은 남한당국이며 그들을 포함해서 남한의 민주인사와 애국적 청년학생등 한국의 반체제세력이 민주세력 통일세력 애국세력이라는 논리이다.

따라서 그들이 형식상 대화에 응하고 있는 것이며, 실제로 노리는 상대는 이른바 민주애국 통일세력인 애국적 민주인사와 청년학생들임을 말하는 것이다.

이와같은 모순자체가 벌써 남북대화에 대한 北韓의 속셈이 어떠한 것이며 대화재개를 주장하며 이에 응하고 있는 저의가 무엇인가를 드러내주고 있다.

이와같은 속셈과 저의는 이른바 「민족통일협상회의」를 들고나온 배경과 내용의 공통성에서도 확인되고 있다.

北韓은 지난 9월 28일 「당국 정당단체연석회의」를 열고 「민족통일협상회의」를 제의하고 나섰지만, 이는 지금까지 그들이 주장해 온 바를 재종합한 범주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점이 그러한 사실을 대변하고 있다.

『當局이나 특정계층만이 아닌 각계각층이 北과 南을 오가면서 서로 오해와 불신을 풀고 거래의 통일의지를 직접 확인하며 통일문제 해결에 동참하려 하고 있는 것은 이제와서 막을 수 없는 흐름으로 되고있다……오늘 남한에서는 정치인들과, 심지어는 기업인들까지 北과의 내왕과 접촉을 요구하면서 통일의 문을 두드리고 있다……남한당국의 온갖 방해책동에도 불구하고 올해 남한의 이름있는 각계 인사들이 연이어 北韓을 방문하고 서로의 통일의지와 공동의 노력을 확인한 것은 사실상 북과 남의 인민들 사이에는 적대시하고 대결하는 조건이 아무것도 없으며 이른바 민족의 이질화란 한갓 환상에 불과하다는 것을 똑똑히 보여주고 있다.

북과 남의 혈육들이 서로 만나 민족의 활로를 함께 열어나가는 지향은 몇몇 인사들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북과 남의 각계각층을 망라한 온 민족적 요구로 확대발전하고 있다.』

바로 北韓이 9.9절 41주년기념 보고대회에서한 부주석 이종욱의 보

고내용을 되풀이하고 있고. 따라서 「민족통일협상회의」는 바로 이러한 대상을 목표로 하고 있는 대남선동공세용임을 말해주고 있다.

그리고 이 저의가 노리는 협상의 상황이나 주장의 내용면에서 9월중에 재개하자던 소나기식 제의와도 그 맥락을 같이하고 있다.

물론 北韓의 이와같은 대남대화책략은 우리의 「한민족공동체통일방안」에 대한 대응조치이기도 하다.

지난 9월 11일 제시된 우리의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은 이미 그간에 곧 통일방안이 제시될 것임이 예고되어 왔고, 그리고 그것이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으로 구체화된 것이다.

北韓이 9월중에 모든 대화를 재개하자고 했던 것이나, 9.9 절 보고대회에서 한 주장은 우리의 새로운 통일방안이 제시될 것에 대한 대비조치였을 것이며, 「민족통일협상회의」는 우리의 「한민족공동체통일방안」에 대한 대응조치이기도 하다. 하지만, 9월중의 집중적 대화재개제와 민족통일협상회의를 北韓이 제시한 시기, 그리고 제시하게 된 그들의 상황의 유사한 공통적 특징 역시 北韓의 저의와 목적을 말해주고 있다.

7월의 평양집회결과 北韓은 그들이 달성하려했던 목적의 실패를 대남대화공세를 통해 한국내 반체제세력들을 선동함으로써 수습해 보려했다면, 「민족통일협상회의」제의는 우리의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의 제시로, 대화공세를 취했던 그들에게 밀어닥친 어려운 처지를 벗어나려 한 공통적 특징도 그러한 점에서 예외가 아니다.

이처럼 北韓의 최근 대남선동공세는 대화의 형식을 취하면서 대화의 대상으로 한국의 반체제세력의 선동공세에 집중하는 양상을 띠고 있다. 그리고 이같은 대남책략은 그들의 당면한 현실적 상황과의 관계에서 비롯되고 있는 것을 대화의 형식을 통해 수습하려고 하고 있는 점이 특징이라고 하겠다.

(내외통신 661 호. '89.10.13)

「고려연방국」案 제의 9周年기념동향

지난 9월 28일 「민족통일협상회의」를 제의하면서 통일문제에 대해 비교적 신축적인 자세를 보여 관심을 끌었던 北韓이 며칠 후 다시금 「고려민주연방공화국창립방안」만이 통일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종전의 주장을 되풀이하고 나옴으로써 통일문제를 정치선전적 목적에 이용해온 그들의 반통일적 형태를 극명하게 드러냈다.

北韓은 「고려민주연방공화국창립방안」제의 9주에 즈음해 10월 9일 平壤의 중앙노동자회관에서 정준기(부총리겸 조평통부위원장), 김중린(당비서), 윤기복(중앙인민위경제정책위원장겸 조평통부위원장), 이계백(사회민주당위원장), 그리고 김봉주(직맹위원장) 등 당·정·사회단체의 고위간부들이 참석한 가운데 平壤市기념보고회를 개최하고 윤기복의 「기념보고」를 통해 그동안 고려연방제안에 대해 주장해온 갖가지 美辭麗句를 동원하여 이 방안의 정당성과 합리성을 강조했다.

이날 윤기복은 보고 서두에서 고려연방제안을 『김일성 동지께서만이 구상하시고 내놓으실수 있는 위대한구국방안』 또는 『조국과 민족에 대한 가장 뜨거운 사랑이 빛나게 구현된 민족적 단합과 통일의 웅대한 설계도』 등으로 묘사함으로써 이 방안이 金日成개인의 구상과 설계에 의해 이루어진 것임을 강조하면서 고려연

방제안이 통일문제를 민족의 지향과 시대의 요구에 맞게 해결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방안』이라고 강변했다.

이어 윤기복은 고려연방제안이 오늘날 날이 갈수록 커다란 생활력을 발휘하고 있으며 또한 南北韓민족과 세계각국으로부터 『적극적인 지지와 공감을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언급, 마치 이 방안이 한민족 모두로부터, 그리고 세계각국으로부터 인정받고 있는양 호도하면서 한국의 통일정책과 미국의 對韓정책을 비난했다.

특히 윤기복은 『우리나라의 통일은 7·4 공동성명에 천명된 자주·평화통일·민족대단결의 3대원칙에 기초하여 연방제방식으로 실현되어야 한다』고 주장, 南北연합을 기본골격으로 하고있는 한국의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을 간접 비난하는 가운데 北韓이 그동안 도식적으로 주장해온 통일 논리를 되풀이했다.

즉, 北韓은 그동안 고려연방공화국을 창립하여 민족통일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한반도에서 긴장상태를 완화하고 대결상태를 해소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 ●미국과의 평화협정체결 ●한국과의 불가침선언채택 ●한반도의 비핵평화지대설치가 이루어져야 하며, 이러한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미국과 南北韓이 참가하는 3자회담 ●다국적 군축회담 ●고위급정치군사회담 등을 개최해야 한다는 주장을 기회있을 때마다 반복해 왔었다.

그러나 北韓의 이러한 주장은 한국이 미국의 식민지상태에 있다는 제국주의논리와 한국정부가 통일의지를 지니고 있지 않은 반통일적 정부라는 전제하에서 ●주한미군철수 ●한국의 국가보안법 철폐 ○문익환목사와 임수경양 등의 급진인사들의 석방을 주장하는데서 엿볼수 있듯이 궁극적으로 한반도의 적화통일이라는 이

른바 「남조선혁명」을 수행하는데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전술적인 것에 지나지않는 것이다.

즉 北韓의 고려연방제안이나 통일노선은 北韓이 지니고 있는 반 통일적 요소들 예컨대 적화통일전략을 고수하고 있는 것이라든가 군사력 강화, 金日成-金正日父子에 의한 세습체제 등과 같은 기본적인 제약요소들을 도외시한채 마치 北韓 당국이나 金日成이 민족통일을 갈망하고 있는양 호도하고 한국의 사회현실을 그들의 시각에 억지로 맞추어 일방적으로 매도함으로써 그들에 대한 대중적 지지를 유도하려는 목적에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통일을 위한 본질적인 전조를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北韓은 그동안 고려연방제안을 제의한 날에 즈음한 각종 행사나 신문·방송의 논조를 통해 고려연방제안과 그들의 통일노선의 정당성 및 합리성을 선전하고 한국의 통일정책을 비난하는데 주력해 왔다. 따라서 北韓이 이번에 고려연방제안을 제의한지 9주째를 맞아 기념행사를 개최하고 이 방안과 그들의 통일노선에 대한 찬양 선전을 늘어놓은 것은 상투적인 행위로 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행사는 몇가지 이유로 해서 관심을 끌었다.

첫째는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그동안 통일문제와 관련해 경직된 입장을 고수해온 北韓이 「민족통일협상회의」를 제의하면서 다소 신축적인 태도를 보였다는 점과 관련된다. 北韓은 「민족통일협상회의」를 제의하면서 『고려연방제안이 우리 민족이 선택할 수 있는 최선의 통일방도로 된다고 확신한다』고 말하면서도 『서로 화해하고 존중하며 양보하는 입장에서 다른 통일방안들에 대

개별적인 편지공세를 펼치는등의 對南정치선전을 전개한 바 있다. 따라서 한국정부에 의해 한민족공동체통일방안이 발표된지 17일 만에 제기된 이번 민족통일협상회의도 결국 종래의 정치협상회의의 연장차원으로 볼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北韓측이 이번 제의에서 자신들의 고려연방제만을 고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시사하며 『고려연방제가 최선이라고 생각하나 서로 화해하고 양보하는 입장에서 다른 통일방안들에 대해서도 진지하게 협의할 것이며 통일에 도움이 되는 것이라면 폭넓게 수용할 것』이라고 밝힌 대목은 일견 이례적인 입장 변화인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北韓의 이같은 입장표명은 금년 金日成신년사에서도 언급된바 있고 지난 4월 文益煥목사 入北면담시에도 金日成이 언급한바 있어 새삼스러운 것은 아니다.

또한 한민족공동체통일방안에서도 설정되어 있는 南北정상회담을 北韓은 이번제의에서 『민족통일협상회의의 테두리안에서 北과 南의 최고당국자들이 아무때나 만나 통일과 北南관계의 제반문제들을 협의할 수 있다』고 말해 마치 南北정상회담을 수용한 듯한 인상을 주고 있다. 그러나 이 대목도 金日成이 금년 신년사에서 4黨총재등을 南北정치협상회의에 초청하겠다고 제의한 것과 내용상 같은 맥락으로서 그들이 주장하는 정치협상과 연석회의의 테두리안에 수용시켜 놓음으로써 南北정상회담의 의미와 비중을 희석시키고자 하는 의도를 드러내주고 있는 것이다.

결국 北韓의 이번 민족통일협상회의 제의는 기본적으로 당국간의 채널대화를 추진하고 있는 한국측에 대해 복잡한 통일논의와 내부분열분위기를 조성하면서 그들의 기본전략에 입각한 고려연방

54 統一教育

제등을 끝내 실현해보겠다는 집요한 對南통일전략을 재확인시켜 준 동시에 통일협상 그 자체보다는 대내외적 선전효과에 더 큰 관심을 기울이고 있음을 나타내 주었다고 볼수 있다.

(내외통신 660호 , '89.10.6)

「민족통일협상회의」 제의배경과 제의

북한이 지난 9월 28일 南北韓이 다같이 인정할 수 있는 하나의 통일방안을 정립하기 위해 南北韓의 정부·정당·사회단체들이 참석하는 「민족통일협상회의」를 개최하자고 제의했다.

이 제의는 9월 28일 평양 2.8문화회관에서 개최된 북한「당국·정당·단체연석회의」에서 외교부장겸 조평통부위원장 金永南의 연설을 통해 제의되었으며 여기에서는 남한당국과 정당·단체들에게 보내는 「편지」도 채택되었다.

이날 연석회의의 주요참석자들로는 부주석 李鍾玉, 黨비서 金仲麟, 조선사회민주당위원장 李季百, 「職盟」위원장 김봉주, 社勞靑위원장 崔龍海, 農勤盟위원장 朴守東, 祖國戰線의장 염태준·정두환, 「文藝總」위원장 白仁俊, 불교도연맹위원장 박태호, 천주교 인연합회위원장 정재철 등이었다.

北韓의 金永南은 연설에서 『우리나라의 전반적 정세는 온겨레의 통일의지와 거대한 힘을 목적 지향성있게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공동의 조국통일방도를 마련할 것을 절박한 과업으로 제기하고 있다』고 말하고 『이러한 견지에서 가까운 시일안에 평양이나 서울에서 北과 南의 當局과 정당단체대표들이 참가하는 민족통일협상회의를 소집할 것을 남조선당국과 각정당·단체들에 제의한다』고 밝혔다.

北韓은 민족통일협상회의의 진행형식과 대표구성과 관련해 『北과 南의 구별없이 모든 대표들이 동등한 자격으로 참가하는 다무적 원탁회의의 방식으로 하는것』을 제기하면서 『통일대화에 적극 참여하려는 각정당·단체들의 요구를 고려하여 北과 南의 지도급 인사들을 비롯하여 모두 60명정도의 대표들이 참가하는 것이 좋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와함께 민족통일협상회의에서는 『北과 南의 當局과 정당단체들이 내놓은 조국통일방안들을 광범히 협의하고 조국통일방도에 관한 민족의 공동선언을 발표할데 대한 문제를 토의이며 이밖에 다른 건설적인 제안들도 토의할 수 있다』는 議題의 범위를 제시하고 『민족통일협상회의를 성공적으로 소집하기 위해 일정한 기간 北과 南의 당국과 정당단체들 사이에 쌍무적 또는 다무적인 예비접촉을 가지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北韓은 민족통일협상회의를 제의하는 이유와 관련하여 『고려연방제안이 우리 민족이 선택할 수 있는 최선의 통일방도로 된다고 확신하지만 서로 화해하고 존중하며 양보하는 입장에서 다른 통일방안들에 대해서도 허심하게 대하고 진지하게 협의할 것이며 통일에 도움이 되는 것이라면 누구의 것이라도 폭넓게 수용할것』이라고 주장함으로써 그동안 고려연방제안이 민족통일을 위한 유일한 방안이라고 고집해온 종전의 태도와 커다란 차이를 보였다.

北韓은 또 이날 「당국·정당·단체연석회의」에서 채택된 「남조선 당국과 정당·단체들에게 보내는 편지」를 통해 민족통일협상회의를 평양과 서울에서 번갈아가며 개최하되 그 첫번째회의는 오는 90년 2월 20일 평양에서 진행하자고 제의하면서 『이 협상회의의 테두리 안에서 北과 南의 最高當局者들이 아무때나 만나

나라의 통일과 北南관계와 관련되는 제반문제들을 협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北韓의 이같은 對南제내용을 크게 요약하면 ●하나의 통일방안을 정립하기 위해 南北韓의 정당·사회단체들이 참석하는 민족통일정상회의를 소집하자는 것과 ●北韓이 그동안 일관되게 주장해왔던 고려연방제만을 고집하지 않고 다른 통일방안에 대해서도 허심탄회하게 협의해볼 수 있다고 주장한 대목이다. 이처럼 종래에 볼수 없었던 신축성있는 통일대화제의를 하고 나선 배경에는 北韓나름의 여러가지 포석과 계산이 깔린 것으로 볼수 있다.

첫째는 9월 11일 발표된 한국정부의 한민족공동체통일방안이 통일문제에 대한 논리성이나 현실적 측면에서 국제적 지지와 공감을 크게 얻게 됨에 따라 이에대한 대응책이 필요했던 것이고 그러한 측면에서 일단 모든 통일방안을 광범위하게 협의할 수 있는 포괄적인 입장을 취하고 나선 것으로 해석된다.

더욱이 최근 中·蘇의 내면적인 한반도긴장완화시각에도 부응하면서 유엔총회가 개최되고 있는 시점임을 감안, 국제적인 파급효과 등도 고려할 것으로 보인다.

두번째로 北韓은 이번 민족통일협상회의라는 명목으로 그들이 종래에 주장해온 南北사회단체연석회의·南北정치협상회의의 실현을 추진함과 동시에 여기에서 南北정상회담문제도 거론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한국측의 최고당국자회담제의 입장을 희석시키는 효과를 겨냥하고 있다는 점이다.

北韓은 지난 '82년 1월 한국측이 민족화합민주통일방안을 새로 내놓았을 때도 이에 대응해 南北韓 1백인정치협상회의를 제의하고

5일 양형섭 최고인민회의 의장일행이 訪蘇, 쌍방 관계강화를 모색하는 한편 타시켄트, 우즈베크등 韓人 밀집지역을 방문하여 교민의 친북세력화에 노력하기도 하였다.

군사부문에서도 고위군사대표단의 교류를 통해 군사적 협력분위기의 유지에 주력하면서 정리화된 합동해군군사훈련도 예정대로 진행하여 팀스피리트훈련에 대처하려는 공동의 노력을 시험하였다.

쌍방 관계에서 가장 팔목할만한 동향은 경제부문에서의 협력강화추세이다. 이미 합의된 19개 신규건설대상에 대한 소련의 對北 경제·기술적 지원이 예정대로 진행된 가운데 새로운 협력형태(합동생산체제와 생산물분여체제)에 의한 경제협력이 더욱 확대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86년의 '87~'90년과 2000년까지의 경공업분야협조협정, '87년의 정부간 합영회사창설에 관한 협정, 기업소간 과학기술연계 직접체결협정 등에 따라 경공업분야의 합동생산과 합영사업에서 팔목할만한 진척을 보이고 있는데 이러한 새로운 협력체제는 소련원동지역과 北韓의 인접지역간 경제적 연계확대추세에서 집중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최근의 北韓과 中·蘇관계는 예년의 긴밀화양상을 시험하고 있음은 분명하나 그 이면을 면밀히 주시하면 소련과는 잠재적 불화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는 반면 상대적으로 중국과의 관계가 더욱 강화될 조짐이 있음을 간과할 수 없다.

北韓·蘇聯간의 잠재적 불화요인은 소련의 한반도정책 변화조짐에서 찾을 수 있다. 최근들어 그러한 조짐이 더욱 두드러지게 나

타나고 있는 것이 주목되는 바, 지난 9월 1일자 소련정부기관지 이즈베스차에의 기고에서 동양학연구소 연구원인 샤브시나여사는 소련이 고수해 온 北韓일변도적 대한반도정책을 강력히 비판하면서 한국과의 외교관계 정상화를 공개적으로 촉구하고 나섰으며, 10월 20일 유엔주재 소련대표부가 유엔의 공식문서로 배포한 한 외교각서에서 보편성원칙에 의한 모든 국제사회성원의 국제기구 참여를 역설함으로써 한국의 유엔가입노력에 대한 태도변화를 시사한데 이어 10월 28일 유엔주재소련대표부의 공식대변인 알렉산드르 데니소프공보실장이 한국일보와의 특별인터뷰에서 소련은 유엔총회가 한국을 회원국으로 인정하는 분위기를 결코 해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혀 상당한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또한 지난 10월 10일 모스크바방송이 소비에츠키야 러시아紙의 논평기사를 인용, 한민족공동체통일방안을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는가 하면 소련의 외교정책 브레인들인 알바토프, 카피차, 마르티노프 등이 비록 비공식적이기는 하나 잇달아 한국을 방문, 한국과 소련간의 외교관계 개선가능성을 시사하는 발언을 함으로써 소련의 脫이데올로기적 한반도정책이 더욱 구체화되고 있음을 시현하였다.

그런데 韓·蘇 수교촉구와 한국의 유엔가입불반대시사 및 한국의 통일방안에 대한 긍정적 평가 등과 같은 일련의 사태가 소련당국의 공식견해는 아니라 하더라도 중국이 한국의 통일정책을 비난('89.10.30 베이징 리뷰)하고 나선 것과는 대조적 현상으로서 北韓의 입장에서는 매우 불쾌한 일임에는 틀림없다. 北韓의 불쾌

60 統一教育

같은 소련을 직접 지칭하지는 않았으나 한국의 유엔가입과 교차 승인을 격렬히 비난하는 논평을 잇달아 발표하고 있는데서 간접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따라서 현상적으로는 北韓과 中·蘇 관계가 균형상태에서 긴밀한 유대를 지속하고 있으나 내면적으로는 소련의 대한반도 정책변화에 따라 소련과는 잠재적 불화관계로 빠져들 가능성이 있는 반면, 중국과는 사회주의체제고수라는 동병상련적 입장에서 더욱 더 긴밀한 상태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는 것이 최근의 관계동향이라 하겠다.

(내외통신 666 호, '89.11.17)

종교인교류전망과 北韓의 대화전략

최근 한국종교계의 對北韓 교류시도가 고조되고 있다.

이러한 시도는 천주교와 기독교, 불교등 전종교에 걸쳐 확산되고 있는데 특히 천주교의 「세계성체대회」와 불교의 「한강연등대법회」등 10월의 종교행사를 계기로 하여 각교계별로 北韓 종교계(사실은 「종교계」라고할 건덕지도 없지만)와의 접촉과 초청시도등 활발한 움직임을 보여왔다.

먼저 천주교의 활동을 보면, 10.4 ~ 8간 서울에서 열리는 제 44차 「세계성체대회」에 北韓 천주교신자 20명을 정부당국의 승인(9.25)을 받아 공식 초청한바 있으나 일반의 예상과는 달리 北韓은 이 대회에 참가하지 않았다. 또 실현되지는 않았지만 세계성체대회의는 별도로 방북미사를 추진하겠다고 발표(9.7)한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의 방북시도와 지난 9월초 광주군 도착면 도착성당 신부 및 신자 33명의 북한방문의사표명이 있었던 것이외에도 카톨릭농민회등도 남북한의 농민 및 농산물교류 협의를 추진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런데 北韓은 세계성체대회 참가를 위해 로마 교황청을 통해 수차 요청했으며, 지난해 평양을 방문, 미사를 집전한 張益 신부에게도 협조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 금년 2월에는 교황의 방북을 서면으로 요청하면서 北韓 대표의 교황청 파견도 허락해

줄것을 아울러 요구했다고 한다.

그리고 불교계에서는, 지난 9.26 「한국불교종단협의회」와 「남북한불교도교류추진협의회」가 공동으로 10.14 「한강연등대법회」(일명 한강유등제)에 北韓신도 30명을 초청할 수 있도록 정부 당국에 공식 요청한 바 있다.

그러나 이번 한강유등제 참가초청에 대한 北韓측의 회답은 지난 10.7 「北韓불교도연맹중앙위원회」 대변인 담화에서 볼수 있듯이, 초청 본래취지와는 다른 통일문제 협의등을 위한 사전 판문점 회담을 들고 나왔으며 우리측이 이에 응했음에도(10.13) 날짜가 촉박하다는 이유로 회담장에 나오지 않았다.

「한강연등제」의 北韓신자 초청문제도 「세계성체대회」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해외교포를 통해 추진되었는데 로스엔젤리스의 대원사주지 奇大圓스님을 통해 北韓과의 비공식적 3각접촉으로 이루어져 왔다.

지난해 11월 당초 참석키로 했던 LA개최 「세계불교도우의회」(WFB)에 北韓이 불참함으로써 불교계의 남북접촉기회가 무산되어 버렸다. 이때 한국측은 남북한 불교도 공동선언문 초안을 준비했고 동회의에 참석했던 몽고대표(도르즈코토프)를 통해 北韓불교도연맹중앙위원장(박태호)에게 金銅半跏思惟像을 전달하였다.

그 답례로 北韓의 기독교연맹중앙위원회 朴泰浩위원장이 지난 6월말 방북한 로스엔젤리스 修導寺의 중법타스님을 통해 南北교류에 대한 北측의 적극적 의사를 전달하면서 백자여래상을 보내왔으며 이것은 한강 유등제에서 南北이 함께 점안식을 갖도록 할 예정이었다.

한편 기독교계에서는,

지난 9.29 ~ 30 양일간 南北기독교지도자회담이 있었는데 「일본교회협의회」(JNCC) 주최의 「동아시아의 평화에 관한 교회의 사명」 회의에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KNCC)대표 10명과 北韓기독교연맹대표 4명이 초청을 받았다. 한국대표가운데는 KNCC 비가맹교단인 예장개혁 총회 대표도 읍저버로 참가했는데 南北韓 전체 기독교도인의 모임이 되어야 한다는 명분이었다.

그리고 개최 날짜조차 미정된채로 무산되다시피한 평양서의 이른바 「해외 한민족 복음화대회」는 10월중 개최키로 한다는 방침만 세운채, 北韓측은 지난 9.23 ~ 4일 판문점에서 실무회담을 갖자고 제의한 바 있으나 이 대회역시 재미교포로서 89.4 방북했던 김영철목사가 北韓당국과 협의추진했던 것으로 국내 개신교측의 반대로 대회가 무기연기 내지 완전 무산되고 있는 실정이다.

개신교측은 南北관계의 분위기로 보아 아직 이대회가 시기상조이며 한국측 초청대상자 2백명과 미주한인 1천명, 北韓주민 1천명등 2천명 이상의 많은 인원을 수용할 北韓의 교회시설이 불비하며 그렇다고 인민문화궁전 같은 곳은 장소가 적합치 않다는 등의 합리적인 반대주장을 하고 있어, 이를 추진 및 지원키로 했던 南北당사자들의 입장을 곤혹스럽게 하고 있을 뿐만아니라, 北韓만의 단독개최도 어렵게 되었다.

이와같이 최근 천주교, 기독교, 불교등 국내 각교계의 대北접촉 및 교류노력이 증대되고 있는것은 6共출범이후 국민들의 통일논의가 자연스럽게 분출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이는 무엇보다도 7.7선언에서 밝힌 南北韓간의 자유왕래 및 문화개방 정책

64 統一教育

이 가시화되고 있는 것을 의미한다.

다시말해 7·7 선언은 극도로 경색된 南北관계를 타개하는데 있어 획기적인 전환점이 되기도 했으나 아울러 北韓이 이를 역용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주었다.

문익환목사 및 임수경양등 밀입북 초청공작뿐만 아니라 최근 南北韓 종교계의 일련의 초청 및 교류시도과정에서 北韓이 보여준 태도나 주장으로 볼때 그들의 저의가 무엇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지난 9.27일 중단된지 3년 10개월만에 열린 南北적십자사 실무대표회담과 또한 10.12 개최된 南北고위 당국자회담을 위한 제 3차 예비회담은 예측했던대로 北韓측이 문익환목사와 임수경양을 비롯한 방북인사들의 석방을 요구함으로써 그들은 본회담의 실질적 진전을 가로 막고 있다. 그리고 지난 8일에 끝난 세계성체대회에의 참가초청이 실현되었다면 순수한 민간차원에서 南北교류가 최초로 이루어진 셈이 되나 北韓은 끝내 참석치 않았다. 北韓의 불참은 내부적으로 어떤 동기나 사유가 있겠지만 이대회의 종교적, 국제사회적 중요성을 인식, 참석하려고 했던것만은 분명하다는 점에서 그들이 대외적으로 노렸던 의도가 무엇인지는 쉽게 간취될 수 있을 것이다.

즉 北韓의 세계성체대회참석은 그들의 천주교가 실제하고있는양 선전할 수 있는 호기가 되고 있으나, 北韓은 이에 상응하여 한국 천주교인들의 방북허용 및 비록 제한적이기는 하지만 이들의 종교적 활동도 열어주는 불이익을 감소해야만 하는 것이다.

또한 세계성체대회가 그야말로 순수 종교목적의 집회이자 범세

계적인 규모의 국제적 행사인데, 신부등 성직자도 한명없는 北韓이 이 대회에서 北韓이 할수 있는 역할은 아무것도 없으며, 더구나 대회의 성격상 그들의 상투적인 대남정치선전이 유해무익한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 판단했던것 같다.

한편 北韓은 한강연등제에의 그들 대표파견문제도 당초부터 실현시킬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그들이 스스로 제안했던 불교도대표들의 판문점 실무접촉마저도 막상 기피해 버렸는데서 반증되고 있다. 뿐만아니라 평양에서 이른바 「해외한민족복음화대회」를 개최, 南北기독교계의 대화합을 추진하려 하고 있는것도 대회의 본래목적이나 취지와는 다르게 그들의 음흉한 속셈을 드러내고 있다. 즉 동대회는 北韓의 대남통일전선기관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와 기독교도연맹이 공동으로 주관하고 있으며 특히 北韓측에서 이 대회를 주선한 기관이 종교와는 무관한 「금강산국제무역개발회사」이며 동회사는 대외교역을 위장한 공작임무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상에서 볼때 北韓의 대남종교 교류시도는 한마디로 종교외적인것에 목적을 두고 있다할 것인바, 더구나 「위원회」라는 명칭의 종교단체는 있어도 성직자나 목회자도 없으며, 신도라고 해봐야 천주교 8백명, 기독교 5천명(이상 北韓측주장)등 극히 소수이며 이들의 자유로운 종교활동이 사실상 봉쇄되어있는 실정에서 한국과의 종교교류를 실질적으로 추진한다는 것은 그들 폐쇄사회 및 독재체제유지에 결코 바람직한 결과를 가져오지 않을 것이다.

北韓은 동서냉전체제의 붕괴와 동구의 개혁추진등 변화된 주변 환경에 편승, 그들의 경색된 이미지쇄신과 南北대화의 적극적노력을

부각시키기 위하여 이제 종교교류문제를 전면에 부상시키고 있다. 이를 위한 그들 내부적인 준비로서 80년대초 이후 성경 및 찬송가발간추진을 비롯하여 묘향산의 보현사 보수개축, 그리고 지난해에는 평양장충성당 신축 및 「조선종교인협의회」등을 서둘러 설립했으며, 대외적으로는 극히 선별적이긴 하지만 국제적인 종교회의에 참석하는 빈도도 많아지고 있다.

오늘날 국제사회에서 종교의 활동영역과 그 비중이 커지고 있고 또 한국의 종교세력신장 및 이들의 통일목소리가 고조되고 있으나, 北韓이 이에 편승, 종교를 대남혁명에 이용하려는 이른바 통일전선 전술을 획책하고 있는한, 南北종교인들의 실질적 대화는 기대해 보기 어려울 것이다.

요컨대 北韓이 반평화적 혁명노선에 입각한 정치군사우선주의와 종교의 혁명종속주의에 집착하지 않는다면 南北종교인들의 대화와 교류전망은 밝다고 할 것이며 따라서 종교의 평화기여는 통일축진의 좋은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내외통신 663호, '89.10.27)

한반도 非核化를 위한 「3者會談」 제의

한반도문제에 대한 미국과의 직접협상을 목적으로 南北韓 및 미국과의 「3자회담」 개최를 대화전략의 핵심적 사안으로 주장해온 北韓이 최근 또다시 한반도비핵지대화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3자회담」을 개최하자고 제의하고 나왔다.

北韓은 지난 11월 9일 「외교부성명」을 통해 한반도 주변정세를 『미국이 남조선에서 핵무력을 더욱 증강하면서 핵전쟁준비를 다그치고 있으며 이로인해 남조선은 아시아와 세계평화를 위협하는 핵전쟁발원지로 전변되었다』고 왜곡·과장하는 가운데 그 책임을 한국과 미국측에 전가하며 이와같은 긴장상태를 해소하기 위해 한반도에 비핵지대를 창설해야 한다는 종전의 주장을 되풀이하고 이를 위해 南北韓과 미국이 참가하는 「3자회담」을 금년내에 제네바나 「서로 합의하는 장소」에서 개최하자고 제의했다.

그리고 이 성명은, 「3자회담」에서는 한반도에 배치되어 있는 핵무기철수문제를 토의해야하며 이 문제가 합의되면 南北韓이 회담을 열어 한반도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을 채택하는 한편 핵보유국들이 이를 보장하도록 요구하는 문제를 토의 해결해야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北韓은 이 성명에서 한반도비핵지대화를 위한 「3자회담」의 후속과정인 南北韓간의 회담은 「공동선언」과 핵보유국들의 한반

도 비핵화를 보장토록 요구하기 위한 「담보문건」의 초안작성을 위한 「전문가급회담」과 이의 정식채택을 위한 「당국대표회담」으로 나누어 진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하며, 南北韓간의 회담에서 채택할 「공동선언」에는 ●한반도와 한반도의 12마일 영해 및 영공의 비핵지대선포 ●南北韓의 핵무기시험과 생산·저장·반입 금지 ●한반도내에 외국핵무기의 배치 및 외국합선과 핵무기 적재 비행기의 출입·통과 금지 ●南北韓의 의무 이행에 대한 상호통보 및 검정방법 등과 관련한 문제들이 포함되어야 할 것이라고 제의했다.

한편 北韓은 한반도비핵지대화를 위한 「3자회담」을 제의한 「외교부성명」을 발표하면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이번 제의가 지난 11월 1일 북경에서 있던 미국·北韓간의 외교접촉을 통해 미국측에 이미 제의했던 것을 공개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北韓이 이번에 제의한 한반도비핵지대화를 위한 「3자회담」은 내용상으로나 형식상으로 별다른 특이점을 지니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최근의 대화공세를 증폭시키기 위한 전술적인 것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즉 北韓의 이번 제의는 80년대 이후 대남전략의 중심적 사안으로 다루어온 한반도非核化문제와 「3자회담」개최 주장을 교묘하게 접목시킴으로써 대내외의 관심을 촉발시키려는 의도를 내포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北韓은 그동안 한반도非核地帶化를 거론하면서 이를 공식 정책으로 채택하거나 「정부성명」 또는 「결의문」 등을 통해 한국과 미국측에 이어 호응할 것을 촉구하는 형식을 취해왔을뿐 이를 위한 공식적인 대화제의를 하지 않았었다. 그리고 「3자회담」과

관련해서도 北韓은 미국과의 직접협상을 주목적으로 하여 정치적 또는 군사적인 포괄적 성격의 제의를 했을뿐 한반도非核地帶化 문제를 의제로서 구체적으로 언급한 바 없다. 이렇게 볼때 北韓이 이번에 한반도非核化를 위한 「3자회담」을 제의한 것은 표면상 새로운 것처럼 보이기에는 하나 본질적으로는 전혀 새로운것이 없는 것으로서 종전에 두가지 갈래로 주장해오던 것을 하나로 묶어놓는 것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그러면 北韓이 이와같은 제의를 한 의도는 무엇인가. 이에 대해서는 대략 다음과같은 관측이 가능할 것이다. 첫째는 최근 새로이 전개되고 있는 南北대화국면에서 주도적인 입장을 취하는 동시에 새로운 문제를 부각시킴으로써 각종 南北대화에서 보이고 있는 그들의 反대화적인 태도를 희석시키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北韓은 연초 팀스피리트훈련 등을 구실로 기존의 대화채널을 일방적으로 공전시켜오다 平壤축전이 끝난 직후부터 다시금 대화공세를 취하고 있다. 그러나 北韓은 각종 南北대화에서 대화외적인 문제를 집중적으로 거론하는등 대화의 본질적인 문제에 접근하려는 노력보다는 南北대화를 정치선전장으로 이용하는 구태의연한 모습을 보여왔다. 이같은 사실로 미루어 볼 때 北韓은 이번에 한반도非核化를 위한 「3자회담」이라는 새로운 이슈를 제시함으로써 대화에 임하는 그들의 표리부동한 태도를 희석시키고 나아가서 南北대화에서의 주도적 입장을 과시하려는 속셈을 내포하고 있는 것으로 관측된다.

둘째는 최근 세계적인 데탕트기류에 편승해 한반도非核化라는 새로운 문제를 가지고 미국과의 직접협상의 발판을 구축해 보려는

것으로 보인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北韓은 80년대들어 한반도문제에 대한 세계적 관심을 촉발시키려는 목적에서 한반도非核化를 대남공세의 중요한 쟁점으로 부각시켜왔으며, 주한미군철수 및 휴전협정의 평화협정으로의 전환등 대남전략의 주요목표를 관철시키기 위한 협상방법으로 「3자회담」 개최를 기회있을 때마다 주장해왔다. 결국 이 두가지 주장은 공히 궁극적으로 미국을 상대로 한 것이었으나 한국과 미국은 한반도문제에 대한 당사자협상원칙을 내세워 北韓의 주장을 일축해왔다.

그러나 北韓은 최근 세계적인 新데탕트기류와 함께 미국외교관들이 北韓외교관을 접촉하는 등의 변화에 편승해 한반도非核化문제와 「3자회담」을 혼합한 새로운 형태의 대화제의를 통해 미국과의 실질적인 대화를 도모하려는 계산을 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점은 北韓이 밝힌 바처럼 이 회담을 미국외교관과의 비밀접촉을 통해 처음으로 제의한 사실에서도 類推된다 하겠다.

그리고 세째는 한반도非核化문제를 「3자회담」이라는 국제적인 성격의 회담으로 연결시켜 한국의 핵무기보유를 기정사실화하고 北韓의 反核입장을 과시하려는 대내외적 선전효과를 의식한 것으로 관측된다. 北韓은 그동안 한반도정세와 관련해 한국을 『극동 최대의 핵전초기지』·『세계평화를 위협하는 핵전쟁발원지』 등으로 왜곡선전하며 한반도의 모든 긴장책임을 한국과 미국측에 전가해 왔다. 결국 北韓의 한반도非核化의 논리도 北韓이 평화지향적이라는 전제하에 미국이 한국에 반입한 핵무기를 철수함으로써 한반도를 非核平和地帶로 만들수 있다는 주장인 것이다. 따라서 北韓은 그동안 한반도非核化와 관련한 선언적 주장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구체적인 협상방법까지 제시함으로써 그들의 평화지향적(?) 입장을 대내외에 과시하려는 속셈을 감추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최근 외신들에 의해 北韓이 핵 무기개발을 추진중에 있는 것으로 보도되고 있는 것이나, 核확산방지조약(NPT)에는 가입(85.12)하면서 北韓내의 모든 핵시설에 적용될 원자력안전협정을 국제 원자력기구(IAEA)와 체결하지 않는것등 현상적인 사실들로만 미루어보아도 北韓의 反核입장을 뒷받침할만한 근거는 없다.

이같은 점으로 미루어 볼때 北韓의 한반도非核化를 위한 「3자 회담」 제의는 종래의 여타 대화제의와 마찬가지로 실천적인 측면보다도 전략전술적인 복선을 깔고 이루어진 것이라는 것이 지배적인 관측이다.

(내외통신 666호, '89.11.17)

對外動向

- 金日成의 비밀訪中 배경과 속셈
- 金日成 中國非公式 방문관련 외신보도내용
 - 최근 對中·蘇 관계동향
 - 對東歐圈 외교전개방향과 전망
 - 경제협력 내세운 對阿 접근강화
 - 「國家 科學技術委」 대표단 中國방문

對外動向

金日成의 비밀訪中배경과 속셈

金日成의 돌연한 중국방문소식은 새삼 内外의 對北韓 관심을 크게 증폭시키면서 그 방문배경과 의미를 주목케 했다. 金日成의 이번 중국방문은 무엇보다도 방문형식과 시기면에서 한국은 물론 주변관계국들의 비상한 관심을 집중시키기에 족했다. 金의 訪中을 첫 보도한 일본언론들은 지난 11월 5일 北韓의 金日成이 특별열차편으로 비밀리에 북경역에 도착했다는 사실과 함께 곧이어 鄧小平·江澤民등 중국지도자들과 연쇄 회담을 가진 것으로 전했다.

그러나 정작 방문당사국인 중국과 북한은 金日成의 비밀방문사실여부에 대한 아무런 공식발표도 하지않았으며, 북한선전기관들도 11월 8일 현재까지 緘口하는 이례적 태도를 나타냈다. 그러나 8일 판문점에서 열린 남북적십자 제 4차실무회담을 취재하러 나온 북한측 기자들이 이날 金日成이 지난 5일부터 중국을 방문한 뒤 7일밤 평양에 귀환했다고 확인해줌으로써 金의 訪中은 기정사실화된 결과가 되었다.

어쨌든 이처럼 「국가원수」급의 방문행각이 잠행성으로 이루어진 케이스는 東西를 불문하고 극히 드문 일이다. 더욱이 그 시기면에서 최근 東歐사회주의국가들의 파격적인 체제개혁과 개방물결이 크게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서도 유일하게 폐쇄적 사회주의이데올로기에 집착하고 있던 金日成이 느닷없이 외교나들이를 벌인 것

이기에 주목대상이 된것은 당연한 것이라 하겠다. 게다가 최근 한 반도를 중심으로 한 美·日·中·蘇등 주변국가들의 南北韓시각과 외교기류에 새로운 변화를 예고케 하는 일련의 조짐들이 질게 드러나고 있는 시점이어서 金의 訪中에 대한 또다른 의미부여를 갖게 해주고 있다.

따라서 金日成의 이번 訪中속셈과 함께 北韓이 당면하고 있는 대내외적 속사정이 무엇인지에 대한 해부는 큰 의미를 띠게 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때 北韓내부적인 시각에서 金日成의 訪中은 상호간의 전통적 혈맹 관계를 바탕으로한 정례적 방문행각의 일환일 수도 있다고 보여진다.

80년대 들어서만도 北韓과 중국은 통상 매년 쌍방 지도자들의 초청·방문교류를 해왔다. 예컨대 82년 4월 胡輝邦·鄧小平의 北韓방문에 이은 같은해 9월 金日成의 중국방문을 비롯해 83년 6월 金正日 중국방문, 84년 5월 胡輝邦 北韓방문과 같은해 11월 金日成의 비밀중국방문이 있었다. 그리고 85년 5월 胡輝邦 北韓방문, 86년 10월 李先念 北韓방문, 87년 5월 金日成 중국방문, 89년 4월 趙紫陽 北韓방문 등이 기록되어 있다. 이같은 쌍방 지도자들의 방문교류기록에서 보여주듯 金의 이번 訪中 역시 적어도 외형적 측면에서는 정례성을 띠고 있는 것이며, 비밀방문형식에 있어서도 전례를 기록하고 있어 새삼스러운 케이스가 아님을 반영하고 있다.

또한 金日成의 지난기간 중국방문 결과는 전통적인 친선단결 관계를 바탕으로 한반도통일문제를 포함한 일련의 대내외적 공동관

심사들에 대한 공고한 연대성과 협력을 재확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金日成은 이번 訪中을 통해 정치·경제·외교적 당면현안들에 대한 의견조정과 함께 공동보조를 시위하는 계기로 삼으려는 복안을 갖고 있었을 것이다.

金日成의 일차적인 對中國관심은 무엇보다도 자신이 그동안 毛澤東·鄧小平으로 이어지는 혁명 1세대 간에 맺어놓은 깊은 우의와 신뢰를 江澤民 중국당총서기와 李鵬총리등 혁명 2세대 지도부에 연계시킴으로써 金正日 후계체제와의 협력기반을 마련하는 일로 볼 수 있다. 金은 北韓·中國간의 혁명 2세대 지도층간의 체제적 연대성과 이념적 결속을 사전에 다져놓음으로써 내년에 개최될지도 모르는 당 7차대회를 계기로 金正日의 大權계승작업을 순조롭게 이행해 보려는 복안을 가늠하는 것이 큰 방문목적이었을 것이다.

이와함께 한반도통일문제와 南北대화 등에 관한 주변국가들의 깊은 관심과 민감한 시각을 고려, 소위 고려연방제를 기저로한 北韓의 혁명적 對南통일노선 不變을 중국측에 인식시키면서 對北韓지지를 호소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중국이 대외적으로 표방하고 있는 「1국가 2제도」 원칙이 北韓의 고려연방제 주장과 일맥상통함으로써 소련이 최근들어 언론매체를 통해 여러차례 흘리고 있는 「한반도 2개국가인정」에 썩기를 막아두려는 입장을 밝혔을 것이다.

또한 천안문사태의 홍역을 치른 중국의 전례에 비추어 머지않은 시기에 닥칠지도 모르는 東歐로부터의 민주화 개혁개방열풍을 사전에 막아두자는 뜻에서 동병상련적 유대강화를 적극 다짐하는 계기로 삼았을 것도 충분히 예상되는 일이다.

더욱이 북한으로서는 최근 북경에서 진행된 美·北韓외교관간의 5차에 걸친 접촉과 시거 前美國무성차관보의 평양방문 등과 연관된 對美관계에서 모종의 변화가 있었을 경우, 저간의 천안문사태 이후 다소 꺾끄러워진 美·中國관계를 고려해 미리 어떤 메시지를 통보했을 가능성도 있다.

北韓이 지금까지 한반도통일의 「제 1의 公敵」으로 비난해왔던 미국과의 어떤 새로운 관계설정을 시도하고 있다면 事案의 진전을 위해서나 또는 事後관리를 위해서도 중국을 버팀돌로한 외교적 예우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일런지도 모른다. 이와함께 北韓·중국간의 경제 협력관계강화를 위한 논의도 진지하게 이루어졌을 것으로 예상된다.

北韓은 현행 3차 7개년계획의 3차년도 과업수행을 추진하고 있으나 지난 7월의 평양축전준비에 따른 막대한 외화손실과 헝가리·폴란드의 對韓수교에 편승한 對東歐외교마비현상은 이들 지역 나라들과의 기존 경제협력 및 교류관계마저도 부진의 늪에 빠뜨린 결과를 초래했다.

최근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는 東歐제국의 개혁·개방물결에도 불구하고, 아랑곳하지 않고 폐쇄적 경제노선을 고수하고 있는 北韓으로서는 중국을 가장 중요한 경제파트너로 삼지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

이처럼 北韓·中國간에 제기될 수 있는 현안문제들은 대외적으로 공개될 경우 미묘한 방향으로 작용 또는 발전될 수도 있는 事案들이다. 따라서 金日成은 비공식적인 밀회방법을 택해 실속있는 방문성과를 거두는데 역점을 두어 비밀리에 중국을 방문한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北韓외부의 시각에 비쳐진 金日成의 중국방문은 무엇보다도 급격한 주변정세변화에 따른 위기의식을 구체적으로 표출시킨 외교행각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관측이다. 즉 최근 東歐圈의 잇따른 對韓수교와 韓國의 유엔가입문제에 대한 소련 및 東歐제국의 호의적 태도표명이라든가 90년 북경아시안게임을 앞둔 중국의 對韓관계발전 등은 北韓으로 하여금 초조와 불안감을 던져주기에 충분한 사태 발전들이다.

특히 사회주의종주국 소련에서마저도 「두개의 한국」을 인정한 데서 한걸음 더 나아가 한국과의 정치·외교적 관계개선의 전망을 선명하게 내비치고 있다. 무엇보다도 최근 소련이 한국이 유엔 단독가입을 신청할 경우 유엔안보리에서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을 것이라는 조짐이 시시각각 흘러나옴에 따라 北韓은 지금까지의 對南 통일노선의 근본적인 변혁 내지 수정을 가해야 된다는 부담감마저 떠앉게된 상황이 되었다. 이에따라 北韓이 믿을수 있는 유엔안보리의 또하나의 거부권은 중국카드일 수밖에 없고 이에대한 중국의 신의를 굳게 부탁했을 것으로 보는 것이다.

어쨌든 오늘날 소련을 포함한 東歐국가들은 對韓관계에서 뿐 아니라 그들 내부적으로 체제개혁의 소용돌이속에 휩싸여 있다. 金日成이 아무리 그들의 체제옹호를 위해 폐쇄의 城을 견고하게 지킨다해도 언제까지나 「獨也赤赤」할 수만은 없다. 더구나 金正日 체제로의 이행이 임박한 시점에서 北韓은 그들 스스로 외풍을 최대한 막으면서 중국을 지원세력으로한 외벽을 쌓기 위해 金日成이 직접 나선 것으로 해석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金日成이 아무리 숨가쁘게 「형제국의리」를 부탁한다해서 중국이 일방적으로 수용할 수 없는 객관적인 상황변화속에서 金의 이번 訪中이 만족할만한 성과를 거두었을지는 미지수이다.

중국이 이미 개방경제노선을추진하고 있고 아시안게임준비 등에 여념이 없는 실정임을 감안할 때 金日成은 한반도평화유지와 개혁·개방추세의 수용, 그리고 南北대화 등에 대한 보다 성의있는 노력을 기울여 줄것을 중국측으로부터 종용받았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겠다.

(내외통신 665호, '89.11.10)

金日成 中國 非公式 방문관련 외신보도 내용

1. 報道動向(要旨)

- '89.11.5 日本 NHK방송은(저녁뉴스) 北韓의 金日成이 中國을 非公式 訪問하기 위해 11.5(하오 5시경) 특별열차편으로 北京에 도착한 것으로 보도하고 있으며, 교토(共同)통신도 이를 확인함.
- 이와 관련 北京駐在 東歐圈 소식통들은 『金日成이 11月 5日, 비밀리에 北京에 도착, 中國 訪問을 시작한 것으로 믿어진 다』고 주장, 이를 뒷받침하고 있으나 北韓 및 中國側은 11月 6日 현재까지 金의 訪中 사실과 관련, 일체의 침묵을 지키고 있는 가운데 北京駐在 북한대사관의 당직 근무자는 『이에 대해 전혀 아는 바 없다』고 주장 是認도 否認도 하지 않았음.(外信綜合)

2. 金日成의 中國 訪問에 대한 外信의 視角

- 外信은 金日成이 최근 東歐 공산국가들의 「脫이데올로기 현상」과 「두개의 韓國을 認定하는 움직임」이 급격히 확산되고 있는 것을 우려, 이와 관련된 북한측 입장에 대한 中國側의 이해를

촉구하고 中國의 支持를 호소하기 위해 갑자기 中國을 訪問한 것으로 分析하고 있음.

- 특히, 金은 父子世襲體制를 유지하고 경제건설을 추진하기 위한 당면과제로, 사회주의국가간의 결속과 西方의 技術 및 資本導入이 불가피하다는 점에서 中國의 적극적인 支持를 요구하기 위해 訪中한 것으로 보도하고 있음.

金日成의 中國訪問日誌(1953 ~ 1987)

1. 1950年代(4回)

1953.11.10	1958.11.21
1954. 9.28	1959. 9.25

2. 1960年代(1回)

• 1961.7.10

3. 1970年代(1回)

• 1975.4.17

4. 1980年代(5回)

1981. 3	1985.12.
1982. 9.16	1987. 5.20
1984.11.26	

최근 對中·蘇관계동향

최근 北韓의 對中·蘇 관계는 예년과 마찬가지로 비교적 긴밀한 유대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

北韓과 소련간에는 88년에 있었던 쌍방 외상의 상호방문을 통해 확인된 한반도의 긴장완화 및 통일방안에 대한 전략적 연계관계가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을뿐만 아니라 정례적인 합동해군군사훈련이 금년에도 지속되고 군사대표단의 교류도 이어졌으며 더욱이 각종 협정과 직접적 생산연계에 의한 경제협력과 함께 다방면적인 협조관계도 보다 확대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北韓과 중국간에도 그들간의 전통적·역사적 친선협조관계를 상징하는 수뇌급의 빈번한 교류를 통해 순치·혈맹관계의 불변성을 시현하였으며 경제·과학기술분야에서도 장기적인 협조협정체결에 의해 안정된 성장기반을 조성코자 하였다.

또한 北韓·미국 관계개선을 위한 중국의 교량자적 역할이 강화되는 양상을 보이는 가운데 북경사태 이후 쌍방간의 친선·유대관계를 과시하려는 움직임이 더욱 활발해짐으로써 그 어느때 보다도 안정된 협력상태하에 있다고 볼 수 있다.

우선 北韓과 중국관계의 동향을 개괄하면 최근 김일성의 돌연한 중국비밀방문은 특별한 경우로 보아 논외로 하더라도 '89년 4월 24일~29일까지 있었던 조자양 당시 중국당총서기의 北韓방문은 전술적 유대의 기저를 이루어 온 지도자간의 친분관계지속을 입

증하는 대표적 사례로 기록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쌍방은 새로운 국제정세의 변화속에서 北韓·중국간의 전통적인 혈맹관계와 한반도의 정치·군사문제에 대한 전략적 연계를 재확인할 수 있었다. 조자양 당시 총서기의 北韓방문이 갖는 의미는 우선 4월 24 일의 환영식에서 쌍방 수뇌들의 발언에서 분명히 드러나 있듯이 조자양이 당총서기의 직책을 맡은후 최초의 외국방문지가 北韓이었다는 점에서 쌍방간의 혁명적 의리와 형제적 친선 및 전투적 우의를 뚜렷이 시위한 상징성이 매우 컸다는 점 이외에 조자양이 김일성과의 회담에서 北韓이 주장하는 3자회담과 미·北韓間 직접적 대화 및 그 수준의 격상을 희망하고 나섬으로써 한반도문제를 둘러싼 北韓의 입장에 전적으로 동조하고 나선 점이라 할 수 있다.

실제로 北韓과 미국이 중국정부의 주선하에 북경에서 '88년 12월이래 금년 9월 1일까지 5차례에 걸쳐 정부참사관급간의 직접대화를 가짐으로써 한반도문제에 대한 중국의 교량자적 역할이 더욱 강화되고 있음을 입증하였다.

北韓·중국간의 일련의 정치·외교적 관계강화 움직임에서 주목되는 또다른 동향은 쌍방간에 최초의 외교부간 협조계획서가 체결되었다는 사실과 더불어 북경민주화 유희사태 이후 관계긴밀화 양상이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다. 즉, '89년 3월 29일 차봉주 北韓외교부 부부장과 은업담 北韓주재 중국대사 사이에 평양에서 조인된 '89~'90년도 협조계획서는 작년 11월에 있었던 김영남 외교부장의 중국방문시 쌍방 외교부간 교류강화에 대한 합

의에 따른 것으로 외교부간 최초의 협조계획서로 기록되며 이로써 쌍방은 한반도문제를 둘러싼 상호 이해증진 및 협조체제를 보다 긴밀히 할 수 있는 외교분야에서의 제도적 장치를 구축한 셈이다.

특히 '89년 4월 중순부터 대규모시위사태로 확산되기 시작한 중국의 민주화투쟁에 대해 침묵으로 일관해왔던 北韓이 6월 7일 북경사태에 대한 미국의 태도를 격렬히 비난하고 나섬으로써 중국당국의 처사를 옹호하는 입장을 최초로 노정시킨 이래 지금까지 각급 대표단의 교류를 통해 그러한 입장을 더욱 분명히 해오고 있다. 즉 지난 7월 1일의 노동신문논설에서 북경사태를 중국당국의 규정대로 「反革命暴亂」으로 매도하고 그것이 효과적으로 분쇄되었다고 논평하여 북경사태에 대한 자신들의 공식적 시각과 중국당국의 유혈진압에 대한 지지 입장을 시현하였으며 이후 다방면에 걸친 대표단의 북경파견을 통해 그러한 입장을 재확인함으로써 국제적 여론의 악화에 곤혹해하고 있는 중국당국을 지원하는 한편 이를 계기로 쌍방간 외교적 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고자 하였다.

북경사태 이후 北韓·중국관계의 긴밀화양상은 무엇보다도 쌍방 대표단의 빈번한 교류에서 엿볼 수 있다. 지난 8월 김용순 당국 제부장과 최광 총참모장이 각기 자신의 현직책 수임후 최초로 중국을 방문, 강택민 신임중국당총서기등 고위인물들과 만나 전통적 혈맹관계를 다짐하였으며 北韓 전력공업대표단(8월), 최고인민회의대표단(9월), 이종옥 부주석을 단장으로 한 黨·政 대표단(10월), 과학기술대표단(10월)이 중국을 방문했다.

중국측에서는 군사대표단, 黨대외연락부대표단(10월)이 北韓을 방문하였다. 이처럼 쌍방간에 친안문사태 이후 黨·政·軍·議會·經濟·科學技術등 제반분야에서 상호 교류·협조를 더욱 강화해오고 있는 것이 최근의 관계동향에 나타난 특징적 양상으로 기록될 수 있다.

北韓·蘇聯관계도 現象的으로 볼 때는 상당히 안정된 협력상태를 유지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정치·외교분야에서 비록 지난 5월의 中·蘇수뇌회담을 계기로 있을 것으로 관측되었던 고르바초프의 北韓방문이 실현되지는 않았으나 소련의 한국에 대한 외교적 불승인정책과 北韓이 주장해 온 4강의 南·北韓 교차승인 반대, 주한미군의 철수등 기존의 대한반도정책기조의 불변성이 재확인됨으로써 여전히 긴밀한 관계가 지속되고 있다.

즉, 로가초프 소련외무차관('89.9.4), 야코블레프 정치국원(9.22)등이 對韓不承認, 政·經分離원칙의 고수방침을 재확인, 韓·蘇관계증진에 따른 北韓의 對蘇의구심 무마에 주력하였으며 또한 페르필리에프 외무성대변인(9.25)이 주한미군의 철수가 한반도긴장완화 및 南·北韓대화진전에 기여한다고 주장함으로써 공개적인 주한미군철수입장이 재확인되었다.

그밖에 지난 6월 23일~7월 3일 黨정치국원겸 서기인 니코노프를 단장으로 한 黨대표단이 北韓을 방문, 金日成등 黨 및 政·경제관계인사들과 만나 경제분야에서의 협조관계발전문제를 논의하기도 하였다. 北韓 역시 각종 대표단을 파견, 소련과의 정치·외교적 결속을 다지고자 하였던 바, 예를 들면 7월 24일~8월

해서도 진지하게 협의할 것이며 통일에 도움이 되는 것이라면 누구의 것이라도 폭넓게 수용할것』이라고 언급함으로써 그동안 고려연방제만이 민족통일을 위한 유일한 방안이라고 고집해온 종전의 태도와 커다란 차이를 보였었다.

따라서 北韓의 이같은 신축적인 태도가 그들의 지고한 통일방안인 고려연방제안의 제의를 기념하는 행사에 어떻게 반영될 것인가 하는 것으로 인해 이번 행사는 관심의 대상이 되었다.

그러나 北韓은 이번 행사에서 이러한 신축적인 태도는 전혀 나타내지 않은채 종전과 다름없는 정치선전적 주장만을 되풀이했다. 특히 北韓은 한국의 새로운 통일방안인 「한민족공동체통일방안」을 비난하면서도 한국의 각당과 각계인사들이 「민족통일협상회의」소집에 호응할 것을 촉구함으로써 이 회의를 제의한 것이나 이 회의를 소집하면서 보였던 신축적인 태도가 얼마나 허구적인 것인가를 분명하게 드러냈다.

둘째는 한국의 통일정책이 세계각국으로부터 지지를 받고 있다는 것과 관련된다. 지난 13일 끝난 제 44 차유엔총회 회원국기조연설에서 총 1백 54 개국중 1백 1 개국이 한반도의 통일문제와 유엔가입문제를 거론했는데 이중 48 개국이 한국의 유엔단독가입을 지지했으며 北韓의 先통일 後유엔가입 주장을 지지한 나라는 쿠바·라오스·말리 등 3 개국 뿐이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와 같이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입장을 지지하는 추세는 날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유엔가입문제를 비롯한 한국의 통일정책을 지지한 나라는 '88년도 36 개국에서 금년도 48 개국으로 증가한 반면 北韓측 입장을 지지한 나라는 '88년도 29

개국에서 금년도 16개국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北韓은 이와같이 국제사회에서 지지를 얻지 못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계진보적 인민들로부터 적극적인 지지와 공감을 얻고 있다』고 억지주장을 하면서 고려연방제안만이 현실적이고 합리적이라는 구태의연한 주장을 되풀이하고 있는 것이다.

(내외통신 662호, '89.10.20)

對東歐圈 외교전개방향과 전망

동구권국가들의 변화와 더불어 이 국가들이 한국과의 관계개선내지는 협력증대에 대해 北韓은 최근 극도의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최근 에트레·산도르 주한 헝가리대사가 한국일보와 가진 특별회견에 대해 또 다시 신경질적인 반응을 나타내었는가 하면, 그들에 동조적이라고 생각하는 국가들을 비롯하여 동구권국가들의 黨대표들을 빈번히 초청해서 金日成이 직접 만나 친선과 단결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에곤·크렌츠가 이끄는 동독의 새 지도부는 언론 및 외국 여행 통제를 완화하고 소비자의 상품공급체제 개선을 약속하는 등 에리히·호네커시대의 보수노선에서 개방노선으로 선회하였고, 심지어는 불법적으로 서방으로 탈출했거나 탈출을 시도하다가 체포된 사람들, 그리고 정치개혁을 위한 평화적 가두시위 참가자들에 대해 전면적인 사면조치를 취하는등 과감한 정치적인 유화정책을 취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인데도 金日成은 에곤·크렌츠 동독공산당 서기장에게 전문을 보내 『사회주의를 발전시키고 세계평화를 수호하기 위한 사업에서 성과를 거둘 것을 축원한다』고 말하고 『제국주의를 반대하고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의 승리를 이룩하기 위한 공동투쟁을 통해 형제적 친선의 유대로 굳게 연결된 두사람 사이의 전통적인 친선 협조관계가 날을 따라 더욱 확대발전되리라고 확신한다』고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물론 지금까지의 양자간 관계로 미루어 의례적인 것으로 볼 수도 있으나, 北韓이 東獨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상이나 변화, 그리고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모르고 있는 것이 아니라면, 北韓의 행위는 그들이 처한 당혹한 상황에서 비롯된 다급한 것이 아닐 수가 없다.

이와같은 현상은 중공군의 6.25 참전 39周를 맞아 예년과는 달리 다양한 기념행사를 벌이고 행사마다 「피로서 맺은 친선관계」 강화발전을 역설한 사실도 北韓의 그같은 입장을 대변해주고 있다.

최근 동독국민들의 견잡을 수 없는 서독에로의 대탈출로 어려움과 당혹감에 처했던 동독의 사정이, 동구권국가들의 변화로 당혹한 입장에 놓인 北韓의 처지와 다를바가 없음을 드러내주고 있다.

이처럼 北韓은 동구권국가들의 변화를 제국주의에 대한 반사회주의 파괴책동과 그 피해로 받아들이고 있다. 北韓은 소련을 비롯한 동구권국가들의 변화를 사회주의가 한계에 이른 필연적인 현상으로 인정하려 들지 않으므로써, 우선은 그러한 변화가 北韓에 미치는 영향을 막아보려는데 집중하고 있다.

北韓에 『오늘 전반적인 국제정세는 의연히 복잡하고 긴장하다』고 인정하면서도 『사회주의는 오늘 세계영토의 1/4 이상, 인구의 1/3, 그리고 세계공업생산의 4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사회주의에로 나가는 것은 이미 역사에 의해 검증된 진리다』. 『오늘 사회주의나라 인민들은 자기들의 실제 체험을 통해서 사회주의만이 인민들에게 참된 삶과 행복을 안겨주는 사회제도라는 것을 알

고 있으며 참된 길이라고 한결같이 믿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도 그러한 의미인 것이다.

또한 北韓이 이와 더불어 최근 그들의 사회주의체제가 우월하다는 주장으로 주민들의 인식을 적극화하고 있는 경향도 그러한 점을 설명해주고 있다.

「오직 한길로 가자」(10.25 중앙방송) · 「우리인민은 자체의 힘으로 부강한 자주독립국가를 건설한 위대한 인민」(10.24 平放 · 논설) 등은 그 실례의 일부이다.

이에 반해 「미제의 반동적 평화책동을 짓부셔야 한다」(10.22 노동신문논설) · 「발전도상나라들의 자연부원에 대한 제국주의자들의 약탈책동」(10.22 중방) · 「자본주의세계의 모순과 침예성」(10.24 중방) 등은 북한이 그들 체제에 대한 고수적인 방어 주장이상으로 사회주의권에 대한 단결을 위한 호소성이 강한 논조가 아닐 수 없다.

『오늘 세계는 제국주의의 침략과 약탈, 간섭과 전쟁책동에 의해 민족적 독립과 나라의 자주권에 대한 침해와 유린, 분쟁과 충돌, 평화의 교란등 사건이 꼬리를 물고 일어나고 하루도 조용하고 안정된 날이 없다. 지구상에서 제국주의가 존재하는 한 그의 침략과 약탈 행위는 없어질 수 없다』(10.22 노동신문 논설)고 하면서 『제국주의자들은 저들의 처지가 어려워질수록 더욱더 교활한 양면전술에 매어달린다』는 주장은 그러한 점을 말해주고 있다.

동구권국가들의 변화에 이어 맑스·레닌주의를 지향해왔던 아프리카의 친소사회주의 신생독립국가들이 이데올로기와 親蘇일변도의 경직된 국가체제에서 벗어나 미국을 비롯한 서방과의 접근을 최근

들어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현상으로 볼때 역시 北韓의 반제국주의 비방의 극렬한 논조가 우연한 일이 아니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다.

왜냐하면 이러한 현상은, 자국의 경제현실과 괴리된 파행적인 국유화정책으로 극심한 경제적인 빈곤이 초래된데다 고질적인 內戰에 시달리고 있는 아프리카국가들이 美·蘇간의 긴장완화 속에서 경제적인 실리를 추구하는 한편, 후견자를 자처해온 소련이 국내사정상 더이상 군사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지원을 할 수 없게 된 사정 때문이다.

최근 변화하고 있는 동구권국가들을 지원해야 한다는 여론이 일고 있고, 특히 미국이 이를 돕고나선데 대해 북한이 이를 반사회주의 파괴음모라고 왜곡하여 비방하고 있는 이유도 그러한 점을 말해주고 있다.

『美帝를 비롯한 반동들의 반동적 세계전략에서 출발한 반사회주의 반진보의 평화공세는 세계인민들의 자주와 진보와 평화위업에 대한 위협이며, 오늘 국제정세를 긴장하게 만드는 중요한 요인이다. 제국주의의 평화공세를 짓부셔버리는 것은 세계진보적 인민들 앞에 나선 중요한 과업이다. 이를 위해 세계 모든 진보적 역량의 단결이 절실한 문제로 나선다』는 北韓의 주장은 北韓이 동구권변화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고 있고, 이같은 변화에 그들은 어떻게 대처해 나갈 것인가 하는 방향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다.

물론 北韓이 최근 중국과 소련의 국경지대인 두만강변의 합산도(合山島)지구에 경제특구를 설치한 것이나, 北韓이 오스트리아장부에 北韓지역에다 합작회사를, 그리고 케스터·시거 전미국무부 동

아시아·태평양 담당차관보가 지난 10월 27일부터 1주일간의 北韓 방문을 끝내면서 행한 연설에서 北韓의 부주석 이종옥, 정무원부총리 김영남, 당비서이자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위원장 허담등 자신과 접촉을 가진 北韓의 인사들이 한반도가 평화적으로 통일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한 사실등은 반드시 그렇다고는 할 수 없어도 北韓이 다소의 변화조짐을 보이고 있는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들게 하기도 한다.

하지만 北韓은 그들의 변화필요성에 비해 그 조짐들은 너무도 미약하며 그 필요성에 상응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현재 드러내 보이고 있는 여러가지 현상들을 하나의 변화징후로 여기기에는 그들 체제가 지니고 있는 모순들이 더 큰 것이다. 그리고 北韓의 체제적 성격으로 볼때, 그같은 현상들이 北韓의 변화조짐으로 되기에는 그 역량이나 비중이 미약하기 이를데 없다.

北韓은 금년 제 44 차 유엔총회에서 한국의 유엔가입 입장에 대한 긍정적인 여론이 절대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北韓 외교부부부장 강석주가 그들의 중앙통신사 기자와 가진 기자회견을 통해 유엔총회 일반 연설자들중 상당수가 『한반도문제는 외세의 간섭없이 평화적으로 해결되어야 하며, 한반도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가장 합리적인 방도는 연방제형식으로 통일을 실현하는 것』이라 했다고 하면서 『한반도에서 외국군대의 철수는 한반도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길을 열어놓게 될것』이라 했다고 주장했다.

이는 엄연한 현실에 대해 北韓이 이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고 그들의 주장이 어떠한가를 말해주는 것으로써, 동구권국가들의 변화에 대한 北韓의 인식이나 그 자세와 맥락을 같이하고 있다. 다

시말해 北韓의 기본전략노선에 있어서는 그것이 동구권국가들의 변화의 문제든, 한반도문제에 관한 세계의 여론이건간에 북한이 기본 입장이 결코 변화가 없음을 말해주고 있다. 北韓이 평화나 통일이니 하지만 막상 남북대화에 임해서는 회담외적문제를 내세워 회담에 제동을 거는 행위처럼 그 전술은 이러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北韓이 동구권국가들의 변화를 부정적 시각에서 인식하고 있는 만큼 北韓이 변화할 것이라는 기대를 하기에는 당분간 어려운 일이 아닌가 한다.

北韓은 그들의 현체제를 절대 고수한다는 전제아래, 비록 현실적인 상황이 그렇지 않더라도 北韓은 그들에게 유리한 것이나 또는 그렇게 판단되는 상황만을 부각시켜 이를 상대국가와의 관계명분으로 내세울 것이며, 이를 위해 동구권국가들의 변화에서 부정적 측면에 대한 접근을 더욱 치중할 것이고 또 적극화할 것으로 보인다. 北韓은 그들이 對동구권관계에 있어 처하고 있는 정치외교적 어려움을 일부 서방국가들과의 은밀한 접근으로 보상하려 들것이기는 하다.

그리고 이와 더불어 동구권국가들과의 외교적인 기존의 관계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비동맹권의 親北韓국가들 내지는 민주진영국가들의 반체제세력들에 영합해서 이들을 부추김으로써 동구권국가들의 변화에 부정적인 측면을 노출시켜 주변적인 장애조성 내지는 그러한 여론조작에 집중할 것이며, 이를 그들의 입장을 합리화하는데 이용하려 몰두할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내외통신 665 호. '89.11.10)

경제협력 내세운 對阿접근강화

北韓이 최근들어 경제협력 또는 지원을 내세워 阿洲지역의 일부국가들에 대한 접근을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北韓은 지난 9월중순경 최고인민회의 의장 楊亨燮일행을 阿洲의 베닌과 토고에 파견, 방문국들과의 경제협력문제를 논의케 한 것을 비롯해 금년들어 9월하순 현재까지 앙골라·이디오피아·수단·기네·중앙阿·잠비아·탄자니아등 여러나라들과 관계긴밀화에 주력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같은 北韓의 경제외교활동내용을 살펴보면, 지난 2월초 탄자니아와 농업합영회사 설립문제를 구체적으로 논의한 것을 시발로 그동안 추진해오던 중앙阿와의 금강석합영회사 설립문제를 매듭짓고 지난 4월하순 조업을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잠비아에는 도정공장건설비 36만달러를 北韓이 무이자로 차관 제공키로했다고 5월하순 잠비아신문이 공개한 바 있고, 기네에서는 5월하순 北韓상품전람회가 열리기도 했다. 6월하순 쿠데타로 집권한 수단의 新정부가 경제문제가 가장 焦眉의 과제라는 사실을 간파한 北韓이 즉각 新정부를 승인하면서 은근히 경제협력을 내세워 접근을 시도하고 있으며 8월하순경에는 대외경제사업부장 정송남을 단장으로 한 경제사절단을 앙골라와 이디오피아를 방문케 해 경제지원문제를 논의키로 한 것으로 북한방송이 전한 바 있다.

北韓의 阿洲국들에 대한 접근시도는 올가을 유엔총회와 비동맹정

상회의(9.4~7유고)를 앞둔 지난 7월하순경부터 8월하순경까지 1개월간 7개대표단으로 하여금 阿洲 및 중동지역 비동맹 16개국을 순방케 한 것과 비슷한 시기에 이루어지긴 했으나 이때의 집중순방외교활동은 다분히 유엔총회와 비동맹정상회의에서의 對北지지를 유도하기 위한데 목적이 있었다는 점에서 약간 그 성격을 달리 한다. 그러나 북한이 이들 阿洲 및 중동비동맹국가들이 대부분 신생국가거나 저개발국가들임을 감안, 이들 국가들과의 접근을 시도할 때 으레히 경제지원 또는 협력을 「미끼」로 내세우고 있다는 점에서는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특히 몇몇 국가들과는 구체적인 경제현안들을 논의하고 있거나 아니면 이미 일부 결실을 보고 있다는 점에서 접근시도가 보다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탄자니아와의 농업합영회사(KOTA CO)는 쌍방이 50:50 비율로 '87년 2월 설립돼 그동안 탄자니아의 루피지지방 5만ha의 농지개발 프로젝트 합자투자협정('87.2)을 비롯해 잔지바르 관개 사업을 추진해오고 있는등 주로 농업개발지원사업을 통한 접근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지난 4월하순 조업을 시작한 北韓·中央阿間 「대흥·세마프금강석합영회사」는 구체적인 내용은 알려지지 않고 있으나 北韓이 지난 '85년 7월 중앙阿의 금 또는 다이아몬드개발합작사업 참여를 희망했고 '87년 6월에 합영회사설립을 시도했던 점으로 보아 중앙阿의 최대수출품인 다이아몬드 개발참여라는 실질협력을 발판으로 이 나라에 대한 경제진출을 적극화할 것으로 보여 주목되고 있다.

잠비아와는 카운다대통령이 金日成·金正日 생일축하사절로 3차례 평양방문('80.4, '82.4, '88.2)하는등 정부 고위급인사들의 빈

번한 교류와 北韓의 군사훈련지원, 농업 및 의료지원등을 통해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오고 있다. 이번에 北韓이 無利子 차관 36 만달러를 제공키로한 것은 지난해 2월 카운다대통령이 평양을 방문했을 때 北韓에 대한 농업·관개시설, 의료분야지원을 요청한데 따른 「약속이행」으로 보여지는데, 北韓으로서는 이번 차관제공을 계기로 北韓의 「경제지원 능력」을 비동맹권에 과시하는데 그 속셈이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같은 선전효과를 노린 것으로 기네에서 열린 北韓상품전람회도 대표적인 예의 하나인데 北韓은 이같은 상품전람회를 통해 현지판매는 물론 수출시장개척을 위한 선전효과를 노리고 있는 것이다.

한편, 지난 6월 30일 수단에 군사쿠데타가 일어나 베시르가 집권하자 즉각 金日成이름으로 지지서한(7.10)을 보내 新政府를 사실상 승인한 것도 신군사정부가 비동맹중립노선을 표방하고 경제위기 해소를 선결과업으로 제시한 사실을 감안, 경제협력을 내걸고 新政府와의 접근을 시도하기위한 속셈으로 풀이된다.

北韓의 대외경제사업부장 정송남일행이 8월하순 앙골라와 이디오피아를 방문한 것과 최고인민회의의장 양형섭이 9월중순 토고와 베닌을 순방한 것도 이들 국가들과의 경제협력 확대를 조건으로 비동맹정상회의 또는 유엔총회에서 對北지지요청에 그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진다.

北韓은 앙골라에 대한 농업·비금생산·댐건설등의 지원을 약속('87.4 제3차경제과학기술합동위원회)해놓고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자 앙골라측의 반발이 노골화(서울올림픽 참가등)되고 있음을 감안, 이를 무마해보자는 것으로 보인다. 이디오피아와는 뚜렷

한 현안문제가 없는데도 경제대표단을 파견한 것으로 보아 경제 협력을 조건으로 유엔등에서의 지지호소가 주목적이었던 것 같다.

IPU총회(9.4~9 런던)에北韓대표로 참가했던 최고인민회의 의장 楊亨燮일행은 귀로에 토고와 베닌을 각각 순방한 것으로北韓방송이 보도했다.

楊亨燮은 토고를 방문해 국회의장과 에야데마대통령을 예방한데 이어 인석회공장을 시찰했고 베닌에서도 게레꾸대통령 면담외에도 인쇄공장과 정유공장등을 돌아본 것으로 보도돼. 이들 국가들과의 경제지원 또는 협력확대문제들을 모색한 것으로 보여진다.

北韓이 이처럼 阿洲비동맹국가들에 대한 순방외교활동 또는 경제협력을 내세운 접근을 시도하고 있는 것은 최근 대부분의 비동맹권국가들이 경제·외교적으로 실리추구성향으로 변모하고 특히 한반도문제에 있어서도 과거 일방적인 對北지지원 태도에서 탈피, 중립 내지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데 대한 대응조치로 풀이된다.

특히 경제적 실리추구성향에 따라 한국의 월등한 경제력에 매력을 느낀 많은 비동맹권 저개발국가들이 노골적으로 한국과의 관계긴밀화 신호를 보내고 그 구체적인 태도로 남북한관계에 대해 중립적 내지 신중한 자세를 보임에 따라北韓은 상대적으로 불안 을 느끼고 있는듯 하다.

따라서北韓은 이들 비동맹저개발국가들을 대상으로 경제협력등을 내세워 기존의 친선관계를 유지 내지 돈독히하려 하고 있으나北韓이 협력 내지 지원할 수 있는 능력범위란 대부분 기초영

농기술을 비롯해 단순토목사업 또는 소규모 합영사업정도에 불과하다는 점을 감안해 볼때 기대만큼의 성과를 거둘 수 있을지는 의문스럽다.

(내외통신 661 호, '89.10.13)

「國家 科學技術委」대표단 中國방문

報 道 要 旨

- 中國에 가는 國家 科學技術委員會 김응호 副委員長을 단장으로 하는 科學技術 協調代表團이 오늘 열차로 平壤을 출발했음.
(中放, '89.10.30)

評 價

- 北韓과 中國間의 과학기술분야 협력관계는 1957年 12月 最初の 「科學技術協定」이 체결된 이후 연례적으로 「科學技術 協調委員會」를 개최, 과학 및 산업기술 협력문제를 협의해 왔음
- 80년 이후 北韓과 中國間에는 「87-97年間 科學技術協定」 ('87.12)締結, 「經濟貿易 및 科學技術協調委員會 創設協定」 ('89.4), 「科學技術協力 擴大議定書」 ('89.8) 調印등 雙方 협력관계를 강화하는 한편 장기적인 협력방안을 모색하고 있음.
- 이번 北韓 科學技術 協調代表團의 中國訪問은 第29次 「朝中科學技術 協調委員會」 參席이라는 연례적 訪問으로 보이나 이번 회의에서는 北韓의 당면과업인 기계·전자자동화 및 유전공학 등 선진과학기술 부문에 대한 對北 지원문제가 중점 논의될 것으로 보여짐.

主 要 動 向 日 誌

(10 ~ 11 月)

日 字	動 向
10. 1	• 이종욱 (부주석), 中國중앙군사委주석 등소평과 회동
10. 2	• 中國군사대표단 (단장 : 黨중앙군사委 부비서장 유하청), 平壤着
10. 3	• 金日成 루마니아군사대표단 (단장 : 민족보위장관 와실레 밀리아) 과 면담
10. 4	• 前 캄보디아 국가주석 시하루크, 平壤着
10. 6	• 루마니아黨대표단 (단장 : 당비서 이은, 산또안), 平壤着 • 中國 외교부 대표단 (단장 : 同副부장 길시운), 平壤着
10. 7	• 북한 - 東獨간 90 년도 무역협정 조인 (10.5 東베를린)
10. 9	• 전국 東醫부문 과학연구토론회 개최 (平壤)
10.11	• 라오스주재 대사에 장영준, 앙골라주재 대사에 강순영 각각 임명 • 中國군사대표단 (단장 중앙군사위 부비서장 유하청) 離平
10.12	• 남북 고위급 정치군사회담을 위한 제 3차 예비회담 개최 (판문점)
10.13	• 평성화력발전소 착공식 진행 - 서윤석 (平南道黨責)

日 字	動 向
10.15	• 대정부대표단 (단장 윤기정), 中國방문후 귀환
10.17	• 金策화력발전소 건설착공 • 中國黨 대외연락부 대표단 (단장 비서장 이복해) 平壤着
10.18	• 정무원 副총리 趙世雄 해임
10.19	• 과학원대표단 (단장 : 부원장 박영협), 베트남 向發 • 경제대표단 (단장 : 부총리 : 金福信), 소련 向發
10.20	• 제 3 차 남북체육회담 개최 (판문점) • 前美 국무성 東아시아, 태평양차관보 개스턴시거, 平壤着 • 체코 공산당 대표단 (단장 : 당비서 머로슬라브자이쓰), 平壤着
10.21	• 金日成, 新任駐 알제리 대사 모크파르레디에거로 부터 신임장 접수
10.23	• 북한-체코간 과학기술협조 상설분과위원회 제 29 차 회의 議定書 조인 (平壤)
10.24	• 북한-루마니아간 1990 년도 상품유통 및 지불에 관한 의정서 조인 (10.20 부크레스티) • 북한-체코간 과학기술협조 상설분과위원회 제 29 차 회의 의정서 조인 (10.23 平壤)
10.25	• 제 8 차 국회회담 예비접촉 진행 (판문점)
10.26	• 북한-이디오피아간 1990 ~ 91 년도 문화교류계획서 조

日 字	動 向
10.27	인 (10.17 아디스 아바바) • 李鍾玉 (부주석), 前美 國무성 차관보 캐스턴시거와 면담
10.28	• 북한 - 불가리아 간 친선협회 1990-92 년도 협조계획서 조인 (平壤) • 북한 - 체코 간 친선협회 간 1990-92 년도 협조계획서 조인 (平壤)
10.30	• 정부 과학기술협조대표단 (단장 국가과학기술위부위원장 김응호), 中國 向發
10.31	• 북한 - 루마니아 간 사증 및 사증수수료폐지에 관한 협정조인 (平壤)
11. 1	• 소련 사회주의 10월 혁명 (불세비키 혁명) 72 주년관련해 소련 도서전람회 개막 (함흥)
11. 2	• 金日成, 작별 인사차 前 캄보디아 국가주석 시아누크 宿所 방문
11. 3	• 북한 - 中國 간 과학기술협조위원회 제 29 차 회의 議定書 조인 (北京) • 이란 국회 대표단 (단장: 계획 및 예산위원장 하디 카파리), 平壤 着
11. 4	• 孫成弼 (최고인민회의 상설 副의장), 이란 국회 계획 및 예산위원장 하디 카파리 일행 회담

日 字	動 向
11. 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金日成, 소련 사회주의 10월 혁명 (불쇄비키 혁명) 72周 관련 소련 공산당 총서기 고로바췌프에게 祝電
11. 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金日成, 이란 국회대표단 (단장 국회계획 및 예산위원장 하디카파리) 과 면담
11.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군사대표단 (단장 인민군총참모총장 최광), 이집트 방문 후 귀환
11.1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金日成의 중국방문 (11.5-7) 을 공식 보도 • 남북적십자 제 5차 실무회담 개최 (판문점) - 11월 21일 제 6차 실무접촉을 갖기로 합의
11.1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남북 고위당국자 회담을 위한 제 4차 예비회담 개최 (판문점)
11.1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金日成, 이태리 下院 외교위원장 플라미니오 비폴리 일행과 면담 • 한상규 (중앙검찰소장) 쿠바 向發
11.1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천도교 청우당위원장兼 「祖統」 부위원장 최덕신 (75세) 사망
11.1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한-튀니지간 89-91년도 문화교류 계획서 조인 (튀니지) • 김용순 (黨중앙委 부장), 佛向發
11.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平壤 - 소피아간 정기 航路개설 (모스크바경유) 1週 1回 취항

共産圏 및 周邊動向

- 중국과 소련의 최근동향
- 南北韓 유엔동시가입에 대한 소련반응
- 西獨 골總理 「3段階10個項」統獨案 提示

중국과 소련의 최근동향

I. 中 國

- 지난 9월 폐막된 제 7기 全人大 常務委 제 9차 회의 (8.29 - 9.4)는 『6.4 事態』수습 및 經濟難 타개를 위한 제반대책과 방안 모색에 전력을 경주하고 있음.
 - 「집회·행진·시위법」의 逐條審議
 - 反體制 高位官吏의 숙청을 통한 체제내부의 정비
 - 政府側의 향후 3년간 긴축정책 추진계획 청취
 - 西方諸國의 對中 경제조치에 따른 대응방안 강구
- 政府當局 또한 社會紀綱 확립을 통해 민주화시위 再發防止를 위한 사회통제를 강화하고 있음.
 - 李鵬總理의 계엄령 조기 해제가능성 배제
 - 大學生의 농촌지역활동 의무화 및 육체노동교육과정 신설
 - 民願事項의 公正한 처리 및 부정부패 공직자 숙청

※ 腐敗혐의로 비난받아 온 海南省長 梁湘의 전격 파면 (9.13)

 - 北京一圓에의 군병력 재배치와 계엄령 포고 16號 발표
- 이러한 가운데서도 中國當局은 그들의 對內外政策에 대한 기존

입장을 再闡明함으로써 新任 『江澤民』지도체제에 대한 西方側의 疑惑, 懷疑感을 拂拭시키고 있음.

—鄧小平 共産黨 中央軍事委主席의 美 콜럼비아大 李政道 教授와의 面談 (9.10)

—鄧小平과 『이토 마사요시』 日・中 友好議員聯盟會長の 接見 (9.19)

—江澤民 黨 總書記의 內外信 記者會見 (9.26)에서 나타나고 있음.

●對外關係에 있어서도 蘇聯을 포함한 既存의 第3世界圈, 東歐圈 諸國과의 關係 긴밀화를 위한 방문외교를 積極화하고 있음.

—朱良 黨 對外連絡部長과 『팔린』 蘇聯共産黨 國際部長과의 회담을 통해 60년대 이래 黨 高位人士로는 처음으로 黨關係 進展 契機를 마련하고 있으며

—王漢斌 全人大 常務委 副委員長의 아프리카 4개국 순방 (9.16 - 30)

—錢其琛 외교부장의 中東 4個國 순방

—軍事代表團 (團長: 郭林祥 政治部 副主任)의 불가리아 訪問 (9.15)

—鄒家華 電氣電子工業部長의 루마니아 訪問 (9.15 - 21) 등이 代 表的 예임.

II. 蘇 聯

- 고르바초프 書記長은 개방·개혁정책의 추진과정에서 야기되고 있는 각 自治共和國에서의 민족주의, 독립요구시위등을 수습,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한 強·穩 兩面策을 구사하고 있음.
 - 게라시모프 대변인의 民族 3個原則 발표 (9.15)
 - ※ 構成共和國의 主權伸張, 民族別 共産黨 分裂 反對, 정치·경제·문화적 동질성 유지 및 합법적 권리에 대한 反對不容.
 - 黨 中央委 임시총회에서의 民族政策綱領 채택 (9.20)
 - ※ 각 共和國政府에 정치·경제·문화적인 자치권 허용, 분리, 독립 및 領土再劃定 요구, 유혈 폭동 등 無政府的 혼란상태에는 단호히 대처.
- 共産黨 中央委 總會 (9.19 - 20)는 고르바초프의 개혁·개방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保守派 정치국위원인 제프리코프(前 KGB 議長), 탈리진(前 第 1 副首相)등을 解任하고 개혁파인 푸리마코프 등을 迎入하는 黨內 인사개편을 단행하였음.
 - 新任 정치국원으로 크루치코프(KGB의장), 마슬류코프(제 1 부수상)을 선임하였으며
 - 정치국 후보위원으로는 프리마코프(연방회의의장), 푸고(黨 統制委員長)를 선임하였고
 - 書記局委員으로는 우스마노프(타타르주 黨 第 1 書記), 기렌코(크림부 黨 第 1 書記), 마나엔코프(리페츠크주 黨 第 1 書記), 스트로예프(오렐주 黨 第 1 書記)등을 選任하였음.

- 연방최고회의는 89년도 제 2차회의 (9.25 - 11.24)를 개최하여 관련 법률안에 대한 본격적인 심의를 하고 있음.
 - 90년도 豫算案과 憲法改定案
 - 聯邦·共和國間 關係調整을 골자로 한 少數民族 政策案
 - 이밖에 懸案問題로 대두되고 있는 80여개의 법률안을 逐條審議하고 있음.
- 對外的으로는 黨·政의 主要人士가 關聯國을 방문하거나 초청의 교를 적극화하는 등 그들의 立地를 강화하기 위해 다양한 활동을 수행하고 있음.
 - 세바르나제外相의 美國訪問 (9.22 - 23)을 통한 化學 무기 자료 교환 및 상호방문 檢證節次協定締結과
 - 化學 무기 減縮에 대한 4個項의 제안
 - 엘친 最高會議 建設委員長의 美國訪問 (9.9 - 9.17)
 - 아흐로메예프 最高會議 幹部會議 顧問의 핀란드 방문 (9.11 - 15)
 - 리가초프 共產黨 政治局員의 東獨訪問 (9.12 - 15)
 - 루키야노프 最高會議 第1 副議長의 中國 방문 (9.12)
 - 수하르토 인도네시아 大統領 및 대처 英國首相의 蘇聯訪問 등을 들 수 있음.

南北韓 유엔동시가입에 대한 소련 반응

蘇聯官營 모스크바 放送은 10.19 『이완 노리이크』의 論評을 통해서 소련이 유엔에서 北韓의 입장을 支持하고 있지만, 많은 유엔회원국들이 南北韓의 유엔동시가입을 주장하는 등 제반 국제적 상황이 단순치 않게 조성되어 있다고 주장하면서 『이런 조건에서 朝鮮側은 相互 接受할 수 있는 결정을 이룩해야 할 것』이라고 말함으로써 南北韓의 유엔동시가입문제에 대하여 肯定的인 反應을 보였음.

- 특히 同 放送은 『유엔의 만능적 관점으로 보아 두개 朝鮮國家를 유엔에 받아들이는 것이 옹당한 일』이라고 전제하고
 - ① 韓國의 유엔加入 주장이 세계적으로 더 큰 支持를 받는다면서 그 論據로서
 - 韓國은 80年代 初에 비약적인 경제발전을 하여 世界 10代 수출국에 들어 있으며
 - 南北韓이 유엔 常設 옵서버인데다
 - 韓國은 유엔의 目的과 憲章을 是認하며 그것을 실행할 것을 수차 聲明한 사실을 소개하였고
 - ② 오늘날 많은 유엔 회원국들이 南北韓의 유엔동시가입을 주장하고 있는데, 그 論據로서
 - 세계 80여個 國家가 南北韓을 동시에 승인하고 있으며

—南北韓이 20개 국제기구의 회원국인데다

—南北韓이 유엔 常設 옵서버라는 점을 들고 있다고 덧붙였음.

- 이어 同 放送은 현재 南北韓은 모두

『朝鮮問題의 調整과 平和的 對話에 관한 일련의 새로운 제안을 내놓은 것을 고려하여 쌍방관계의 일부 측면에 관한 준비회담이 재개되었고』, 南北韓問題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쌍방이 절충을 이룩하여 서로가 造成된 接觸, 協調의 강화에 백방으로 協調해야 한다』고 지적하면서 南北韓의 유엔가입문제도 이런 입장에서 취급해야 한다고 강조하였음.

評 價

- 9.19開幕된 第44次 유엔總會에서 韓半島問題가 總會에 상정된 公式議題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유엔회원국 대표들이 基調演說을 통해 『南北韓의 유엔 동시가입 또는 韓國 單獨加入』을 주장하게 됨에 따라 韓半島 問題에 대한 관심이 고조된 바 있음.
- 특히 韓國 政府의 동시가입 내지 단독가입 주장이 유엔會員國의 대다수 支持를 받게 되자, 安保理 常任理事國으로서 비토권을 보유하고 있는 中國과 蘇聯의 입장에서는 이같은 國際的 大勢를 외면할 수 없는 궁지에 처하게 되었으며, 현실적으로 韓國과의 관계개선을 도모하기 위해서도 韓國에 대한 국제법적인 조치가 필요하게 되었음.
- 蘇聯側이 고르바초프의 「크로스노야르스크演說」 이후 公式, 非公式 통로를 통해 그간 「南北韓 交叉承認」, 「南北韓 關係正

常化를 위한 段階的 相互 軍縮」, 「南北韓 軍縮 및 緊張緩和을 위한 國際會議」등을 주장해 온 사실을 감안할 때, 이번 모스크바放送의 論評도 『韓半島의 現狀維持와 南北韓間의 關係改善』이라는 蘇聯의 對韓半島 戰略의 일환이라 볼 수 있음.

- 따라서 蘇聯側이 南北韓 교차승인과 유엔동시가입을 間歇적으로 표명하고 있다는 사실은 韓國과의 修交關係 樹立이 임박했다는 것을 示唆하고 있으며, 北韓에 대한 間接적인 압력을 행사하려는 의도라 하겠음.

西獨 콜總理, 「3段階 10個項」 統獨案 提示

1. 內 容

西獨 콜總理는 11월 28일 東·西獨 再統一을 위한 國家聯合 方式의 『3段階 10個項』의 統獨案을 발표하였음.

이 方案의 주요내용은,

—제 1 단계 : 東獨에서 自由選舉 실시

—제 2 단계 : 東西獨間에 경제, 환경, 기타문제에 관한 협력 緊密化, 常設的인 「政府委員會」 「專門委員會」 및 「議員聯盟」 등을 설치 (국가연합)

—제 3 단계 : 국가연합을 발전시켜 연방제로 통일

10 個項의 主要內容

1. 醫療 및 재정부문을 포함한 多角的 지원을 제공
2. 通信網 확충 및 高速電鐵 車 등 환경개선을 위한 지원을 제공
3. 東獨 共產黨은 정치범 석방 및 시장경제 도입에 박차를 가할 것

4. 최근 모토로프總理의 「條約共同體」 제의를 수락
5. 聯合構造를 형성, 이를 발판으로 議會共同體를 포함하는 兩獨諮問委를 구성해 정치문제 등도 논의
6. 統獨問題는 유럽 統合 및 東西關係 改善과 連繫시켜 實現
7. EC는 東獨을 포함한 東유럽國家에 대한 門戶를 開放하고 東獨과 貿易協力協定을 締結
8. 유럽안보 協力會議(CSCE)를 環境保存 또는 東·西獨貿易 協力 促進機構 등으로 性格을 轉換
9. 軍縮에 박차를 가할 것
10. 東獨 및 유럽안보 實現을 위한 持續的 努力

2. 關聯國 反應

1) 東 獨

- 나토와 바르샤바가 수년안에 해체된다면 동서독이 궁극적으로 연방형태의 통일을 이룰 가능성이 있다.

(에곤 크렌츠 書記長, 11.25)

- 현실에 맞지 않을 뿐 아니라 양독관계를 불편하게 만들 소지가 있다.

(東獨政府代辯人, 11.28)

2) 美 國

콜수상의 제안은 통일을 바라는 서독인들의 깊은 열망에 부합하는 것이다. 콜총리가 자신의 구상을 제안한 것은 우려될 만

한 일이나 통일을 위한 청사진은 아니며, 일고 있는 급속한 변화에 대한 일괄적 접근이다.

(마거릿 터트와일러 國務省 代辯人, 11.28)

3) 蘇 聯

우리는 최근에 진행중인 동독의 개혁을 민족주의 방향으로 유도하고 규정하려는 일련의 시도로 알고 있으며, 콜총리는 동독의 입장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행동하고 있다.

(유리 그레미츠키크 外務省 代辯人, 11.29)

4) 나 토

독일을 궁극적으로 통일하자는 콜총리의 제안은 유럽 장래에 대한 나토측의 전망과 부합하는 것이다.

(만프레드 뵘르너 나토 事務總長, 11.28)

3. 評 價

- 今番 콜總理의 統一方案은 時期的으로 베를린장벽 개방이후 주변 강대국에게 공식적으로 統獨問題를 呼訴한다는 점에서 주목을 끌고 있음. 즉,
 - 미테랑 大統領의 콜總理를 앞지른 東獨訪問(12월중) 및 EC 頂上會談 소집 등 強大國의 獨逸 分斷固着化를 예방하기 위한 先制提議
 - 12월 2-3일간 개최되는 美·蘇頂上會談에서 논의될 獨逸問題의 해결방안을 제공하고 西獨總理의 統獨意志를 內外에 闡明

—이달 14—15일로 내정된 東獨 共產黨 特別全黨大會에서 懸案으로 浮刻될 統獨問題에 대해 西獨 當局의 公式方案 提示

- 결국 「獨逸國家聯合」을 통한 「獨逸聯邦」統一을 推進하겠다는 금번 方案 발표는 내년 西獨總選을 겨냥한 콜總理의 對內用 政治戰略도 내포되어 있는데 어쨌든 東獨과 이미 「合意」했을 가능성도 엿보여, 향후 周邊國들의 拒否感과 어떻게 조화를 이루어나갈지 주목됨.

資 料

- 北韓 개방저해요인과 향후전망
- '89년도 北韓 경제추진현황과 평가
- 북한 군사력 증강내용 분석평가
 - 노동당 44년의 足跡
 - 최근 귀순자 주요진술내용
 - 소련기자 訪韓記
 - 韓, 蘇관계의 현황과 전망
- 韓國, 폴란드 修交관련 반응종합

資 料

북한의 개방저해요인과 향후전망

현대사에 있어 北韓의 金日成만큼 1인장기독제를 유지하고 있는 나라는 지금 아무데도 없다. 독재자들의 말로가 대부분 비참하게 끝났지만 김일성의 경우 그의 종말을 비극적으로 예견하고 있는 사람은 거의 없는것 같다.

이것은 北韓이 지난 44년동안 철지한 폐쇄정책을 견지했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그럴 가능성이 많다는 데에 기인하고 있는 것이다. 공산주의 역사가 시작된 이후 불과 70년밖에 되지 않는 데 금세기를 채 넘기기도 전에 공산주의 사회는 지금 격동의 전환기를 맞이하고 있다.

공산중주국인 소련을 비롯한 동구국가들이 「개혁과 개방」의 진통을 겪고 있는데 과연 北韓이 여기에 어느정도 호흡을 같이 할 것이냐 아니면 지금과 같은 폐쇄체제를 고수할 것이냐 하는 것은 중요한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으면서도 쉽게 판단을 내리기 어려운 문제가 되고 있다.

北韓사회의 개방가능성 여부는 긍정적 요인과 부정적 요인 및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요인) 등을 비교고찰함으로써 가능할 것이냐 무엇보다도 北韓의 체제적 특질이 개방을 저해하는 제1의 요소가 될 것이다.

北韓체제의 특질을 한마디로 설명한다면 공산주의의 일반적 속

성이라 할수 있는 1당독재의 「전체주의」와 人本경시의 획일주의가 사회를 지배하고 있으며 여기에 첨가하여 北韓사회는 여타 공산주의 국가들과는 다른 그들 특유의 독재이데올로기로서의 이른바 「유일사상체계」와 권력세습체제가 구축되어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다시말해 北韓사회는 전체주의 바탕위에서 세습적 권력체제가 着根됨으로써 권력중심부의 기득권 보호와 함께 새로운 사회·정치관계의 발생 및 변동을 억제하고 있고 이것이 개방화추진의 가장 큰 장애요인이 되고 있는 것이다.

학자들에 의하면 北韓사회변동요인으로 ①혁명이데올로기 ②김일성의 퍼스널리티 ③사회체제의 기능적 분화 ④외부환경요인 등이 지적되고 있는바 ③·④의 요인이 脫전체주의방향으로 갈 때 변동의 가능성이 있으나 ①·②의 요인이 주도적인 작용을 할때는 전체주의 정치양식에 변화가 기대되기 어렵다는 것이다.

어쨌든 北韓사회체제개방을 저해하고 있는 절대적 요인으로서 金日成을 핵으로 한 현권력층의 「체제위기의식」과 소위 「남조선 해방」논리의 대남폭력혁명노선을 들지않을 수 없다. 이외에도 北韓이 소위 「자력갱생」을 외치면서도 지나치게 「중·소의존적경제구조」에서 아직 헤어날 수 못하고 있는 것도 부수적인 하나의 요인이 될 것이다.

먼저 北韓의 체제위기의식은 최근 동구의 탈전체주의경향과 그들 내부의 세습체제에 대한 저항에서 비롯된 것이다. 모든 메스미디어와 정보의 독점, 경제의 중앙집중통제, 경찰국가적 사찰통치 등 北韓이 1당독재의 전체주의 특성을 잘 유지하고 있는데 최근 중국사태나 동구개혁에서 나타난바와 같이 北韓의 개혁·개방은 그

들. 전체주의체제의 이완을 초래하는 위험을 안게되는 것이다.

北韓은 동구의 대변혁이 탈전체주의흐름을 타고 있다는데서 이것이 궁극적으로 北韓내부에 과급되어 세습체제에 해독을 끼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다음으로 그들의 체제위기의식을 불러일으킨 중대한 또 하나의 요인은 권력승계의 정통성 문제이다. 특히 공산세계에서 그 유례가 없는 김일성-김정일세습체제에로의 이행과정에서 반체제세력의 저항 및 이것의 잠재화가 北韓사회개방을 더욱 어렵게 하고있는것 같다. 北韓의 「主體이데올로기」, 즉 金日成의 「주체사상」이 최근에 들어 「혁명과 건설」이라는 구호에서 보다는 부자세습을 미화분식하는 이른바 「主體의 血統」승계론을 내세우는데 쓰여지고 있다는데서 그들체제내부의 갈등과 대립·반목이 심각한 양상으로까지 전개되었음을 간파할 수 있는 것이다.

특히 이와 관련하여 본다면 지난 8.17일자 로동신문에서 「주체의 혈통을 옹호·고수하고 빛내어 나가는 우리당」이란 제하의 논설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즉 『노동계급의 당의 혈통에 있어 기본은 주체사상과 이론』이며 이 『혈통계승에서 金正日의 업적은 그것이 가장 순결하게 이어지도록 한것』이라고 역설하고 『金正日이 전당적인 투쟁으로서 우리당의 혈통에 온갖 잡탕을 뒤섞어 놓으려던 온갖 이색적 사상조류를 극복·청산하도록 함으로써 주체의 혈통에 순결성을 철저히 보장하도록 했다』는 것을 특히 강조했다.

이 논설이 시사하는 바는 北韓의 반세습움직임이 있었다는 것과 金正日이 이를 진압했다는 두가지 사실을 동시에 명백히 해준 것

이라고 하겠다. 그런데 이 논설은 이어 金正日의 권력승계와 관련하여 이전보다 아주 노골적이며 직접적인 표현을 하고 있는데 즉 『혈통의 계승성은 수령이 이룩한 혁명의 재부를 발전·풍부화하는 과정에서 확고히 담보화된다고』고 전제, 『혈통의 내용은 수령의 지위를 계승한 후계자의 지도밑에 발전·풍부화되면서 굳건히 다져진다』라고 함으로써 金正日의 세습사실을 명백히 밝히고 있다.

이와같이 주체사상, 「주체이데올로기」는 혁명과 건설이라는 미명하에 金日成의 영구적 독재이데올로기로, 또한 권력세습이데올로기로 발전, 둔감해 왔는데 이에 따른 체제의 경직화와 사회통제 강화는 결과적으로 체제위협을 자초함으로써 개방의 문을 열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비록 일당독재의 공산주의체제라고 하더라도 당내 민주주의의 실현등 당의 체질개선없이 독선적이며 교조주의적인 하향식 통치양식에 대해 만성적인 반감이 누적되어 있고 사회의 균형적 발전을 저해하는 제반사회통제의 제도적 장치강화로 주민불만을 잠재화시키고 있으나 여기에 조그만 틈이라도 생겨 결정적인 계기가 조성될 때는 반체제저항의 표출이 더욱 증폭될 것이다.

한편 北韓체제개방의 두번째 저해요인으로는 그들의 남조선혁명노선, 즉 「인민민주주의혁명」 전략을 들 수 있다. 민족해방인민민주주의혁명이란 한국어 『미제의 강점하에 있는 식민지이기 때문에 남한을 해방』시켜야 한다는 것과 해방의 성취는 전쟁이나 또는 폭력혁명의 방법으로 달성한다는 것이다.

이것이 그들이 말하는 남조선해방론이요, 통일의 평화적 방도,

즉 「혁명」이라는 것이다. 北韓의 이같은 「남조선혁명」 노선은 北韓치하의 통일 곧 적화통일의 망상에 기인된 것으로 민족과 통일, 그리고 南北관계의 모든 문제를 계급투쟁의 관점에서만 해결하려고 하며 따라서 그들의 혁명노선은 독재체제강화의 명분을 제공하는데 결정적인 기여를 하고 있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北韓의 체제와 강경혁명노선은 통일연장선상에 있을뿐만 아니라 상호보완관계에 있기 때문에 노선의 후퇴 내지 완화는 곧 체제의 붕괴위기를 맞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

아 물론 北韓의 변화와 개방을 가로막는 것으로는 체제위기 특히 권력세습을 위요한 정통성 위기의식과 남조선해방 및 독재명분의 혁명투쟁노선이 가장 중대한 요인이 되고 있음을 재강조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동서냉전체제의 와해와 더불어 東歐의 개혁·개방이 가속화됨으로써 北韓의 주변환경변화와 그들내부의 경제궤박 및 金日成의 노쇠현상 등은 北韓의 개방을 촉진할 요인이 되고 있다 할 것이다. 비록 성과는 부진하지만 80년대 중반이후 외국과의 합영 사업을 적극 시도하고 있고 관광산업개발에도 열을 올리고 있으며 특히 최근년에 와서는 경공업의 발전을 도모하면서 대외종교활동도 벌이는 등으로 北韓의 개방화노력과 이미지쇄신을 꾀하고 있다.

北韓의 이같은 시도와 노력은 아주 국소적(局所的)인 것으로서 현단계에서 볼때 결코 이것이 개방의 시작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다만 중·장기적 시각에서 볼때 소련의 개혁정책과 北韓의 권력이양 완성이 개방추진의 중요 모멘트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앞서 언급한바 있지만 소련의 대북한경제협력방식의 전환

노력(국가간 지원형태에서 기업간 거래형태등) 등으로 볼때 北韓도 대소의존적 경제의 이탈이 불가피해질 경우에는 대외경제개방화를 추진하지 않을수 없게 될 것이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北韓의 사회체제개방이라는 보다 넓은 의미에서 본다면 전반적이며 본격적인 개방화추진은 곧바로 그들의 정치체제에 영향이 파급될 것이므로 기대불가능하며 단지 金日成이후의 후계체제에 극적인 변혁이 없는 한 金正日권력의 안정과정에서 어느정도 변화를 기대해 볼수 있을 것이다.

요컨대 北韓의 개방화는 金日成의 유일적 독재체제와 金正日에의 세습적 권력체제에 손상이 가지않는 범위에서 아주 점진적이며, 그리고 단계적으로 진척될 것이라고 보아 크게 무리는 없을것 같다.

(내외통신 660호, '89.10.6)

'89년도 北韓의 경제추진현황과 평가

金日成은 연두에 발표된 新年辭를 통해 올해의 경제정책기조로서 「올해를 경공업의 해로 정하고 순천비날론공장과 사리원카리 비료공장을 빨리 완공시키며 공작기계공업과 전자자동화공업을 발전시켜 나갈 것」을 내세웠고 이어 「평양에서 열리는 제13차 청년학생축전에 찾아오는 대표들과 손님들을 사상과 신앙, 인종과 민족에 관계없이 맞이할 수 있도록 온갖 조건과 편의를 보장해 주어야 한다」고 했다.

金日成이 제시한 금년도 경제정책방향은 크게 두가지로 구분되는데, 하나는 北韓政權 수립이후 처음으로 경공업의 해로 지정, 人民消費品 생산증대를 내세우는 한편 당면한 경제과업중에서 시급히 해결하지 않으면 안될 공작기계와 전자자동화공업분야의 육성등 극히 축소된 경제개발계획을 추진하겠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소위 「평양축전」이라 불리우는 대규모 국제정치행사 준비와 성공적 개최를 위해 온갖 역량을 경주하겠다는 것이다.

지난 4월 7일 최고인민회의에서 의결된 금년도 예산에서도 金日成의 방침을 뒷받침하기 위한 것으로 편성되었는데, 그 내용은 기계공업분야에 전년비 16%의 투자 증액, 경공업분야에 13% 증액으로 나타나 있다.

예산보고서상에 나타난 금년도 北韓의 경제과업은 예산의 증액,

구체적 사업제시등 과거에 비해 다소 활기를 띄고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이미 마련된 경제적 토대를 최대한 이용하고, 절약투쟁으로 내부축적을 이룩하며, 앞으로 2천일전투, 2만일전투를 전개해야 한다」고 하는등 투자의 뒷받침 없이 과업을 추진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이처럼 北韓은 금년도 경제과업을 매우 의욕적으로 제시는 했으나 실질적인 투자가 따르지 못해 경제운영방향은 기존시설의 최대한이용, 근검절약투쟁으로 연료, 원료의 최대한 활용, 2백일전투와 같은 노력동원 극대화에 들 것임을 밝혔다고 볼수 있다.

北韓이 금년도 경제건설부문에 실질적인 투자를 할 수 없는 가장 큰 요인은 金日成이 신년사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평양축전」준비와 행사를 치루는데 자금과 자원을 우선적이고 집중적으로 배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각종 자료에 의하면 평양축전에 소요된 경비는 직접, 간접경비를 포함해 총 47억불에서 50억불이라 하는데, 北韓은 이 엄청난 경비를 불과 2년간에 집중 투자한 것으로 나타난다.

이 금액은 지난해 北韓총예산에서 17%, 올해 예산에서 16%를 차지하고 있는데, 여기에 투자된 자금의 대부분은 경제개발에 투자될 人民經濟費에서 지출된 것이다.

따라서 금년도 北韓의 경제개발은 자금의 절감 또는 대폭 감축범위내에서 할 수밖에 없고 긴급을 요하는 사업이 아니고서는 거의 유보시킬 수밖에 없었다고 생각된다.

특히 제 3차 7개년계획에서 제시했던 대규모 신규건설사업은 보류되거나 축소될 수밖에 없었고 이미 공사가 추진중인 사업의 마

무리작업에만 전념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금년도 北韓이 내세우고 있는 경제성과로서는 공업부문에서 지난 84년도에 착공된 순천비날론연합기업소의 제 1 단계공사가 완료되어 연간 5만톤의 비날론을 비롯하여 비료공장 20만kw급 화력발전소가 가동에 들어갔다는 것이고 그 다음으로는 역시 84년 4월에 착공된 연산 2백만톤의 시멘트 생산능력을 가진 상원시멘트공장이 완공된 것이다.

그 외에도 南興청년화학연합기업소에 저압 폴리에틸렌, 프로필렌·그리콜, 신발창고무, 유기유리 등을 생산할 수 있는 합성수지 생산기지가 조성되었고 함흥에 연간 3천여톤의 제초제를 생산할 수 있는 농약공장이 조업에 들어갔으며 평남 평성시에 모내는 기계, 농약살포기등 10여종의 농기계를 생산하는 현대화된 농기계공장의 완공, 함흥 전기기구공장내 수치조정장치를 생산하는 분공장 건설, 강선제강연합기업소에 1만톤급 프레스설치, 김책제철소 2단계공사 완공, 승리자동차공장의 생산능력 2배제고를 위한 대대적인 확장공사가 착공되었다고 한다.

농업부문에서는 서해갭문에서 평남 간척지에 연결되는 2백여리의 관개수로공사가 완료되었고 황남 서해지구에 농업용수를 공급하기 위한 6백여리의 대단위 관개공사가 착공되었으며, 연초부터 충성의 모범농장 창조운동을 전개, 식량생산에 모범을 보인 1백 50여개 협동농장에 모범농장 칭호를 수여하는등 성과가 있었다고 선전하고 있다.

수산부문에서는 지난 9월초 바다를 접하고 있는 모든 도와 군은 양식사업을 추진하여 수산물을 생산토록 하라는 지시에 따라

양식에 필요한 각종 장구를 갖추었다고 했고 발전능력을 높이기 위해 평성시에 10만kw급 화력발전소, 김책시에 20만kw급(추정) 화력발전소 건설공사가 착공되었다.

교통운수부문에서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상당한 성과를 거둔것으로 발표되고 있는데, 그 대표적인 것은 다음과 같다.

철도부문에서는 나진과 청진간 1백km구간을 소련의 광궤철로와 북한의 표준궤로를 동시에 부설하여 북한열차와 소련열차가 다같이 운행할 수 있도록 한 철도혼합선공사가 완공되었고 평남 온천에서 서해안을 따라 숙천에 이르는 온천-남동간 80km의 서해안 순환궤도가 착공되었으며 함남 단천에서 만덕에 이르는 65.5km 철도구간이 전철화되었다.

도로건설에서는 지난 6월 24일 원산에서 금산에 이르는 구간거리 114km의 고속도로가 개통되었고 평양에서 자강도 회천에 이르는 120여km의 새로운 고속도로공사가 착공되었으며 하천운수에서 대동강상에 여객선과 화물선이 처음으로 운항하게 되었다고 한다.

금년도 北韓의 경제과업중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은 평양축전을 대비한 관광분야의 시설증대이다.

대표적인 것으로는 금강산관광의 관문인 원산시가 지정비와 원산역사의 신축인데, 원산역사는 8각형의 웅장한 건물에 도서열람실, 식당, 청량음료점, 여객대기실, 공중전화시설까지 갖추었다고 선전하고 있고 백두산 천지를 관광하기 위해 1백명이 승차할 수 있는 지상궤도식 열차를 설치하고 있으며 백두산 일대의 관광관문인 혜산시를 대대적으로 정비했고 대성산유원지를 크게 확장했으며 신의주市の 부분개방을 위해 신의주에서 압록강 하류의 유초도간

1천 2백 m 에 달하는 현수교를 건설했다고 한다.

그외에도 「평양축전」이 개최되는 평양시가의 대대적인 정비와 1백 5층 유경호텔을 비롯한 호텔 및 각종 편의봉사시설만도 86만여 m^2 나 건설했다고 한다.

금년도 北韓의 대외경제활동은 공산국가와의 연례적 경제과학의 정서 조인을 제외하고는 소련과의 합작사업, 이란과의 관계 개선이 있었고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재일조총련과의 합작사업이다.

올해에 있었던 대표적인 합작사업은 소련과 경공업제품 공동생산을 추진하여 금년초 공동으로 생산하는 업체가 1백여개 달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생산된 제품중 매달 의류 5백만점, 신발 25만 쥘레를 소련에 수출하고 있다고 모스크바방송을 통해 보도했고 UN-DP와 버섯생산 기술개발비로 향후 2년간 35만불을 지원받기로 합의했으며 조총련과는 자전거, 오토바이, 칼라 TV, 전자계산기 등을 생산하는 신흥합영회사, 각종 의료장비를 생산하는 명진합영회사, 각종 포장지를 생산하는 평양포장제합영회사 등을 가동시켰다.

금년도 北韓의 경제시책중 특이한 것은 「평양축전」개막을 앞두고 北韓의 노동자, 기술자, 대학생, 전문학생에 1백%의 특별상여금을 지급한 것인데, 이는 68년도와 74년도에 이어 세번째로 지급된 보너스인 것이다.

금년도 北韓經濟는 「평양축전」으로 인한 투자자본 부족, 인적 및 자재 장비의 비생산부문 집중동원 등으로 어렵게 꾸려간 한해였으나 지난해에 이어 농업부문의 풍작, 서비스부문 및 건설부문의 성과에 힘입어 그런대로 현상유지는 되었던 것으로 보여진다.

특히 평양축전을 전후하여 수만명의 외국인이 北韓을 방문함으로써 그 어느해보다도 많은 무역외 수입으로 상당한 외화획득이 가능했고 「평양축전」자금지원 명분으로 중·소로부터의 지원과 조총련의 자금지원이 北韓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었던 것으로 평가된다.

그간의 北韓 발표와 여러가지 자료를 종합할 때 올해 北韓의 經濟成長率은 지난해의 3%보다는 다소 상회했을 것이라 생각된다.

(내외통신 667호, '89.11.24)

北韓 군사력 증강내용 분석평가

1. 英國 國際戰略問題研究所 (IISS)의 北韓軍事力 再評價

○ IISS는 최근 刊行된 同研究所의 報告書 『the Military Balance '89 - '90』에서 다음과 같이 北韓의 軍事力을 再評價하였음.

〈北韓軍 戰力變動 內容〉

	區 分	Military Balance '88-'89	Military Balance '89-'90	增 減
總兵力	현 역	842,000	1,040,000	+198,000
	예비군	5,540,000	5,540,000	
陸 軍	병 력	750,000	930,000	+180,000
	사단 (보병 / 기계화)	26	31	+ 5
	예비전력 (사단수)		26	
	주력전차	3,000	3,200	+ 200
	장갑차 (APC)	1,400	1,600	+ 200
	견인포 (문)	1,600	1,900	+ 300
	자주포 (문)	2,300	2,800	+ 500

	區 分	Military Balance '88-'89	Military Balance '89-'90	增 減
陸 軍	대공포(문)	9,000	8,000	
	지대지 미사일(기)	69	69	
	지공대 미사일(기)	176	176	
海 軍	병 력	39,000	40,000	+1,000
	잠수함	21	23	- 2
	주력전투함	2	2	
	초계함 연안전투함	365	363	- 2
空 軍	병 력	53,000	70,000	+17,000
	전체 전투기	800	650	- 150
	무장헬기	80	115	+ 35

2. 分 析

○同報告書의 北韓군사력 評價內容은 今年초 Washington Post 紙(1.26)의 美 CIA·DIA평가자료 引用報道에 근접한 數値로 써 近刊될 韓國의 『國防白書 '90』의 內容과도 大동소이함.

※ 國防部는 '89년 현재 北韓의 總兵力을 98萬名으로 평가하고 있음.

○同報告書의 特異事項

- 既存戰鬪部隊의 現역병력의 增加
- 主力戰車·裝甲車 등 기갑장비의 增加
- 견인포, 자주포 등 車輛化·機械化된 장비의 增加

—전체 戰鬪機 수 減少

- 同報告書에 의하면 北韓은 여전히 韓國에 비해 總兵力에서 1.6 배, 師團數에서 1.5 배, 主力戰車數에서 2.1 배, 對空砲에서 13.3 배, 미사일에서 5.8 배, 沿岸艦艇에서 4.6 배, 각종 戰鬪機에서 1.5 배의 優勢를 보이고 있음.

3. 評 價

○國防部 評價

—北韓은 後方豫備師團을 소규모 부대로 再編성한 후 機械化·車 輛化하여 前方 각 師團에 分散配置 하였음.

—이로써 초래된 脆弱豫備師團을 補強하는 과정에서 總兵力이 增加한 것으로 평가함.

○일부 專門學者 評價

—인공위성에서 捕捉된 主力戰車 및 機甲車의 증가를 兵力增加로 換算한 경우, 同兵力數가 算出될 수 있음.

※ 현재 北韓은 速度戰을 위해 輕步兵化와 部隊 규모를 縮小하고 部隊 單位를 늘리는 趨勢이며,

※ 北韓의 人口規模나 豫算 및 動員計劃上 급격한 兵力增加에 대해서는 보다 구체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음.

- 綜合적으로 評價해 볼때 北韓은 奇襲戰 能力을 向上시키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機動力強化에 계속 박차를 가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專門家들의 견해가 일치되고 있으며, 北韓이 裝備의 現代化 및 각종 戰鬪部隊의 効率的인 增·改編을 통해 軍事力에서의 對南優位立場을 계속 堅持해 나가려는 것은 확실한 것으로 판단됨.

노동당 44년의 足跡

北韓의 역사는 곧 김일성 1인독재 확립과 그것의 세습체제 구축의 역사이다. 또한 그것은 「조선로동당」당사와 표리일체를 이루고 있다. 그러나 공산주의운동의 이론적근거는 어디까지나 마르크스·레닌주의이다. 따라서 北韓공산주의자들도 1945년 8.15해방 두달후인 10월 13일 공식적으로 당창건(조선공산당북조선분국)을 표면화한 이후 초기에 있어서는 마르크스·레닌의 공산당조직이론에 일반적으로 충실하였다.

그것은 1946년 8월에 제정한 노동당규약에서 『조선로동당은 마르크스·레닌주의를 자기의 활동지침으로 삼으며… 마르크스·레닌주의의 일반적 원리를 조선혁명의 실천활동에 창조적으로 적용한다…』고 하여 마르크스·레닌주의가 당건설의 사상적 기초임을 명시하고 있는데서도 알 수 있다.

이는 8.15 후 소련의 北韓지역 소비에트화과정의 필요에 의해서 탄생된 피조물로서의 北韓공산당의 성격을 극명하게 드러내 주고 있는 면이기도 한 것이다. 따라서 北韓공산당은 전세계 어느지역 공산당보다도 마르크스·레닌주의를 교조적으로 수용하고 소련에 맹종할 수 밖에 없었다. 北韓공산주의자들(특히 金日成)이 당창건 초기에 소련에 어느정도로 맹종했던가는 다음과 같은 간단한 예에서도 알 수 있다.

1947년 2월 19일 북조선인민회의 대의원대회에서 金日成의 제의

로 스탈린에게 보내는 다음과 같은 감사문이 채택되었다.

『평화와 안전을 갈망하는 전인류의 태양이시며 불의와 침략에 빠져 암흑속을 헤메던 인민을 광명의 세계로 오르게 하신 稀世의 후원자 스탈린 대원수시어! 일본제국주의에 야만적 학대와 절대 절명의 고통으로 신음하던 우리인민들은 천추만대에 길이 빛날 소비에트군대의 위대한 공훈으로 재생의 길에 오르게 되었으니 그 감사와 은덕이야 무엇으로 이루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이 대회와 력사적 과업과 사명수행에 있어서 전세계 민주주의 진영의 強固한 城壘인 소련의 절대한 방조가 길이 계속되기를 충심으로 바라마지않는 바입니다… 이 땅의 松栢이 사시로 푸르러있고 놈들이 찍어버린 무궁화그루에서 벌써 새싹이 터서 꽃이 피려 하거늘 우리인민과 소련인민의 친선에 대한 굳은 신념은 영원히 시들줄을 모를 것이며 기여코 꽃피고야 말 것입니다. 우리는 빛나는 이 대회를 성공적으로 마치면서 수륙 기만리를 격한 크레몰린에 계신 絕世偉大하신 당신의 꺾가에 동방의 어린 민주조선이 울리는 우렁찬 讚歌가 높이 울릴 것을 무상의 영광으로 생각하오며 인류의 행복을 위하여 당신께서 길이 만수무강하시기를 우러러 바라나이다. 전 인류의 태양이신 당신에게 무궁한 영광이 있으사이다』(북조선로동당 북조선인민위원회대회 중요문헌집. 1947년. 평양. 213면).

또한 김일성은 스탈린의 장례일(1953. 3. 9)에 발표한 「위대한 스탈린동지는 자유와 독립을 고수하는 인민투쟁의 고무자이다」라는 글에서 문학적 수식어까지 동원, 이렇게 말하고 있다.

「조선의 자연까지도 이 인민의 슬픔에 머리숙이고 있는듯하다.

하늘은 슬픔의 암운에 감싸여있다. 맑고 반짝이는 눈물처럼 인류의 천재의 죽음에 슬피하는듯이 하늘에서는 비가 쏟아지고 있다. ……조선인민의 생활속에서 가장 고귀하고 가장 뛰어난 것은 모두 스탈린동지의 이름과 결부되어 있다. 스탈린동지는 압록강과 38도선 이북에 사는 조선인민의 모든 가족의 육친이 되고 있다 ……』(노동신문 53.3.9). 치사할 지경의 아부굴종의 작태라 아니할 수 없다. 여기서 우리는 초기 北韓노동당이 어느 정도로 소련에 경사하고 있었던가를 알 수 있다.

한편 8.15 후 북한점령소련군은 민족자결에 관한 레닌적 원칙에 충실한 해방군이라고 자처하면서 『조선은 자유국이 되고…… 소련군대는 조선반도에 소비에트질서를 설정하거나 조선지역을 얻으려는 그런 목적을 가지지 않았다……』(조선중앙연감, 평양, 1949년, 57~58면)고 하여 소련군대는 피압박민족의 해방을 위해 北韓에 진주한 것 처럼 공포하였다. 또한 소련은 국제관계와 그나라 국민적 저항을 고려하여 자고로 피점령국가에서 공산주의 또는 사회주의라는 용어를 엄격히 피하고 민주주의라는 용어를 사용했는데 北韓에서 소련군이 지원한 것은 물론 마르크스·레닌주의적 민주주의였다. 金日成도 『북조선에서는……소련군대가 진주함으로써 조선인민에게 민주주의적 발전의 가능성과 조건이 주어졌다……』(김일성전집, 권 1, 1952년, 18면)고 하여 소련군의 역할인 소비에트화정책을 공공연히 시인했다.

이와같이 소련군은 레닌적 민족자결원칙에 입각하여 피압박민족 해방이라는 구실과 위장된 민주주의의 실현이라는 명목아래 北韓내에 소비에트화정책을 실천에 옮겼으며 사회주의를 영도할 수 있

는 카리스마적인 리더십을 육성하기 위해 소련당국에 가장 잘 순종할 수 있는 金日成을 지도자로서 대중앞에 부각시키고 우선 초당파적 입장을 취하게 함으로써 대중적 명망을 얻도록 노력하는 한편 배후에서는 권력의 핵심인 공산당을 조직하는데 전심하도록 하였다.

결국 소련군의 계획적인 지원으로 공산주의세력이 민주주의세력을 제압하고 소수로부터 다수로 전환하게 되자 소련군은 김일성일파로 하여금 1945년 10월 10일 평양에서 「조선공산당 북조선 5도당책임자 및 열성대회」를 소집케 하여 『혁명과업의 성과적 수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마르크스·레닌주의 당조직원칙에 입각한 혁명적당을 창건해야 한다』고 제의함으로써 「조선공산당 북조선분국」을 창설하여 공산주의운동을 본격화하고 대중에 의한 이데올로기의 주입에 박차를 가하게 되었다. 그리고 10월 10일을 당창건일로 제정, 오늘에 이르고 있다. 따라서 올해(89년) 10월 10일은 당창건 44주년이 된다.

50년대 중반까지 金日成은 北韓에서 당과 군창건, 그리고 중앙정권기관의 수립과 운용에 있어 이른바 소련 2세파, 국내파, 연안파 등 다른 혁명그룹과 통일전선노선을 택했다. 따라서 48년 8월 「신민당」(연안파)과 합당, 「북조선공산당」을 「북조선로동당」으로 당명까지 개칭하고 49년 7월 「남조선로동당」(국내파)과도 합당, 당명을 다시 「조선로동당」으로 바꾸었다. 국내에 토착, 정치기반을 갖지 못했을뿐 아니라 정치적으로 미숙한 金日成으로서는 불가피한 일이었다. 그에겐 다만 스탈린의 신임과 후원만이 유일한 힘이 되었을 뿐이다.

그러나 그후 그의 6.25 남침전쟁이 참담한 실패로 끝나고 56년

소련공산당 20 차대회에서 흐르시초프가 스탈린을 격하하고 평화공존론을 제창함으로써 중·소대립이 노골화되면서 金日成은 6.25 이후 가장 심각한 위기에 직면했다. 그러나 그는 소련과 중공의 자신에 대한 견제가 느슨해진 틈을 타서 전격적으로 내부의 정적들을 종파분자로 몰아 대량 숙청, 정치적 위기를 극복했다.

金日成은 중·소이념분쟁이 격화된 틈바구니에서 66년 8월 이른바 『자주성을 옹호하자』는 기치를 내걸고 중·소분쟁에서 중립을 지킬 것을 선언, 『사상에서의 주체, 정치에서의 자주, 경제에서의 자립, 국방에서의 자위』라는 이른바 「자주노선」을 천명했다. 동시에 각국 공산당간의 주종관계는 있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70년 11월의 당 5 차대회에서는 당의 지도사상으로 마르크스·레닌주의와 함께 金日成주체사상을 동시에 규정, 당은 두가지 지도사상을 갖게 되었다. 사실 北韓노동당은 그 정권형성과정과 정치적배경, 경제적 여건, 지리적 조건 등으로 해서 독자노선을 추구할 수가 없다. 그럼에도 굳이 자주노선을 표방하는 이유는 첫째 중·소분쟁의 틈바구니에서 벗어나 행동의 자유를 얻어 등거리 외교를 지향하고, 둘째 중·소를 비롯, 세계공산국가들의 北韓의 1인독재와 개인우상화정책에 대한 시비를 배제함으로써 마음놓고 김일성 권력세습기반을 구축하고, 세째 대남관계에서 자주노선의 원용(과시)등을 노린 것이라고 할 수 있다.

80년 10월 北韓은 노동당 6 차대회에서 70년대이후 당규약의 장식품에 불과했던 마르크스·레닌주의를 마침내 떼어내 버리고 金日成주체사상만이 당과 국가의 유일지도사상이라고 공식적으로 못박았다.

이는 바로 북한노동당의 김일성私黨化가 완성되었음을 선언하는 의식에 다름아니었다.

따라서 당초 소련의 필요에 의해서 탄생을 본 북한노동당의 44년사는 결국 金日成의 사당화의 역사라고 할 수 있다. 앞으로 멀지 않아 열릴 것으로 예견되는 당 7 차대회는 金日成 사당화 이후의 업적을 선전하고 세습후계체제의 안전도를 재점검하는 토론과 연설장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내외통신 662 호. '89.10.20)

최근 귀순자 주요진술내용

금년 4월이후 北韓을 脫出, 歸順해 온 北韓住民은 현재까지 9명에 이르고 있으며, 다음 내용은 이중 9월중순까지 歸順한 5명의 合同訊問調書를 入手한 내용임.

1. 歸順者 人的事項 및 歸順動機

姓名	生年月日	歸順日時	歸 順 動 機
양희백	'66.7.29	'89.4.2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成分 不良 家族에 대한 差等 대우 및 自身の 將來處地 불안 * '87.2. 北韓脫出 中國經由 歸順
정영철	'70.9.28	'89.8.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화사건으로 生活除隊 및 노동연대 追放憂慮 • 평소 問題下戰士로 취급받는데 대한 不滿
고운기	'50.7.6	'89.8.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北韓 政治體制에 대한 幻滅 및 自由憧憬

姓 名	生年月日 歸順日時	歸 順 動 機
		<ul style="list-style-type: none"> • 妻의 不倫關係 및 家庭不和 深化 • 모잠비크 흑인여자와 不倫關係 發覺으로 소환우려 * 모잠비크駐在 通譯員 在職中 歸順
리기영	'66.8.22 '89.8.2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成分不良으로 入黨 및 軍官學 校 入校 挫折 • 窃盜者로 지목, 監視 對象者로 分類
서영철	'64.8.26 '89.9.1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不倫關係 노출, 부화관계 허위 자백 강요등 處罰 우려와 不 滿 • 生活除隊 대상자 名單에 포함 된데 대한 不滿

2. 歸順者 陳述 主要内容

가. '92년에 金正日에 權力 移讓

- 金日成은 出生 80들이 되는 92年度에 모든 權力과 職務 를 金正日에게 移讓하고 조용하게 여생을 보낼 것이라 함

나. “金正日 따라 배우기 운동” 展開

- '89.4.15, 金日成이 “黨中央委 組織秘書에 내린 敎示” 와 同年 4.22-24 日間 政務院會議의 결의에 따라 “金正日 따라 배우기 운동” 을 전지역에서 全住民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음.

다. 北韓全域에 『外貨 바꿈돈』 僞造 盛行

- '87年初 부터 北韓은 外貨와 바꿀 수 있는 『外貨 바꿈돈』 을 발행, 外貨商店 등에서 사용케 하였던 바, 同僞造貨幣로 商품을 구입하다 적발되는 사건이 빈번히 일어나고 있음.

라. 金正日, 해외주재 大使館員에 外貨벌이 指示

- '80년경 金正日의 “忠誠의 外貨벌이 사업에 대한 指示” 에 의거 각 大使館 經濟參事는 忠誠의 外貨벌이를 위해 外製時計·술 등을 주민들에게 판매하고 그 실적을 對外經濟事業部에 보고토록 하였으나 '84년말경 여러가지 부작용으로 外貨벌이 사업을 중단시켰다고 함.

마. 한국자동차와 同型的 자동차생산

- 한국 자동차보다 우수한 자동차를 생산하라는 金正日 지시에 따라 勝利自動車 公장에서 현재 한국자동차와 같은 형의 자동차 생산을 위해 연구중이라 함.

바. 회령地域에 「朝·蘇 合作 피복공장」 설립

- '84년이후 함경북도 회령에 朝·蘇合作 「피복공장」 을 설립하였는 바, 蘇聯이 공장설립, 피복생산 원료 등 모든 原資材를 提供하고 北韓은 노동력만 제공하였다 함.

사. 人民軍內 南韓노래 歌唱禁止 指示

- 北韓에는 平壤集會時 임수경의 入北을 계기로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란 노래가 유행되었음.
 - '89.9 人民武力部 總政治局은 이 노래의 곡조나 가사 내용이 은은하고 감상적이며 人民軍隊의 紀綱이 해이해질 수 있는 非戰鬥的 노래라 하여 歌唱禁止를 全軍에 지시 하달하였음.
- 아. 在美僑胞의 재북 친척 訪問에 대비한 措置 實態
- '89.8 在美僑胞가 개성시 개포군 所在 동생집을 방문함에 따라 '89.7부터 中央黨指示로 里人民委員會에서 지역전주민을 동원, 집수리 및 주변환경정리를 실시
 - '89.7月末 개성시 保衛部에서 在美僑胞 동생부부를 소환, 10일간에 걸쳐 僑胞 방문시의 대화내용 교육
 - 同 在美僑胞 兄의 경우, 주거지를 아파트로 移住, 아파트내에 냉장고, TV, 生必需品 등을 전시
- 자. 平壤市 居住 在日僑胞, 해외출장자 대상 강도사건 頻繁
- 平壤에는 外貨를 노리는 강도사건이 頻繁하여 平壤市 居住在日・在中僑胞, 해외출장자 등은 恐怖에 떨며 생활하고 있다함.

소련기자 「訪韓記」

報 道 要 旨

- 「호랑이가 할 수 있는 일」 제하의 기사가 얼마전에 「꿈소몰스까야 프라우다」 지에 실렸음.
- 지금 南朝鮮을 가리켜 젊은 호랑이라고 부르고 있는데, 南朝鮮의 빠른 성장의 높은 교육수준, 광범한 外資導入과 수출신장, 그리고 조선사람들의 근면성이 결정적 요인이 되었다고 함.
- 지금 南朝鮮은 곤란도 겪고 있지만 이것은 宿命的인 성격을 띠지는 않음.
- 수십년동안 軍事獨裁는 민주주의 제도를 없애려고 했지만, 그 어떤 금지와 탄압에도 불구하고 민주주의적 경향은 竹筍이 콘크리트 관을 솟아 나듯이 자기의 길을 열어 놓았음.
- 蘇聯에 대한 南朝鮮의 관심은 순전히 정신적 성격만을 띠고 있는 것이 아니며, 1985年 貿易額은 1億달러에 이르렀고, 금년 3/4분기에는 1億3千百萬 달러를 넘었음.
- 南朝鮮은 정력적으로 발전하고 있으며, 21세기 초에는 世界5大國에 들어설 것 같음.

(모스크바放送, '89.11.1)

 評 價

- 금번 「모스크바」 우리말 放送이 「꿈소몰스까야 프라우다」紙에 게재된 최근 蘇聯記者들의 「訪韓記」를 인용, 蘇聯記者들의 韓國 各界 人士들과의 면담내용을 소개하면서 國內정치, 경제발전상 등을 肯定的으로 평가하고 있음.
- 이번 論評에서 蘇聯側이 韓國의 학생시위, 노사분규 등 정치·경제정세의 어려움을 지적하면서도 韓國을 「젊은 호랑이」라고 표현하고, 「21세기초에는 世界 5 大國에 들어갈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는 것이 주목됨.
- 이와 같은 蘇聯의 변화는 서울올림픽을 계기로 각계각층 蘇聯人의 韓國방문이 빈번해지자 우리의 實相을 정확히 認識함과 동시에, 韓國에 대한 好意的 感情이 증대되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임.

韓·蘇관계의 현황과 전망

最近 統一民主黨에서는 蘇聯 科學아카데미 산하 世界經濟 및 國際關係研究所 (IMEMO) 所長을 비롯한 12 명의 學者를 招請하여 「韓·蘇關係의 現況과 展望」이라는 題下에 政策討論會를 開催 (89.10.24) 하였는 바, 蘇聯學者 3 人의 發表內容을 要約·報告드립니다.

1. 블라디보스톡宣言 이후 蘇聯의 亞·太外交 戰略 (마르티노프 : IMEMO 所長, 蘇聯科學院 會員)
 - '86년 7월 고르바초프의 블라디보스톡宣言은 아·태지역에서의 蘇聯 外交原則일 뿐 아니라 同地域에서 蘇聯의 經濟的 位置를 새롭게 하기 위한 것임.
 - 同 宣言은 시베리아 등지에서의 山林·鑛物資源 및 漁業開發 事業에 박차를 가하기 위한 資本投資, 基幹產業開發의 必要에서 派生되었으며
 - 아·태國家들과의 貿易을 促進시키고
 - 모든 外國企業들과의 協力關係 改善을 目標로 하는 것임.
 - 이러한 宣言을 통해 蘇聯은 極東아시아 國家들과의 經濟協力 파트너가 될 수 있는 역동적이고 融通性있는 經濟國家로 進入할수

있으며, 이는 바로 同 地域內의 緊張緩和, 信賴構築, 相互 安全 保障을 가져올 수 있는 것임.

- 크라스노야르스크宣言 역시 安保問題를 軍備增強이 아닌 政治的・經濟的 方法을 통해 解決한다는 精神을 따르고 있으며
- 蘇聯은 東北亞의 安保問題를 經濟問題와 同時에 고려하고 있음.

○ 蘇聯에서는 『新思考』가 國際問題 接近에 새로운 틀이 되고 있으며 이는 人類의 普遍的 價値, 核戰爭 防止, 世界의 保全 (全一性)을 指向하고 있음.

- 過去와 같이 理念이나 階級鬭爭을 重視하지 않고,
- 國家間의 關係도 思想이나 이데올로기로 規定해서는 안되며,
- 平和共存, 軍縮을 實現하기 위해 努力하고 있음.

○ 現在 世界에는 여러 國家間 相互信賴 雰圍氣가 造成되고 있으며, 地域紛爭 問題도 軍事力이 아닌 政治的 方法, 直接 當事者間의 接觸方式을 통해 解決해야 할 것임.

- 이러한 原則的 命題는 韓半島에도 그대로 適用되며
- 그렇기 때문에 서로 論議하고 意見을 交換하는 것은 相互 理解의 幅을 넓힐 수 있을 것임.

2. 韓半島 情勢와 韓・蘇關係 (쿠나제 : IMEMO 研究室長)

● 現今의 國際關係는 대체적으로 緊張緩和, 協力雰圍氣를 造成하고 있으나, 極東地域은 他地域에 비해 이러한 潮流가 뒤떨어지고 있음.

- 極東地域에 있어 緊張의 原因은 바로 韓半島의 狀態이며,

150 統一教育

- 韓半島에는 2·3重의 軍事的 對峙, 즉 南·北韓, 美海·空軍, 美國의 韓半島 軍事基地化가 進行되고 있으나
- 韓半島 問題는 南·北韓 當事者間의 歷史的인 再統一 및 부분間의 對話, 接觸緩和의 必要性으로 歸着되는 것임.
- 韓半島에는 2개의 主權國家가 엄연히 存在하고 있으며, 이 두 國家는 兩國 經濟發展水準의 平準化와 自由民主主義에서의 同質化 進展을 통해서만 再統一할 수 있을 것임.
 - 이 두 國家는 國際法이 規定하고 있는 意味의 主權國家이며,
 - 平和보다 再統一이 더 重要하다는 認識에는 同意할 수 없으며,
 - 南北韓의 亞細亞·올림픽 單一팀 참가 合意를 기쁘게 생각함.
- 蘇聯이 韓國과 關係를 맺게 된 것은 새로운 意味의 國家的 利益을 고려한 데서 나온 措置임.
 - 韓國에서의 民主化 進展이 그 近因중의 하나이며,
 - 兩國關係는 國家的 利益에 相應하여 發展될 것이며,
 - 이는 제 3국, 특히 北韓에 直接的인 利害關係를 끼치는 것은 아니며,
 - 바람직한 韓·蘇關係 定立을 위해서는 法的·인프라 스트럭처의 確立이 要求되며,
 - 兩國關係는 韓半島 周邊의 複合的 要因때문에 하나씩 段階的으로 解決해 나가야 할 것임.
- 國際法에 의한 國家間 形態는
 - 1) 初步的 段階 (非公式關係)
 - 2) 第2 段階 (實際的 善隣關係)
 - 3) 第3 段階 (完全한 修交)가 있으며, 韓·蘇關係는 第1 段階

에 있다고 할 수 있음.

- 現在의 韓·蘇關係는 第2段階로 넘어가는 것이 必要하며,
- 한번에 3段階로 뛰어넘어서는 안됨.

- 韓半島에 影響을 주는 周邊 狀況은 中·蘇間의 軍事的 對立, 東海와 오오츠크海에서의 蘇聯 潛水艦 配置에 대한 美·日의 封鎖 企圖 등이 있으나,

- 窮極的으로 兩國關係의 進展은 兩國 내부의 民主化와 깊은 關聯이 있기 때문에 이런 意見交換의 契機는 매우 重要하다고 생각함.

3. 亞·太地域의 戰略·安保關係 (아르바토프 : IMEMO 研究室長)

- 東北亞의 軍事的 紛爭은 現實로 나타나지 않고 潛在해 있기 때문에 強大國들이 武力衝突에 直接 介入할 可能性이 매우 높음.

- 最近 美 戰略은 極東地域에 있는 蘇聯을 打擊할 수 있는 『水平的 에스칼레이션』조짐을 보이고 있으며,

- 東北亞를 포함한 亞·太地域의 地政學的, 軍事 戰略的 環境은 너무 광범위하기 때문에 유럽과 비교할 수 없음.

- 南北韓間 軍事的 交渉에는 유럽의 經驗이 適用될 要素가 매우 많음.

- 南北韓 쌍방이 政治的으로 이러한 交渉을 保障한다면 도식을 만드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으며,

- 우리 研究所와 圖式創出 契約을 하면 가능할 것임.

- 地域紛爭 解決問題는 強大國이 직접 關與하기 보다는 當事者間 解決原則이 適用되고 있음.

- 서로 論議하고 意見을 交換하여 理解의 幅을 넓히는 것이 무

엇보다도 중요함.

- 亞·太地域 安全保障의 關鍵은 남북한 및 中·蘇間 國境地帶의 軍事的 對立의 緩和·改善없이는 불가능함.
 - 최근 美·蘇間 海軍力의 縮小交涉이 시작되고 있으며,
 - 非核地帶 設置, 信賴措置 造成도 가능할 것으로 보임.
- 韓民族의 再統一은 한번에 解決할 수 없는 긴 過程이며,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軍備縮小가 요구됨.
 - 남북한간 軍縮問題는 개별적으로 進行되어야 할 것이며,
 - 개인적으로는 統一의 實現可能性이 희박할 것으로 판단됨.

韓國·폴란드修交관련 반응종합

한국이 헝가리에 이어 최근 폴란드와도 정식외교관계를 수립한 사실은 北韓의 對동구공산권외교에 심대한 타격을 주었을뿐 아니라 외교정책 전반에 걸쳐 일대 변혁을 필요로 하는 시련의 계기를 맞게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이번 한국·폴란드간의 정식수교는 9개월 앞서 있었던 헝가리와의 수교에서부터 현실로 나타나기 시작한 東歐공산권 국가들의 對韓 관계 개선 「도미노현상」을 더욱 가속화시키면서 앞으로 불가리아등 일부 주변공산권국가들의 對韓접근 움직임을 한층 표면화시키는 계기를 마련해 주었다는 점에서 北韓이 받은 충격은 지대한 것이다. 특히 최근들어 北韓으로서는 「사회주의 宗主國」인 소련이 보여주고 있는 일련의 거침없는 對韓접근제스처는 한·소간의 관계개선 나아가 외교관계 수립마저 가까운 시일내에 실현될지도 모른다는 가능성마저 시사하고 있다는 점에서 최근 北韓의 외교가 전반적으로 커다란 변혁과 시련의 위기에 봉착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처럼 구체적으로 위기상황에까지 몰려있음에도 불구하고 北韓이 이번 한·폴간 수교에 즈음해 보여준 반응은 지난번 헝가리의 경우와 비교해 볼 때 비교적 「소극적이고 완화」된 태도를 보이고 있어 관심을 끌었다.

11월 10일 현재까지 北韓이 한·폴修交사실과 관련해 나타낸 공

식반응은 修交발표(11.1)이전인 10월 27일자로 폴란드주재 北韓대사(朴상암)를 평양으로 조기송환한데 이어 북경주재 北韓대사관의 한 관리가 「심한 불쾌감」을 표시(11.1)했다고 의신보도가 있었으나 이를 北韓의 공식반응으로 보는데는 약간의 무리가 있었다.

北韓은 修交발표 3일후인 3일에 가서야 黨기관지 노동신문 논평을 통해 한국과 폴란드간의 修交사실에 처음으로 공식 언급하면서 이번 修交로 北·폴란드간에 유지돼온 전통적 우호관계에 흠이 가게 되었다고 주장하고 끝으로 北韓에 대한 폴란드의 태도를 무시할 것이라고 강조하고 나섰다.

北韓은 폴란드가 『제국주의자들의 사상·문화적 침투와 그에 합세한 반사회주의 세력들에 의해 정권이 교체됐다』는 등 脫사회주의노선으로 선회한 최근 폴란드의 정치개혁 사실을 『제국주의에 의한 사회주의 와해책동』으로 매도하면서 『폴란드 당국은 이번에 저지른 행동으로 인해 쓴맛을 볼때가 있을 것』운운으로 호언하기도 했다.

그러나 北韓의 이같은 반응은 지난번 헝가리의 경우와 비교할 때 크게 완화 내지 후퇴한 태도라고 할 수 있다. 즉, 헝가리와 한국이 修交를 위한 사전준비작업을 벌이고 있을 무렵인 '88년 11월 헝가리주재 대사로 부임한지 얼마되지 않는 김평일(金正日의 이복동생으로 金日成과 現妻 김성애간의 소생)을 평양으로 갑자기 소환함으로써 불안과 항의를 노골적으로 표시했다.

이어 금년 2월초 한·헝가리 修交가 발표되자 北韓은 즉각 헝가리와의 외교관계를 대사급에서 대리대사급으로 격하시키는가 하

면 상호간에 40여년간 유지해오던 비자발급 면제협정을 서로가 폐기했다.

이때 비자발급면제협정 폐기조치는 헝가리측에서 먼저 요청했는데 그 배경에는 오는 11월 중순경으로 예정된 盧泰愚대통령의 헝가리방문과 밀접한 관련이 있었다. 즉 아웅산폭탄테러 및 KAL 여객기공중폭파만행 등으로 만천하에 드러난 잔인무도한 테러집단으로서의 北韓의 실체를 알고있는 헝가리로서는 이같은 「위험천만한 北韓사람」들이 헝가리를 마음대로 활보하게 놓아둘 수가 없었던 것이다.

北韓은 한·형수교를 전후해 외교부대변인 성명과 노동신문은 평등을 잇달아 발표하면서 헝가리에 대한 『제국주의와 손잡기위해 사회주의를 배신했다』느니 심지어『몇푼의 달러에 몸을 파는 행동』운운으로 원색적인 표현으로 헝가리를 비난한 바 있다.

이번 폴란드와의 修交에서 보여준 北韓의 반응은 그 형식도 크게 축소됐을뿐 아니라 내용면에서도 극단적인 표현과 강도높은 목소리를 가급적 피하는등 자제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北韓의 이같은 태도변화는 물론 헝가리·폴란드에 이어 계속 가시화된 것으로 보이는 동구공산권국가들의 對韓 관계개선 「도미노현상」앞에 속수무책일 수 밖에 없는 北韓의외의 한계성을 그대로 드러내주는 것으로 풀이된다. 또한 한반도문제와 관련한 美·蘇등 주변강대국들의 태도변화와 함께 한반도정세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주변국들의 분주한 접촉과 대화등 최근 일련의 격변하는 정세변화가 北韓의 입지를 더욱 악화 또는 곤혹스럽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소련이 보이고 있는 최근 일련의 노골적인 對韓접근제스처와 北韓에 대한 은근한 압력은 北韓으로 하여금 더욱 초조하게 만들고 있음이 분명한듯 하다.

소련은 지난 10월 19일 관영모스크바방송을 통해 한국의 유엔가입을 사실상 거부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표시하면서 北韓에 대해서도 이를 「접수」하도록 은근한 압력을 행사한데 이어 10월 20일자로 유엔에 제출한 공식문서에서 한국의 유엔가입노력에 대한 긍정적방향에로의 전환가능성을 시사했다.

이어 소련조선공업성차관과 한국을 방문한 소련과학아카데미 산하 세계경제 및 국제관계연구소 마르티노포소장등 고위 인물들이 이구동성으로 韓·蘇간의 외교관계수립 불가피성과 조만간 실현가능성을 강력히 암시했다. 특히 이번 韓·폴간 修交와 관련해 소련은 공식발표도 되기 전에 이미 修交를 기정사실로 보도(10. 31)하는가 하면 지금까지 사용해오던 「남조선」대신 「한국」으로 호칭(11.1)함으로써 소련의 對韓태도변화를 단적으로 과시하기도 했다.

최근 金日成의 들연한 중국비밀방문(11월초)도 결국 北韓을 둘러싸고 급변하고 있는 최근 일련의 이같은 주변정세급변과 결코 무관할 수가 없다.

소련의 급격한 태도변화와 동구공산국가들의 거센 민주화개혁물결과 함께 잇달아 현실로 나타나고 있는 이들 「우방국」들의 對韓관계개선 러시속에서 北韓은 더이상 앉아서 버틸만한 여유가 없어진 것으로 보여진다. 따라서 「그래도 믿을것은 중국뿐」이라는 다급한 심정으로 중국에 어떤 도움과 지원을 요청했는지 아

니면 오히려 중국으로부터 개방의 불가피함을 중용받았는지 현재까지 구체적으로 알려진 바는 없다.

그러나 헝가리와 폴란드의 잇달은 對韓修交사실로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동구공산권의 거센 개방화·민주화 물결앞에 직면하고 있는 北韓으로서는 과거와 같은 신경질적인 불만표시 등으로 상대방과의 관계를 악화시키는 어리석음을 범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현재로서 北韓이 할 수 있는 일은 여타 공산권의 對韓접근을 가능한 견제하는 노력과 함께 공산권의 개혁·개방화물결이 그들 내부에 침습하는 것을 막기위한 사상교양의 강화뿐일 것으로 보여진다.

(내외통신 665 호, '89.11.10)

—時事資料—

統一教育('89-6)

1989年 12月 日 印刷

1989年 12月 日 發行

統 一 研 修 院

(電話 236-1749, 234-4103)

印 刷 和 盛 文 化 社

(電話 278-3421, 3422)
